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68 1982년3월10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March 10,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MAR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최홍희씨 「보도자료」 통해 무혐의주장

본지등을 고소할 듯

"악랄한 보도로 세계적 명예 더럽혔다"

전두환대통령 살해음모 혐의자 최중화의 부친 최홍희씨는 9일 본 토론토 한국일보사, 코리안·저널, 민중신문의 발행인및 편집자와 의사 황대연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중이라고 통고해 왔다. 변호사 버나드·카민씨가 보도자료 형식으로 보낸 이 통고문에서 최씨는 본보등이 근거도 없이 자기가 마치 이번 사건에 가담된 것처럼 악랄하게 보도, 캐나다뿐 아니라 캐나다의 한인사회및 전세계 한인들에 알려진 자신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최씨는또한"토론토의 연방경찰(RCMP)대표들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이번 사건에 한번도 혐의자로 지목된적이 없었으므로 자신을 혐의자로몬 어떤 기사도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4일 최씨의 측근자는 최씨가"금주중 모종의 강력조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최씨가 그간 언론등으로부터 오해를 받았으므로 기자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을 해명할것이라고 밝혔었다.

「한국대통령 살해음모사건에서 명예훼손된 최장군」기란 제목으로된 이 발표문은"최씨는 남한 사람들에게 잘알려진 존경받는인물이며, 한국군 창설멤버로 승진을 거듭, 육군소장및군단장을 지냈다. 그는 1962년 예편한뒤 2년반동안 말레이지아 대사를 지냈고, 태권도를 고안, 1966년부터 전세계적 기구인 국제태권도연맹 창설멤버로 활약했다.

◇최홍희씨

1972년 가족과함께 캐나다 영주권을 얻었고, 75년 시민권자가 되었다. 72년 국제태권도연맹본부가 토론토로 옮겨진뒤 최장군은 전 세계에서 태권도 관계자로 널리 존경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본사가받은 발표문은 내용상으로볼때 명예훼손 고소제기에 앞서 필요한 정정·사과등 요구조건없이최씨가"변호사로부터 고소를 위한 법적조언을받고있다"는것을 서면통고한 것에 불과하지만이같은 고소의사를 비춤으로써 언론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의사 황씨는 앞서 「코리안·저널」지와의 인터뷰 에서"연방경찰은 최씨가 이북에서 30만달러 정도를가져온 것으로 보고있다" 라는등의 발언을한 것으로 보도됐다.

최씨는 사건발표직후「뉴코리아·타임즈」지와의 인터뷰와 측근 김현두씨를통해"자신은 이번사건과 아무 관련이없고 아들 최중화와는 평소에 의견충돌이 잦았으며, 성장한 아들이자신이 시킨다고해서 말을들었을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교포Y씨는"이번사건은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사건으로서 정치의식이없는 최중화가 자기아버지와 연관없이 단독으로이번일을 꾸몄다고는 볼수없다. 그가 배후인물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예상된 제스춰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최중화가 정치적인물이 아님은 특별수사반의 샌델리 형사에서도 확인됐었다. 샌델리형사는 지난2월25일 제롤과 야노버의 재판일자 확정 재판정 밖에서 본사기자에게"제임스 최는 이번사건에서 정치적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General Choi is a well-known and respected member of

AMIN, GOODMAN, GAK
Barristers & Solicitors

The Editor,
Korea Times,
928 Queen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arch 8, 198

announced today that he has retained legal
tute legal proceedings against The Korea Times

General Choi Libelled
in Korean Plot

Dear

Enclosed please find Pres

matter, for ate release

depicted to tarnish in Canada and th

Korean communit our

good reputation, not only the world-wide Korean commun

addition,

KAMI

ernard J. Kamin, Q.C.

◇최씨가 변호사를 통해 보도자료 형식으로 보낸 「고소의사 통고문」

세계 제2의 조선국 한국, 일본이 최대

(서울9일=연합) 한국은 지난해에 총322만톤의 조선주문을받아 세계조선 수주량의 10.4%차지. 세계최대의 조선국인 일본에이어 2위를 기록했다.

9일 한국조선업자협회가 밝힌바에 따르면 영국의조선전문지가 조사한 결과작년도 전세계의 총 조선수주량은 1,153척의 3천87만톤이었고, 일본의 수주량은 이의 44.5%인 430척 1천375만톤 이었다.

한국 다음으로는 브라질, 스페인, 서독이다.

최대고철수입국 한국, 일본을 앞서

(서울 9일=연합) 한국은 세계최대의 미국산 고철 수입국으로 등장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밝혔다

9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고철은 1,106,200톤이었고 일본은 작년에 1,015,900톤을 수입했다

재작년까지는 일본이 세계최대의 미국산 고철수입국이었다

팬·아시아식품 이창복씨 본사등 5명에 고소의사통고

쌀값등 문제로 최근 성명전과함께 가격인하경쟁을 벌였던 토론토한국식품업계 대립양상은 법정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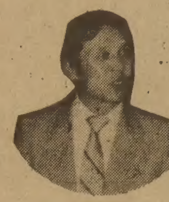
당사자인 식품도매상 팬·아시아대표 이창복씨는변호사를통한 고소의사 통고서에서"1월25일자 한국일보광고는 본인의 명예를훼손했다"고 주장하고 광고를 게재한 본 한국일보를 비롯, 광고주였던 삼복, 서울, 한밭식품의 3개식품, D.Y.수입상사는 사과문을게재하라고 요구했다.

명예훼손법 237조5항에 의거, 이씨변호사가 지난 1일자로 발송한 이 통고문은(1)1월25일자 광고를 전면 취소하고, (2)전면 사과하며, (3)취소및 사과문을전 페이지 광고로 잘 보이는 지면에 낼 것을 요구했다.

이 통고문을받은 피소대상자들은 이씨의 요구를전적으로 거부하고 팬·아시아및 이씨에대해 맞고소할 의사를 비쳤다.

삼복식품 김규석씨등 은"이씨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이씨가 이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면 우리도 그를 맞고소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광고에서 광고주들은 이씨가 도매상으로써 과당이윤을 남겼고, 식품점에따라 차별적 도매행위를 했으며 일단 공급한 물건도 보복하기위해 다시 가져갔다고 주장했었다.



◇이창복씨

이씨는 본사가 광고문안이 사실인지 여부도 알아보지않고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에대해 고소하려면 명예훼손행위발생 6주이내에 고소의사를 행위자에게 우선 통고해야한다.

◇연극〈작은 여우들〉의 왕실공연을 끝낸뒤 영국황태자비 다이애나양과 담소중인 헐리웃의 여왕 엘리자베스·테일러. 테일러양이 연극공연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런던으로 오자 영국의 언론은 크게 그녀를 환영했고, 다이애나양은 6월 출산을 앞두고 제법 배가 불렀다.

영국하원 통과
캐나다 헌법안 상원이송

(런던=영국)영국하원은 캐나다 개정헌법안을 3일간 토론끝에 통과, 상원으로 이송했다.

의회의 4개주요 정당이 지지한 개정안이 상원을통과하면 캐나다는 사상최초로 자신의 의회가 만든 헌법을 가지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캐나다 헌법은 영국의회가 식민지시대에만든 영국북미법(BNA)이였다. 영국상원은 캐나다 상원과같이 하원의 결의안을 대체로 그대로 통과하는것이 상례이므로 이번개정안의 상원통과는 시간문제로 보여진다.

지난12월 영국 하원으로 이송된 캐나다 개정헌법은 퀘벡주 대표들과 인디안대표들이 의회 로비활동을벌였으나 별문제없이 각소위원회를 통과, 지난5일 하원 총회에 상정됐었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오늘의 예금금리 2월22일현재

종별	기간	신용조합	일반은행
정기예금	30일	14.5%	12.5~13.5%
	200만불 돌파기념 특별봉사이율 봉사기간 : 3월20일까지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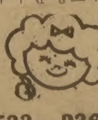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각종보험

B) 497-3800
R) 284-9052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536~1692
R.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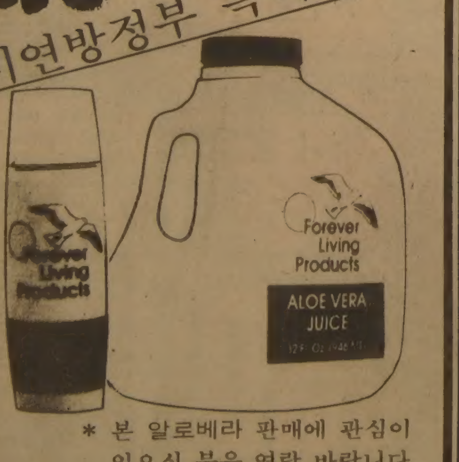


533-2361
주간女性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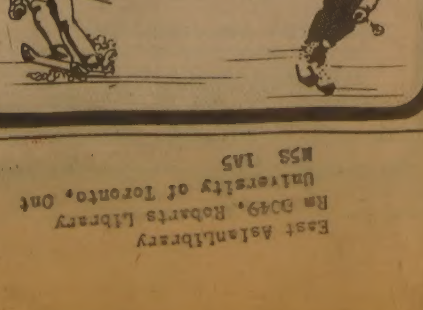
머리털이 빠져 고민하십니까?
머리털을 보존 하십시오.
STOP HAIR LOSS NOW!
● 위험신호 :
①당신이 머리를 빗을때 빠지는 머리털을 많이 보십니까?
②머리가 가렵거나 비듬이 많으십니까?
③당신의 머리털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기름이 많으십니까?
④당신의 머리가 잘빠지거나 불균형 하게 자랍니까?
당신이 위의 말 어느곳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늦기전에 전문가를 만나보십시오.
※상담은 FREE입니다.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오후8시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537-3104

신비의 생약 알로베라상륙!
미연방정부 특허품



★다른 약으로 별 효험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회사 제품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쥬 스—용법 : 한 수픈씩 하루 세번 세번 식후 식전 복용
○젤 리—필요하신 상위부분에 바르는것
○힐로숀—신경통, 관절통, 근육통 두통, 타박상, 발삔데등
○로 숀—여성피부 미용및 탈모증등 사용
(모든 고급화장품의 원료는 알로애이 첨부되어있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약속드립니다.
※임산부와 생리중에 있는분은 사용금지함.
* 본 알로베라 판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4020 DUNDAS ST. W. TORONTO, ONT. M6S 4W6 CANADA
(416) 769-4347(B) 248-1362(H)
정 효 기(Hyo-Ki Chung)

스키 협회 발기인모집
발전하는 교포사회와 함께 성장되는 스키붐과 편승하고저 아래와 같이 스키발기인 모집을 하고저 하오니 스키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나 관심을 갖고저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3월20일(토)
시간 : 오후7시
장소 : 한국관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민족상위원 확정

작년수상자 2 명포함 16명으로

본사제정 한인민족상 위원회(위원장 구상회)의 82년도 위원이 성정됐다.

재래의 정원 14명에서 2명을 증원해 16명으로 확정, 대부분이 재위촉 됐으며, 제1회 수상자중 2명을 포함 3명이 새로 위원이 됐다.

예술상·학술상·공로상·봉사상의 4개부문에 걸쳐 해마다 시상하는 "한인민족상"은 「캐나다사회 각 분야에서 공이 큰 인사와 캐나다 복합문화에 이바지가 큰 인사및 한민족을 빛낸 이에게 이 상을 수여함으로써 그 노고를 상찬하고, 정진에 촉진력 구실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이 상의 작년도 제1회 수상자는 전태균(공로)·박재훈(예술)·장근수(봉사)·김용순(예술)의 4씨였다.

금년 제2회 수상후보추천을 전국에 걸쳐 널리 공모중에 있다.

전국 각지구 한인회·한인단체들은 해당후보 1명씩 선정, 본사(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로 추천서를 보내주기 바라고있다.

개인적 추천인 경우 10명 이상이 연서로 추천하면 된다.

추천서 양식은 다음과같다.

위원장 : 구상회
부위원장 : 이축길
총무 : 이석현
위원 : 강신봉·고종옥·김명규·김지일·김창열·김춘탁 박재훈(신임)·박충도·박희민·안병원·윤택순(신임)·전태균(신임)·조덕남. (가나다순)

5권의 어린이교재 편찬준비회의

토론토의 씨알학교(교장 유회자)는 중급반(2~3년)을 위한 교재편찬 제2차 준비회의를 가졌다.

지난6일 디어파국교 도서관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위니팩의 김원경 박사, 시인 이석현, 교내측으로 유회자교장, 김숙회 부교장, 김옥자·정향조교사의 6명이 참석, 뱅쿠버의 김태환 박사는 사정으로 참석못했다.

준비회의는 먼저 유교장의 편찬취지 설명으로(1)토론토 교육국의 모국어프로정책, (2)언어지도방법의 발달과정, (3)주제교육, (4)단원발전 활동자료, (5)단원예정(지난11월4일의 제1차준비회 결정상황)보고가 있은뒤 5권의 교재 주제및 내용검토·수정등으로 들어갔다.

첫 준비회때의 필자중이길자씨(교사)는 개인사정으로 사퇴, 김옥자씨가 첫권「쉬운이야기」(어린이의 이곳 생활을 중심으로)를 집필키로 했고, 「전설·동화」는 이석현씨가, 「한국이야기」는 정향조씨, 「 회화」는 김숙회씨, 「음악」은 유회자씨가 맡아 곧 집필에 착수키로 했다.

제3차 준비회는 4월3일(토)하오1시 디어파 국교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뉴욕의 언어학자 박창해박사를 초청할 예정이다.

북미최초 시험관쌍둥이

1 개월후 옥빌서 탄생

북미최초의 테스트·튜브(시험관)쌍둥이 아기가 1개월후 온타리오주 옥빌소재 트라팔가병원에서 탄생된다 과학자들에 의해 시험관에서 배양된 난자와 정자의 수정체를 이식받은 옥빌의 여인이 그 산모

이번 시험관 아기는 이름이 알려지지않은 영국인 의사가 만들었나.

의사들은 「엑트라·사운드」라는 초음속 음파를 태아에게 발사, 그 반향음파를 측정해서 배속의 태아가 쌍둥이임을 확인했다.

세계최초의 시험관아기는 78년7월 영국 올드햄에서 탄생했다.

「시험관아기」란 남녀로부터 정자와 난자를 따로 받아 시험관에서 과학적으로 수정, 생명체를 만든후 이를 모체의 자궁에 이식해서 태어난 아기를 말한다. 이식단계의 생명체는 보통 16개의 세포로 구성됐다.

시험관아기는 난자생산의 능력은 있으나 나팔관이막혀 임신을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 개발됐다. 나팔관은 난소로부터 자궁까지난자를 수송하는 역할을 하므로 나팔관이 없거나 막히면 난자는 정자와 접합될수없다.

북미최초의 시험관 아기는 작년 12월 미국서 태어났고 세계최초의 시험관 쌍둥이 아기는 작년 호주에서 나왔다.

아기를 정상적으로 못갖는 부부는 소위「대리산모」를 쓰기도 한다. 이것은 남자의 정자를 대리산모가될 여인에게 인공수정시켜 임신시키는 방법이다.

◇북미 최초의 쌍둥이 시험관아기를 낳게될 킷·랜킨 여인. 그녀의 직업은교사이다.

양로원건립기금 $1만2천

Y'S멘클럽 임원확정

토론토한인와이즈멘즈 알파클럽(회장 천중환)는 새 임원진을 짰다

천중환 회장에 의하며새 부서 책임자는 아래와같다.

지난 26일 월례회 의결정사항— 오는 5월29일 베타클럽과 공동주최로 연례 골프대회를 개최, 낚시대회도 여름안에 계획하고 있다.

한편 동클럽이 설립한양로원건립위원회(위원장 김명규)가 이날 밝힌 바에따르면 초대작가 합동전시회 수익금이 1만496달러 44센트였으며 이를 건립기금으로 적립했다 현재 건립기금 총액은 1만1천556 달러44센트이다

◇알파클럽 임원

회장 : 천중환
부회장 : 나상선
사무장 : 송인문
알렉산더 : 나영삼
봉사 : 조덕남
회계 : 이학천
멤버쉽 : 김이열
펀드레이징 : 최상수
홍보 : 유영린
여행 : 최동주
프로그램 : 장연탁
비숍펀드 : 김인환
와이즈메넷 : 천재조

한국일보
533-2361

제5계절

흑인음악(黑人音樂)

안 병 원(음악가)

◇안병원 씨

필자소개 : 작곡·지휘자

○1926년. 서울생
○46년. 서울중앙방송국음악계
○49년. 서울대음대 졸업
○53년. 한국어린이음악사절단장으로 미국 순회공연.
○53. 경기여중고·경복중고·용산중고 교사.
○68. 숙명여대 교수.
○74. 캐나다 이민.
○현재. 토론토한인Y 합창단·토론토한인천주교 성가대 지휘자
○토론토한국일보 제정 한인민족상위원.

"애! 시끄럽다. 꺼버리든지 소리를 줄여라."

때려부수는 듯한 요란한 드럼소리와 빠른속도의 음악이 나오면 어른들은 한번씩 소리를 지른다.

청소년들 중엔 그 무거운 카셀 래디오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거리가 떠나갈듯 볼륨을 높여 즐기는가 하면, 공부를 하면서도 역시 음악을 듣는다. 젊은이들이 즐겨 듣는 이 음악을 우리 어른들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유행하는 음악은 흑인들에게서 온 리듬을 따서 지어지고 불리우고 있다. 오랜 옛날 백인사회에서 흑인의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흑인음악의 리듬이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노예 이전의 아프리카 토인이 가진 리듬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의 기초로서 식사때, 일할때, 싸움, 사냥, 낚시, 종교의식등… 심지어 "누가 병이 났다."는 말까지 모든 행동을 타악기(북)으로 두드려 그 음색과 장단(長短)으로 전달이 되었다.

여기서 자란 흑인들을노예로 고용한 백인은 이들의 종교와 모반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엇이든 두드리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위반하는 흑인에게는 사형, 아니면 심한 매질을 가했던 것이다. 이로써 흑인노예에게 남은 것은 슬픈 선율의 리듬 없이 흐느끼는 노래.

이 선율에서 생긴 것이 오늘날의 "부르스"로 여기에는 그 강렬한 리듬악기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타고난 그들의 "리듬"에 대한 향수는 허용된 서로의 주고 받는 말을 성악을 이용한 발성의 리듬으로 적으나마 그들은 즐거움을 찾았다.

지금도 흑인교회에서는 이런 "문답식 찬송가"가불리우고 있다.

같은 흑인음악이라도 스페인 제통으로 "큐바"에팔려온 흑인들의 음악은 순 아프리카의 강렬한 리듬이 다소 변형은 하였으나 그대로 역력히 남아있다

혁명후 지금은 어떻게변했는지 모르지만…, 미국으로 끌려온 흑인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었다. 인간이 절망과 고생에 시달리면 하느님을 찾고 의지한다. 이들 본래의 종교는 금지되었으나 허락된 범위내에서 백인들의 그리스도교를 따라 개종하기 시작하여 노동가등, 그외 아름다운 선율의 종교가곡이 불리우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그들에게 고향에 대한 열망을 누구러뜨리고 가는 곳은 "주 예수님 곁으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고생의 날은 끝이 났다. 천국에 가는 날에는부모형제를 만날 수 있다. 천국길에…"—

흑인들은 누구나 믿고 고생을 참았다. 믿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미하였다. 이것이 "흑인영가(黑人靈歌)"다. 흑인영가를 흑인의 종교적인 민요라고도 한다.

신코페이션(Syncopation 切分法)에서 볼 수 있는 5음계적인 단순한 음정에 다성적(多声的)인 경향인 특유한 리듬감이 가해서미국의 신교 찬송가에도 영향이 미쳤다.

대략 19세기 초기부터확립하여, 이것이 민스트렐(Minstral)쇼에 수입되고, 흑인연주단체로 인해 유럽각지에 알려지게 되었다. "깊은 강(Deep River)", "예수에게로 피하자(Steal away to Jesus)", "누구도 모르는 나의 고민(Nobody Know de trouble I've Seen)"등이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다.

노예해방과 더불어 그들의 쇠사슬은 벗겨졌으나아직도 인종차별 때문에 마음의 쇠사슬은 묶여있는것 같다. 그들 흑인중에는 예술계나 체육계등으로 백인들보다 월등하게 활약하는 자도 많다. 흑인들이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앞으로 "백인영가"(白人靈歌)가 나올지 모르겠다.

* 양식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 또는 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 요망).
추 천 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HAN KOOK IL BO)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별난 전보—축전에도 가지가지, 배달부가 노래로 전하는 싱잉텔레그램이 신기해보인것도 잠깐, 바니·리는 이날씬한 아가씨는 『스트리퍼그램』을 시도, 인기를 얻고있다.

기름 10%節約—가능하다

「개솔린 절약방법」著者가 말하는 20가지 要領

항상 車窓닫도록 맨발運轉이 有利

개솔린값이 금값처럼 여겨지는 요즘, 모두들 개솔린을 아끼기 위해 소형차를 구입하느라 아우성이다.

소형차가 개솔린을 절약시켜주기는 하지만 대형차라도 몇가지 규칙만 지키면 많은량의 개솔린을 절약할수있다.

자신이 시키는대로만 운전하면 평상시에 소모되는 개솔린의 10%정도는 충분히 절약할수 있다고 주장하는 「개솔린 절약방법」의 저자 케빈·구드럼씨의 20가지방법을 소개해 본다.

1. 매일 지나다니는 길중에서 교통이 번잡한교차로나 빨간 신호등이 있는곳, 레프트턴을 해야할곳은 피해서 간다.

2. 운전할때 바닥이 두꺼운 신은 착용치 말것. 액셀레이터에 둔감할수록 개스가 많이소비됨, 맨발운전은 좋다.

3. 토갈에서는 항상 30마일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너무 느리거나 55마일을 넘으면 개스낭비.

4. 공기의저항을 덜받기 위해서는 항상 차창을 닫고 운전할것.

5. 주차료나 통행세를 지불하기전에는 항상 알맞는 잔돈을 준비, 시간을 낭비하지 말것

6. 피곤하거나 화가 났을때는 운전하지 말것. 불필요하게 악셀을 밟아 개스를 낭비하게된다.

7. 운전하기전 좌석벨트를 매고, 백미러등 조정, 엔진을전후 출발전시간을 낭비하지 말것.

8. 1분이상 차가 멈추어서 있을때는 기아를 뉴트럴(N)로 바꿀것.

1分이상 停車할땐 기아를 뉴트럴로 워밍업될때까진 서행하는게 利點

9. 자동기아가 변속될때, 악셀을 무리하게 밟지말것.

10. 왼쪽·오른쪽으로 돌때는 되도록 천천히 운전할것

11. 신호등을 멀리서부터 관찰, 곧 빨간불이 켜질듯하면 미리 속도를 천천히 줄여갈것.

12. 날씨가 나쁜날에는 운전을 하지말것. 비또는 눈이와서 길이 미끄러우면 개스가 많이듬. 추울때도 마찬가지.

13. 시동전후 엔진 워밍업에 30초이상 소비하지 말것. 대신 워밍업이 될때까지는 천천히 차를 몰것.

14. 주차장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것. 좀 걷더라도 [illegible]는곳에 주차할것.

15. 전진하면 차를 후진시킬때는 차가 완전히 멎은뒤에 후진으로 기아를 넣을것.

16. 개솔린을 넘치게 채우지 말것.

17. 경사진곳에 엔진을 끄지않은채 잠시 서있는동안에는 기아를 뉴트럴(N)로 바꾸고 에더젠시브레이크를 사용할것.

18. 평평한길을 달릴때는 레귤러개솔린을 사용하고, 토갈을 달릴때는 레귤러와 프리미엄을 반반씩 섞어서 사용할것.

19. 차가 얼음판이나 진흙에 빠졌을때는 모래를 깔아 마르게한뒤 차를 빼낼것. 비상용으로 모래와 삽을 트렁크에 넣고 다니면 편리하다.

20. 울퉁불퉁하고, 거친길은 피해서 운전할것.

투 자 상 담
●361—3428 강 상 욱

京 華 樓
(경 화 루)
PEKING— RESTAURANT

※전통적인 맨다린 음식
※특별 : 북경오리 음식

* 겨울 스페샬(Peking Duck & Firepot)

●진미의 해산물 요리
●국수, 야채전문
●항상上海점심 스페샬

주소 : 257 COLLEGE ST.
(스파다이나× 칼레지)
전화 : 979—2422
영업시간 : 11 : 30A. M.~10 : 00P. M.
(매주 월요일은 문닫음)

1982학년도 미주장로회신학대학(토론토캠퍼스)

신·편입생 모집 요강

과정	과 구 분	자 격	수업연한	취 득 학 위	특 전
학위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수세후 2년 이상자 ② 정규대졸업자, 동등이상자	3	교역(신)학석사 (M. Div.)	① 졸업후 총회고시를 거쳐 노회에서 안수받는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와 모국총회산하에 활동한다.
	신학사과정 (B. A.)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문 학 사 (B. A.)	① 졸업후 교역학, 기, 교육학과 2년에 편입된다. ② 졸업생전원은 본총회산하에서 전도사가 된다.
	종교음악과	① 수세후 1년 이상자 ② 고졸자 동등이상자	4	B. MUC.	① 음악목사 코스 ② 졸업생은 노회에서 시행하는 장로고시 일부가 면제
비학위	성서과	학력 제한 없음 ① 수세후 1년이상자	2	수 료 증 (노회인정)	졸업후 심사하에 본교에 진학할수 있음.

1. 원서교부, 접수 및 시험 장소 : 본대학 교무과(오순절장로교회) 754 Indian Rd., Toronto, Ont. M6P 2E3 (416) 762—1495
2. 원서접수마감일 : 1982년 3월 30일(월) 오후 6시
3. 전화 문의할 곳 : 762—1495, 630—0735, 746—2870, 745—7370, 881—7162, 493—0615
4. 구 비 서 류 : ① 입학원서 ② 최종학교졸업증서 및 성적증명서 ③ 당회장 추천서 ④ 사진 3매(명함판) ⑤ 전형료 $ 50.00(시험당일 지참)
* 시 험 과 목 : 성경, 국어, 역사, 일반상식
5. 시 험 일 시 : 1982년 3월 31일 오후 7시
시 험 장 소 : 본대학 강의실
6. 합 격 자 발 표 : 1982년 3월 31일 당일 발표
7. 수 업 시 간 : 월, 화, 목 오후 6—10시
8. 등 록 금 : 학위과정 학점당 30불, 비학위과정(성서과) 100불
9. 개 교 일 시 : 1982년 4월 5일 오후 6시(신입생 Orientation)

✣ 본대학 교육기본방침
1. 미주한인장로회총회 헌법에 기준, 교역자 양성과 평신도를 훈련한다.
2. 장로회신학대학(서울 예장통합측)과 공동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한다.
3. 소명의식이 투철한 인재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주어 복음사업에 동참케 한다.

✣ 학장자문위원(Consultants)
1. 이종성박사(장로회신학대학〈서울〉학장)
2. Dr. Michael D. Ryan (Prof. of Drew Unv.)

✣ 종교음악과 교수진
○작곡 : 박재훈 박사
○기악 : 유회자 박사(오르간)
○성악 : 이주연 선생

✣ 신학과 교수진 :
최양선 강세대 김창진 이병규 김용주 김용출
최상봉 안상영 김용진 최이열

미주장로회 신학대학
학장 이병규 토론토분교장 최 양 선

세계의 奇人들

天才과학자들의 誤謬와 失手

기차가 時速 120마일이상 달리면 "旅客들은 숨막혀죽는다"

괴테 「岩石水成論」 적극 지지

뉴컴 空氣보다 무거운물체는 飛行불가능하다

피커링 "달表面 분화구는 昆蟲"

오늘과같은 과학문명을 누리게된 것은 수많은 천재적인 과학자의 힘이 컸다고 할수있다. 그들의 끈질긴 연구로 뛰어난 과학적 업적이 이루어진 때문이다. 그러나 뛰어난 과학적 업적을 남긴이들 천재적인 과학자들에게도 때로는 오류와실패가 있었다. 이들 오류나 실수들은 후세의 다른과학자들에 의해 시정되곤 했지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를 믿어왔다. 후세에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면서도 생전에 오류를 저지른과학자들을 골라 소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BC384~322)=그는 1천8백여년동안 가장 위대한물리학자이자 생물학자로 꼽혀왔다.

그러나 그에게도 오류는있었다. 그는 날으는 물체들(화살이나 던진돌등)은 대기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고 가르쳤다. 그는 또 머리가 아닌 가슴이 감정과 지성의토대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무거운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고 믿었다. 이같은 오류외에도 그는 생물체들은 조상이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나는것이라고 지적했었다.

인간의 原子力이용 幻想에 불과 核에너지·相對性 이론 비웃기도

갈릴레이는 30년후 자신의 主張 번복

▲레오나르도·다·빈치(1452~1519)=위대한 예술가이자 뛰어난 과학자였던 그는 무거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물체의 떨어지는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옳게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한가지 잘못을 범했다. 즉 그 스피드가 떨어지는 거리에 비례해 증가한다고 주장한것. 그러나 사실은 떨어지는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는것을 잘못 지적한것이다.

▲갈릴레오·갈릴레이(1564~1642)=그는 던지거나 떨어지거나 또는 쏘아올린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문제를 마침내 풀었다. 그러나 그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그동작이 시작되는 순간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속도가 증가한다고주장함으로써 다·빈치의 오류를 그대로 범했다.

▲요한·볼프강·폰·괴테(1749~1832)=이 위대한 독일 문학자는 그의 명성을 문학쪽에서보다 과학쪽에 남겨두고싶었다. 그의 빛과 색에관한 방대한 저서인 「색채학」(1810)에는 그당시나 현재의 통설에 반대되는 학설들이 포함돼있다. 괴테는 또지구에있는 바위들이 한때 이세상을 덮었던바다밑에 있던 물체들이 변한것이라는 암석수성론을 지지했다. 암석수성론은 현재 지질학에서 부정되고있고 암석화성론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있다.

▲디오니시우스·래드너박사(1793~1859)=1830년대에 런던의 유니버시티·컬리지에서 자연철학및 천문학교수로 일했던 아일랜드태생의 래드너박사는 어떤 대형증기선도 대서양을 건널수없을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실고가는 석탄보다 더많은 석탄이 필요하기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레이트·웨스턴」호는 1838년에 그일을 해냈다.

▲윌리엄·톰슨(1824~1907)=켈빈경으로 알려진 그는 영국의 가장유명하고 다재다능한 과학자였다. 그는 열역학및 응용전기공학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그러나 1897년 이지구상에는 20만년이전에는 사람이 살고있지않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은 보편화된 이론인 전자기의 진동속도와 빛의 속도가 같다는 이론을 부정했다.

이 그것을 흡수하는 물체에 어떤 작용을 가한다는 이론도 부정했다. 켈빈은 이같은 가정들이 『흥미있고 훌륭한것이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조리에맞지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이먼·뉴컴(1835~1909)=그는 미국의 뛰어난 우주과학자였다. 그의 천체움직임에대한 계산은 아주 탁월한 것이었다. 그는 공기보다 무거운 기계가 나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많이 발표했다. 라이트형제의 첫비행이 성공한직후(1903~1905)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실용화될수없다는 그의 입장을 고수했다.

▲퍼시벌·로웰(1855~1916)=그는 1894년께 아리조나에서 많은 우주관찰을 실시했고 특히 화성에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했다. 그는 화성이 많은 길고 곧은 운하망으로 구성돼있다고 주장, 5백개이상을 지도로 그렸다. 그러나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윌리엄·피커링(1855~1938)=이 유명한 천문학자는 로웰의 화성의운하설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그러나 그는 1924년에 달의 분화구 에라토스테네스에서 탐사된 많은 어두운점들에 관한 기묘한 이론을 발표했다. 그는 그것들이 달위에 있는 수많은 곤충들이라고 주장했다.

▲니콜라·테슬러(1856~1943)=유명한 물리학자이며 전기기기 발명가인 그는 발전및 배전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는 1930년대와 40년대초 원자력발전은 한갓환상에 지나지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자력에의한 발전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어니스트·루더퍼드(1871~1937)=그는 핵물리학의 선구자요 개척자였다. 그의 케임브리지대연구실은 핵물리학분야의 저술, 교수, 발견에서 세계적인 권위로 꼽혔다.

그러나 그는 1933년원자핵속의 방대한 에너지에관한 이론을 비웃었다. 그와함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루더퍼드는 인간이 언젠가 핵에너지를 사용하는방법을 배울수있으리라는 생각을 「헛소리」라고 표현했다.

세계最高의 寶物박람회

—런던 로열 아카데미서

1만여점에 9백28만불

그자리서 진짜여부 判別도

두달동안 各國수집가들 몰려

장엄·찬란…한개房에 모아

세계각처에 있는 미술품 도자기 아름다운 가구등이 런던의 피카딜리에 있는 유명한 로열·아카데미의 옥타곤·룸에서 전시돼 전세계 애호가들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있다.

벌링턴·하우스박람회라고 불리는 이전시회는 12일부터 3월21일까지 두달동안 열리고있는데, 품목들을 전시대에 그냥 늘어 놓는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완전히 한개의 방을 장엄하고 찬란하게 꾸며놓은것이다.

이전시회는 엘리자베드 여왕이 후원하는 것으로 벌링턴미술전시회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로스브너·하우스박람회를 통합한것.

여기에 출품된 품목은 60명의 소장가 내놓은 것으로 약1만점에 이르는데 시가는 약9백28만불로 추산되며 이를 보기위해 세계각국에서 수천명의 수집가들이 속속 몰려들고 있다.

출품된 물건 하나하나가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것들인데도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토의를 거쳐 그진짜여부를 판별해주게 되어있어 수집가들로서는 가짜로 골치를 앓을 필요가 없게되어 있다.

엘리자베드2세와 그밖에 영국왕실 식구들의 귀중한 보물들도 여기에 출품되는데 1830년에 규정했던 품목제한이 지난해 철폐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폭넓은 물품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따라서 올해는 조각품이 많이 나왔다. 그중에는 1900년 파리박람회에 처음으로 출품되었던 에밀·앙드레·보아소의 일본옷을 입은 여자의 동상도 포함되어있다.

한남학생회 2차의 야외수련회

투론투한인천주교회학생회(회장 유현진)는 아래와같이 2차에 걸친 묵상회를 실시한다

연례행사인 이 묵상회는 신앙심을 기르는 한편 몸과 마음의 수련과 공동생활을 익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3월23일(화)~26일(금)—3박4일 9학년 이상

4월2일(금)~4일(일) —2박3일 7~8학년생

묵상장소 : 뉴마켓 수도원 「피정의 집」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무 중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실성의 젖,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CASH & CARRY

Old south orange Juice	24x12oz.	$24.09
J&M Schneider Cooked Ham		$ 1.59
Beef steakettes		$ 1.89
10 Oz. Wiener		$ 1.27
Tetley tea	24x36	$22.65
Nabob coffee	12x1 lb.	$36.89
Rown tree Reg.	36's	$ 9.89
Maple leaf flavor meat		.79
Salami		.99

한인연합상사
251−6578 U.K.L.CASH & CARRY 27 RANGEMORE DR.TOR.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연속극, 문학영화, 전설…
비디오
VIDEO··VHS.BET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시간~3시간)
전설의 고향—학녀, 3종지도, 정승골 대감, 조강지처, 우는바위
TV문학관—역마, 배따라기, 청산댁, 무진기행, 산상에 서다, 삼포로 가는길, 형제, 매밀꽃필 무렵등….
영화—육군사관학교, 낙도의 무지개, 칼과 이슬, 전우가 남긴 한마디, 다정다한, 배삼룡의 일생, 고교얄개전, 오럴대 소년
코메디—웃으면 복이와요, 코메디 출동, 특소대작전, 김희갑 전집.
쇼—쇼11, 쇼2000, 100분쇼, 쇼쇼쇼, 이미자전집, 최희준전집, 젊음의 행진, 가요싸롱, 흘러간 노래모음, 싱글벙글쇼, 5천만의 대행진등…50여편.
수사극—간첩체포 일화, (얼어붙은 강, 여울의 소리, 고향이 부르는 소리), 수사반장, 형사 외 7편
사극—암행어사, 토모대장, 대명, 각자 10여편
민속—팔도대항전, 한국민속경연대회, 전국민속대항전, 푸른 조국, 청자빛 하늘아래
일요드라마—소망, 부부, 한국의 미, 앞뜰가족등 10여편
기타—인간가족, 사랑의 체험6편, 제1공화국 10여편, 동심초, 국군의날 기념,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결승전(광주제일고 : 선린상고)
경연대회—제5회 대한민국 연극제 당선작"족보", 제11회 전국노래자랑 춘천편
어린이용—우주 대작전, 뭉나바, 모험소년, 15소년표류기, 죽엽의 코스, 정이의 세계여행스, 화이팅 우주소년, 우리들의 광장, 만화동산, 알개시대, 호랑이 선생, 마징가, 일지공주등 50여편
한국말 외화—다녀지바고, 애미새라뮤, 죽음의 코스, 집없는 아이, 서양의 무법자, 전쟁과 애욕, 썬샤인, 이소룡의 전설, 피서지에서 생긴일, 투기, 썬·후라워, 7인의 신부, 바람의 부수, OK목장의 결투, 소문난 형사, 이류·다람스, 전화살인, 수퍼작전, 배트맨 위기탈출, 더어 헌터등 40여편, 모두 230여편의 프로그램과, 매월 20여편의 뉴 테입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536−1692
SUN-MI GRAPHIC STUDIO 531−6430 921−5903
454A BLOOR ST.W TORONTO MIDOPA 3f

모든 국민이 品質감시토록

全대통령 江原道순시 不正腐敗있으면 成長 허사

◇全대통령이 4일 江原道廳 순시에서 모범운전사를 접견하고있다.

"經濟에 參與 物價安定노력 비싼물건·低質品 사지말자"

【春川=尹國榮기자】 全斗煥 대통령은 4일『오늘날의 경제는 몇사람의 전문가나 훌륭한 경제정책에 의해서만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하고『지금은 모든 국민이 經濟人이 되어 물가안정, 品質관리, 기술혁신과 生産性향상등을 뒷받침하여 전국민이 경제에 總參與해야하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經濟는 非武力戰…外製選好 亡國的행위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 江原道廳을 巡視, 朴鍾汶지사와 5명의 局長및 道교육위의 학무국장으로부터 새해 주요道政등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全대통령은 특히『전국민이 어떻게하면 물가를 안정시키느냐하는 방법을 스스로찾아야 한다』고 말하고『비싼물건이나 低質品은사지도 말고 비싼상점은 찾지도 말아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국민들이 산물건이 고장나거나 低質品일경우, 또 아프터서비스를 잘해주지 않는다고 불평만 할것이 아니라 해당회사에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고 충고해주며 소비자 告發센터등에고발하는등 기업이 좋은제품과 값싼물건을 생산하도록 경쟁을 시켜야한다』고역설했다.

全대통령은『소비자가 물건을 비교선택하고 상품에대한 지식을 가지고 시장에다니며 근로자나 기업인도 자기가 하는일에 기술혁신을할 수있는길과 생산原價를 낮추는 방법을 생각하고 제안해야한다』고 말하고『모든국민이 품질을 감시하고 관리해야 우리국산품의 質이 크게 향상될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사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外製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우리경제를 좀먹는 亡國的인 의식은 불식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오늘날의 경제는 무력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과도 같다』고 말하고『국민이 경제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우리경제를 안정속에서 발전시킬수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역사적으로 볼때 부정부패는 수백년동안 계속돼 마치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인것처럼 돼있다』고 지적,『따라서 비상한 각오없이는 부정부패를 일소할수 없다』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국민적 각오를 당부했다.

全대통령은『부정부패가 없어지지않으면 경제가 성장돼도 몇사람의 不正蓄財로 富益富 貧益貧의 사회현상이 초래되고 혼란과不信풍조가 지배하게돼 敵과싸워보지도 못한채 패배하게된다』면서『부정부패는 안보적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려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특히 올해는 부정부패가 완전히 척결되는 해가 되어야한다』고 거듭강조하면서『일선행정기관의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 부정부패의 禍根을 찾아내 교육과 국민의식개혁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江原道는 天惠의 자원이 많은만큼 잘사는 강원도를 가꾸어 離農현상이 없도록하고 雪嶽山등 관광지역개발계획과 山地를 이용한 소득증대방안등은 사업별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세워 실시해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관계기관과 협조, 民統線북쪽의 농지를 넓히도록하고 관광객과 등산객들에게 사전교육을시켜 산불예방에 만전을기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빈집을 가급적 조속히 정비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교수再任用」 사실상 自律化

國公立중 10個大 26명 脫落

올해 전국 68개국·공립대학(4년제대 21·교육대11·전문대36)의 교수재임용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는 이중 10개대학에서 26명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문교부가 4일 밝힌바에 따르면 금년으로 재임명대상이되는 국·공립대학교수(전임강사이상) 1천2백12명가운데 26명(약2%)이 탈락되고 1천1백86명은 재임명발령을 받았다.

탈락교수를 대학별로 보면 ▲서울大가 7명으로 가장많고 ▲慶北大 ▲忠北大 각4명 ▲釜山大 ▲全南大 ▲忠南大 ▲江原大 ▲慶尙大 각2명 ▲全北大 ▲濟州大 각1명이며 직위별로 보면 교수22명, 부교수1명, 조교수2명, 전임강사1명이다. 「교수」가 가장 많은것은 교수재임명제도가 지난76년에 시작돼 금년이 만6년째로 교수의 임용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며, 실제로 올해 국·공립4년제 대학의 재임용대상 9백9명중 교수가 6백40명으로 전체대상의 70%나 차지했다.

문교부당국자는 이번 재임명이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연구실적 ▲강의능력 ▲품위 ▲건강상태 ▲학생지도실적등을 기준으로해 해당대학별로 구성된 재임용심사위원회(위원장 총·학장)에서 결정, 문교부에 제청하는 형식을 밟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이번 재임명과정에서 탈락된 교수는 건강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치적이유로 탈락된 경우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大 탈락교수의 탈락사유는 ▲신병3명 ▲개인사업운영1명 ▲연구실적부진1명 ▲외부직종활동등이 2명으로 알려지고있는데 이중2명은 재임용에 앞서 이미자진사표를 제출했었다.

한편 사립대학의 올해조교수이상 재임명대상교수는 모두 1천23명(교수2백22·부교수1백26·조교수6백75)으로 문교부의 재임명기준에따라 각대학이 결정, 오는15일까지 사후보고하게되는데 일부 탈락교수의 수가 집계되지않고있다.

미니해설 "雜音없애려 總學長에맡겼다"

대학사회를잔뜩 긴장시켰던 「교수재임명」이 개봉결과 가벼운것으로 낙착됐다. 이번에 물러난26명도 조만간 자연탈락이 예상되던 장기병결자, 개인사업자, 외부작품활동가등이 대부분이어서 이제도는 이제 더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게된것같은 인상도 준다.

교수재임용제도는 지난76년시작돼 그해 4백60명의 교수를 탈락시키면서 많은 사회적물의를 빚었었다. 탈락교수들이 협의회를 조직해 대학이나 문교당국에 대항했고, 인권탄압이란 비난까지 들었었다. 이같은 이유에서 이번 재임명도 많은교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나 결과는 그때와 딴판이었다.

교수재임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던 문교당국이 이처럼 소규모탈락에 그친데는 그만한 배려와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에 문교부는 잡음을 없애기위해 심사권한을 대학총·학장에 일임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자칫 대학측이 온정주의로 처리한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교수재임용제의 취지로 볼때 탈락자가 많아도 안되지만 너무적어도 안되는것이다. 【福】

"非同盟國과 軍事外交강화"

政府、國會답변 "北傀AN2機 低空기습 가능"

國會본회의는 4일하오 정치외교 안보분야에 대한 이틀째 對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질문에는 李慶淑(民正) 金炯來(民韓) 金重權의원(民正) 등이나서 北傀의최근動向과 도발가능성및 이에대한 對備策과 對美對日외교방향등을 물었는데 국회는 5일하오 본회의를속개, 경제문제에 대한 질문을 벌인다.

李慶淑의원은 이날『蘇·中共등 공산국에대해 스포츠교류, 학술세미나, 예술단체교류, 直通전화가설등 非정치적인 제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묻고 非적성공산국가와의통상증대방안은무엇이냐고추궁했다.

"與野 領袖회담 주선하라"

질문 全面戰·西海5島 대비책은

그는▲미국의 新同盟정책이 東北亞에 미치는 영향▲韓日經協에 대한 현재의 정부입장▲韓日간 무역逆調개선방안을 물었다. ★錄音2면

金炯來의원(民韓)은▲현제도하에서 집권자교체가 아닌 집권당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안보·외교·통일문제를비롯 政治法과 정치상황을 논의하기위해 與野領袖會談을 제의하며 총리는 이를 주선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은뒤▲민주土着방안▲정치규제解禁등 人的자원의 활용▲권력의 축재에 의한 개혁등에 관해 따졌다.

金重權의원(民正)은▲北傀의 全面南侵시 首都圈북방의 현전선에서 일격에 무찌를수 있는 방위태세여부▲北傀의 기습적인 게릴라전에 대한 대책▲白翎島·西海5島에 대한 北傀의 局地戰도발가능성과 대책등을 물은뒤 특히 北傀의 잠수함기습작전、탱크공격、저속저공侵透비행기 AN2機에 대한 沮止策은 무엇이냐고 北傀의 再南侵가능성과 대책을 추궁했다.

그는 또 韓美군사協力體制의 강화방안、팀·스피리트작전의 특징등 對美외교문제를묻고 通禁해제에따른 安保對策과 전후세대에대한 安保의식강화방안에 관해 질문했다.

劉彰順총리는 답변에서『舊시대의 殘滓중 버려야할것중의 하나가 지도층의 권력남용으로서 현재는 권력남용의 事例가 없다』면서『全斗煥대통령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법은 어디까지나 지켜져야하고 고위관리나 정치인도 예외일수는없다』고 잘라말했다.

劉총리는『앞으로도 창조와 개혁, 발전의지를 근간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지속적으로 단행을 함으로써 통일된 민주복지국가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盧信永 외무장관은『정부는 80년대의 외교환경 多邊化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위해 지역中·長期 외교정책 개발연구에 착수, 외교정책 10년계획을 成案했다』고 밝히고『그러나 외교사항은 해가 바뀔수록 변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레이건 美 대통령의 駐韓美軍의 철수白紙化정책은 北韓의 군사력증강과 東아시아및 태평양에서의 소련의 군사력팽창에대한 미국의 적극對處결의의 표시로서 이런 위협에 대처하는 韓美의 국가이익이 일치되는 한 주한미군不撤收정책은 계속될것이며 정부도 이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말했다.

盧장관은 미국의 新同盟정책에대해『友邦과의 결속강화를 추진하려는 레이건정부의 외교노력이며 이는 日本에대해 응분의 방위비부담요구사항으로 잘나타나고있다』고 말하고 韓日경제협력타결전망에 대해서는『日本이 새내각을 만든후 早期妥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기때문에 우리도 양측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른 시일내에 타결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朴贊兢국방차관은『수도권 위주의 현戰線을 고수하는등 방위태세를 완비하고 非正規戰에대비, 軍은 고도의 전술전기를연마하고있다』면서『現役軍은 少數精銳化하고 幹部자질향상、방위산업육성등을 통해 戰力을증강시키겠다』고 말했다。그는『또 국방관리의효율화를위해 擧軍的군수물자절약운동과경제교육강화로국방부예산을절약하고군수물품질향상을 기할것이라고 밝힌뒤 군사 외교의대상국을 확대하고、초청및 방문외교에 注力하고 홍보활동도 강화시켜 군사외교면에서 對北傀優位를 유지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양국간의 韓美군사협력관계에 대해『양국간의 군사협력체체의 유지뿐아니라 기타우방국가、나아가 非同盟국가들과도 협력증진을통한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北傀의 AN2機의 침투가능성에 대해『현재 北傀는 2백60여대의 AN2機를 保有、동시침투능력은 2천5백여명선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야간장거리航法과 공중투하훈련을 강화、유사시 주요시설에 기습공격을 가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朴차관은 이와관련、『우리軍은 對空감시초소와 低高度탐지레이다를 배치했고 防空警報를 자동화시켜 즉각탐지할수있는 조치를취했고 특히 공중낙하 예상지역에 車輛化기동타격대를 편성、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는또 西海5島의 방위문제에대해『北傀는 韓美공동방위태세를 시험키위해 그어느지역보다 北傀와 最近거리에 위치한 이곳을 도발할가능성이높다』고 말하면서『그러나 충분한 부대및 장비를 이미 배치했고 전술공사로西海5島를 이미 요새화했다』고 말했다。

朴차관은『北傀의 잠수함보유수는 재래식과 소형잠수함을 합쳐 20여척을 확보한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유사시에 대비、다른방어 개념에 의거、早期포착과 近海에 접근하기전에 격파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株價 돌연急騰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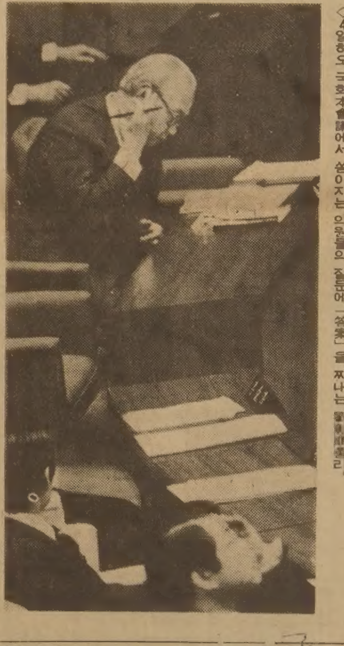
큰손介入·金利인하설…上終價24개

큰손들이 證市에 개입한데다 수출금융및 일반金利 인하說까지 나돌아 4일 證市에서 株價가 큰폭으로 올랐다。

이날 電子 石油化學 建設株등에서 24개종목이 上終價를 친것을 포함、1백47개종목이 일제히올라 종합주가지수는 4.2포인트가 오른 1백84.9로 작년11월하순이래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내린종목은 66개에 그쳤고 42개종목은 시세변동없이 보합을이루었다。특히 建設 석유화학 무역 電子株등이 크게올라 그간 電子株에 집중되어온 매기가 주력업종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거래량도 올들어 최고수준인 2천70만株에달했고 約定代金은 1백86억원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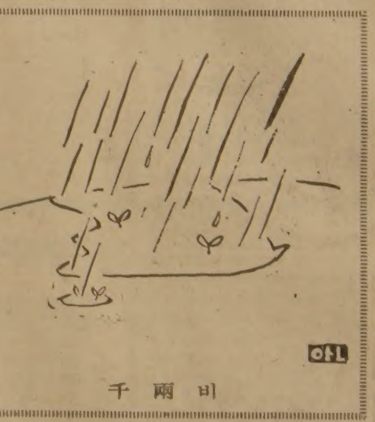


◇4일하오 국회本會議에서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문에 「答案」을 짜내는 劉彰順총리.

地平線

1999년。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던 노스트라다무스의『大豫言』이 예고한 地球終末의해다。미국의 논픽션作家 찰즈·베를리츠도『地球最後의 날』에서 1999년을 꼽고 있다。베를리츠의 前著인『버뮤다三角海域』이 엉터리로 밝혀진 지금은 그의 1999년說 또한 신빙성이 떨어지기는 했지만…。▼그래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신봉자는 적지가 않다。그의 예언은 때와장소를 특정하지않고 있으므로 여러갈래解夢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예컨대 여자가 배를 타고 하늘을 난다、그 열마뒤 위대한 왕이 들스에서 죽는다。解夢은 63년6월 소련의 여자우주인 탄생과 그 5개월 뒤 댈라스에서의 케네디 암살。▼그 노스트라다무스는 원래가 占星家다。그가 말하는 地球終末은 태양의 9개행성이 十字모양으로 배열되는 해에 온다。이때를1999년으로 定한 解夢家들은 요즘「제10권 제67번」으로 매겨진 그의 豫言詩를 들먹이고 있다。그에의하면 태양의 여러행성이 어느 한곳에 모인해 5월에 큰 지진이 나고、달걀만한 우박이 내린다。解夢家들은 이「재앙의 해」가 바로 금년이라 푼다。▼베를리츠의『버뮤다…』가 한창팔리던 74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프레지먼박사등이『木星効果』란 책을냈다。금년봄 행성이 태양한쪽에 일렬로 늘어서게 되면 그 영향으로 기상이변과 캘리포니아大地震이일어난다는 예언을 담은 책이다。그가 말하는 行星直列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지진과 우박의 예언을 금년에 끌어대는 근거다。▼태양의 행성은 원래가 각기 다른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으니까、그 배열은 때에따라 달라진다。그리하여 行星直列은 1백79년에 한번 일어난다。작년 3월25일부터 4월7일 사이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쪽에 금성과 화성、다른쪽에 토성과 목성、지구가 일렬로 늘어서는 天體쇼가 있었다。이때 유별난 재앙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다。▼지금 태양 한쪽으로 몰리고있는 행성 천왕성과 해왕성을 향해 보이저2호가 항해중이다。5년전에 발사돼、작년9월 토성의 베일을 벗기고、우리들 안방에까지 신비스런「토성의 소리」를 전했던 그 인공위성이다。보이저2호가 천왕성에 이르는 86년、해왕성에 이르는 89년께、이땅의 宇宙話圈가 어떤 것일지 궁금하다。알수록 신비스런 우주、그를향한 바른 호기심이 이땅에 널리 퍼질날은 아직 먼것같다。

社會漫評



千兩비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 (B)
791-8196 (R)

◇◇ 성 명 서 ◇◇

①캐나다태권도협회는 최홍희의 아들인 최중화및 그 일당이 그간 수차 북한을 여행하면서 북한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받고 한국의 정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천인공노할 음모의 주동이 되었음을 규탄한다.

②우리는 태권도인이 태권도 보급을 빙자로 태권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음을 규탄. 금번과 같은 음흉한 살인음모가 태권도 발전에 큰 장애가 되었음을 통탄하며, 금번음모에 관계된자들은 태권도에서 자퇴하기를 권유한다.

③우리는 태권도가 순수한 무도로서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특히 올림픽 스포츠로 발전하는 현 단계에 이러한 만행이 태권도라는 가명하에 자행된 것을 규탄한다.

④북한측은 고려연방제와 평화통일을 내세우면서 내면적으로는 땅굴을 파고, 또한 금번 음모사건과 같은 살인흉계를 꾸미고, 친북계 인사를 시켜, 북미주 교민과 북미주 흉악범등을 매수하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규탄한다.

⑤금번 사건은 캐나다 당국이 공정히 처리해줄 것으로 믿으나 우리 교민과, 특히 태권도인들은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서 북한측 살인음모와 흉계를 경계해야 한다.

1982년3월3일

재캐나다 태권도 협회 · 재캐나다 한인태권도 협회 일동

蘇、宇宙에 레이저武器 배치

83-88年사이…美諜報위성 큰危脅

地·海·空목표 攻擊능력 有人 軍基地도 궤도에

美誌、國防차관증언 引用

【워싱턴3日AP=聯合】 소련은 오는83~88년사이 우주에 레이저광선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의 통신및 첩보위성을 위협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週刊 아미타임즈誌가 3일 리처드·덜로어 국방차관의 비밀의회증언을 인용, 보도했다。

아미 타임즈誌는 오는 8일 시판될 최신호에서 국방성의 고위과학자인 덜로어 차관이 지난주 下院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보낸 비밀증언문에서 그같이 전망하고 소련은 그외에도 우주에서 지상 또는 공중의 목표물을 공격할 능력을 갖춘 종합유인 우주군사기지를 지구궤도에 발사할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덜로어차관은 이 증언에서 항상 지구로부터 일정한 위치에 머물며 주로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미국의「地球同位위성」들이 빠르면 오는83년사이 소련의 우주레이저광선무기로부터 위협을 받게될지 모른다고 말한것으로 아미타임즈誌는 보도했다。

이 주간지는 덜로어차관의 서면비밀증언 내용을 군사위의 켄·크래머의원(共)이 한 공개청문회에서 무심코 낭독함으로써 공개되었다고 밝히면서 덜로어차관은 그밖에도 오는 90년께에는 소련이 우주로부터 陸·海·空의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공격할수있는 항구적인 종합有人우주 군사기지를 지구궤도에 올려놓게 될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스라엘도착 聲明발표하는 미테랑 이스라엘을 방문한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벤구리온 국제공항에서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텔아비브3日AP電送=聯合】

對自由國무기販賣에 불만 中共軍事사절단 訪美취소

【北京3日AP=聯合】 중공은 미국의 對자유중국 무기판매에 대한 불만때문에 대규모 군사사절단의 訪美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한 군사사절을 프랑스에 파견했다고 北京의 외국군사소식통들이 3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中共 瀋陽軍區참모장 카오·케가 이끄는 8人군사사절단이 2일 프랑스를 향해 北京을 떠났다고 밝히면서 이번방문은 통상적인 중공·프랑스간의 군사교류로서 무기구매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蘇、체르넨코 2人者浮上

【모스크바3日AFP=聯合】 소련공산당 정치국원겸서기 콘스탄틴·체르넨코가 지난1월사망한 미하일·수슬로프의 뒤를 이어 크레믈린 지도부내에서 제2인자로 부상하고 있는것같다고 이곳 서방측분석가들이 3일 말했다。

분석가들은 체르넨코가 지난2일 막을내린 공산당서기장겸 최고회의간부회의장 브레즈네프와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겸 수상 야루젤스키간의 양국정상회담에서 다른 소련측대표들을 제치고 이회담의 전면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종래 수슬로프가 행하던 역할을 맡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시나이半島 철수땐 팔自決공약등 발표 埃 무바라크밝혀

【카이로3日UPI=聯合】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오는4월 이스라엘이 점령지 시나이반도에서 철수를 끝내면 팔레스타인 민족의 자결에 관한 이집트의 공약을 발표할것이라고 3일 알·아람紙가 보도했다。

미테랑-베긴첫會談 팔自治문제토의

【예루살렘3日AP=聯合】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프랑스와·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방문첫날인 3일 메나헴·베긴이스라엘수상과 팔레스타인문제논의를 위한 첫회담을 가졌다。

미테랑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동행한 클로드·셰송 프랑스외상은 이츠하크·샤미르 이스라엘외상과 첫회담을 갖고 팔레스타인문제를 집중논의했다。

우리·포라트 이스라엘정부대변인은 이날 두시간동안 진행된 양국정상들의 회담에서 베긴수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의 위협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外信안테나

◆西獨、蘇製輸入品에 制裁조치 =서독은 3일 폴란드사태와 관련, 일부 소련제 수입품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려는 歐共市(EEC)의 계획을 잠정승인했다。

쿠르트·베커 정부대변인은 그러나 기자회견을통해 서독정부가 90개소련수입품목 전부에대해 제재조치를 취하자는 EEC위원회의 제의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본=聯合】

◆佛、이라크原電복구支援용의 =프랑스는 지난해6월 이스라엘 폭격기들에의해 파괴된 이라크의 核발전소를 교체하는데 지원을 제공할용의가 있다고 클로드·셰이송 프랑스外相이 3일공개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셰이송外相은 이라크의 주간지 알레프·바와의인터뷰에서 프랑스는 항상 평화적 목적을위한 核발전소건설에 있어 이라크와 협력할용의를 갖고있다고말했다【바그다드=UPI】

"對엘살바도르政策 변경을"

美의원 百여명 레이건에 書翰

【워싱턴3日=聯合】 데이비드·보니어(民)·짐·리치(共)등 약1백여명의 美의회의원들이 레이건 대통령에게 對엘살바도르정책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에서명했다고 美의회관계자들이 3일 밝혔다。

엘살바도르정부와 게릴라들간의 직접협상을 벌이도록 美정부가 압력을 가할것을 아울러 촉구한 이 서한은 레이건 대통령의 對엘살바도르군원정책에대한 지금까지의 美의회의 비판중 가장 강력한 것인데 앞으로 이서한이 레이건 대통령에 전달될때까지는 더많은 의원들이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등의 사태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이 이러한 지역분쟁에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지적했다。

北傀·쿠바·越支援 엘살바도르叛軍에

【워싱턴3日=聯合】 엘살바도르 反정부게릴라들은 北傀·쿠바·베트남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소련등의 지원과함께 니카라과로부터 지령을받고있다고 윌리엄·케이시美중앙정보국(CIA)국장이 3일말했다。

케이시국장은 이날 시사주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誌와의 회견에서『엘살바도르 좌익게릴라들이 게릴라戰 수행에 노련한 니카라과 작업게릴라들에 의해 조종되고있다』고말했다。

엘살바도르 게릴라 멕시코 平和案수락

【산살바도르3日UPI=聯合】 엘살바도르의 좌익게릴라지도자들은 3일 [illegible] 엘살바도르 내전종식을골자로하는 호세·로페스·포르티요 멕시코 대통령의 평화안을『전제조건없이』수락했다。

◇취재중 부상…뉴스위크 記者 엘살바도르·북부 신케라에서 3일취재중 지뢰폭발로 부상을입은 뉴스위크지 계약사진기자 로스·보먼㊥이 헬리콥터로부터 들것에 실려나오고있다。【산살바도르3日AP電送=聯合】

키신저夫人 逮捕令狀발부

남편비방한 女人목조르려한 혐의

◇키신저 前美국무장관의 부인 낸시여사

美뉴저지州 뉴어크시 지방법원은 헨리·키신저 前美국무장관의 부인 낸시여사(46)가 남편을 등성연애자라고『개인적으로 비방』한 여인의 목을 조르려한 혐의로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거부한데 이어 그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당국이 밝혔다。

낸시여사에 대한 체포영장은 뉴욕에 거주하는 反核운동단체회원 엘런·카플란여인의 고소에 따라 2일 뉴어크 지방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발부되었는데 공판은 오는 5월26일 열릴 예정이다。

당국은 낸시여사가 지난2월7일 보스턴으로 심장수술을 받으러가는 남편 키신저 前장관과함께 뉴어크 국제공항에서 항공편을 기다리던중 카플란여인과 충돌했다고 말했다。【뉴어크=UPI】

海外토픽

★심장마비可能性 더 높아 절대禁酒가 더위험

적당히 마시는 술은 몸에 좋은 것이며 애주가들보다는 절대금주자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심장병과 알콜의 관계에 관해 10년간 연구해온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크넛손박사는 매년 생기는 심장마비환자들중 2천내지 4천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매일 몇잔씩 맥주나 포도주 또는 다른 술을 마실 경우 핏속의 지방질을 줄여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고。【유트레흐트(네덜란드)發】

메아리

植物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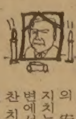
1976년9월14일상오 집무실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진채 계속 의식을 잃었던 柳基春 前文敎部長官이 3일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享年59세。실로 5년5월17일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단 한순간도 정상의식을 되찾지못한채 깊은잠속에서 헤매다가 故人이 된것이다。

그는 쓰러진날 저녁 뇌수술을 받고 한때 좋아지는듯 했으나 1주후 뇌출혈재발로 이른바「植物人間」상태에 빠져들어갔었다。

살아있기는 하나 팔다리를 약간 움직이고 숨을 쉬며 음식을 소화해내는 정도여서 植物의 속성도 이정도의 生動은 다누리는데다 세상은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 植物人間이라부른다。

원래 말하고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能力은 植物에겐 없다。이런 능력들이 그로부터 떠나버린채 柳장관은 근5년반의 세월을 보낸셈이다。

아마도 이땅植物人間으로서 최장기록을 세웠을것같다。그에대한 서울大學병원의 기록카드만도 2천5백여장이나 되었고 치료비 총액7천여만원 또한 신기록이라는것이다。그동안 부인을 비롯하여 꾸준한 간호를해온 가족들의 애타는마음인들 오죽했으랴。



故人은 이른바 유신시대 한동안 말썽많던 이나라 文敎行政의 司令塔을 관장했었다。오랜투병의 보람도없이 끝내 不歸客이 된 이제、人生의 無常함을 되씹는 일말의 감회가 절로 서려 우선 哀悼의 뜻을 여기 밝혀두련다。

2천5백장이 넘는 病勢기록카드와 10·26사태이후의 치료비를 서울大學임상연구비조로 처리한 사실이 말해주듯、故人의 病은 당대의 의술로는 고치기힘든 致命的인 것이었던 모양이다。

한데도 흔히말하는 植物人間의 安樂死문제를 논의하거나 주치는 일없이 모든사람과 주변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줄기찬 치료·연구·간병을 계속한사실—그속에 오직 극진히 인명을 중시하고 인간을 사랑한 한 진실은 새겨져야 할것이다。

자고로 人命이 최고라함은 불변의 가치관이었다。한데 요즘은 걸핏하면 그 귀중함을 잊은 현실을 대하게 된다。자살 타살 등반자살따위 경거망동이 왜그리잦은지 모르겠다。또 남의 목숨을 헤치거나 타려든 무치의 소행마저 없지않았다。교통사고로 잃은 생명의 代金은 정말 그리도 싼것이어야할까。이계제에 두루 반성돼야할 제목들이다。

나의 이력서 金蘇東 ⑥

〈題字·金蘇東〉

잊지못할 名畵

조선극장서본「아시아폭풍」「아리랑」 흥분과 感動…내게 民族·藝術魂 심어

1920~30년대 日帝의 외국영화수입정책은 다른정책에 비해 개방적이고 과감한 편이었다。저항적인 한국영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컸으리라。

우미관(현 위치가 아닌 종로2가청계천쪽)에서는 톰·믹스 주연의 서부영화와 TV연속극스타일의 연속영화가 상영돼소년들의 인기를 모았다。조선극장에서는 에디·캔터주연의「名金」이 장안의 인기를 독차지했다。

소련에서 공산혁명이후 제작된「아시아의 폭풍」(프로푸킨감독)도 구경했다。조선극장에서 개봉돼 관중들의 찬사를받고 롱런한 영화다。徐載元학우(납북·高大교수)와함께 보러갔는데 백인들의 학대에 시달리는 몽고족의 억눌린 생활상을 적나라하게 그렸다。

시베리아벌판에서 갖은 고생을하며 잡은 은빛여우건장을 백인들에게 헐값으로 팔수밖에 없는 민족의 설움을 담은 프로푸킨감독의 역작이다。영화속의 백인들의 약탈행위는 당시 일제의 학정과 비유되었다。우리는 영화를 보고나서 흥분과 감동으로 며칠동안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도취돼 있었다。내용은 다음과 같다。

『칭기즈칸의 젊은 후예가 민족의 선봉장이 돼 백인지배자의 저택을 찾아간다。어항이 눈에띈다。자유를잃고 어항속에 갇혀사는 물고기들을 본다。억압과 멸시속에서 살아가는 몽고족의 모습이다。어디로 갈것인가。어떻게 이속에서 살아갈것인가。

백인들이 유리어항속에 갇혀있는 몽고인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든다。열혈청년인 선봉장은 굴욕감과 분노를 참다못해 어항을 번쩍 들어 응접실의 융단위에 던진다。어항은 박살이나고 물고기들이 펄펄뛴다』

요동치는 물고기는 바로 몽고인의 해방이며 자유다。그 물고기들의 생명이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걸고 자유를 찾아야 한다는 몽고민족의 처절한 염원이 감동적으로 그려진 몽타지기법의 영화다。

몽고민족의 봉기、그것은 바로「아시아의 폭풍」이며 거대한 혁명의 봉화라는 것을 잘 묘사한 작품이다。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던 徐載元학우의 입에서『꿍!』하는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울분의 탄식이었다。우리들 한국학생들의 몸에서 끓던「울분의 피」가 터진것이다。

◇前高大교수였던 徐載元(앞줄㊥납북)과 나(앞줄㊨)는 영화를보며 나라잃은 아픔을 되씹곤 했다。

피압박민족의 통한。이영화는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고, 자유에의 갈망을 용솟음치게 했다。마치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남과정책(南瓜政策)으로 우리 농민들의 땅을 점유하던 日帝의 약탈과 압박, 한국인이 받는 치욕과 멸시를 그린 것같아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났다。

남과정책은 채무자의 땅에 호박을 심어놓고 채무자가 이자를 갚을 때까지 호박넝쿨이 퍼져나간 부분의 땅을 채권자가 소유한다는 악랄한 금융정책이다。

「아시아의 폭풍」을 보면서 나는 1926년 春史 羅雲奎감독이 만든「아리랑」을 생각했다。第一高普1학년때 조선극장에서본「아리랑」이야말로 레지스탕스정신이 살아있는명작으로「아시아의폭풍」못잖은 영화였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순사의 제복·군도·모자등 관급품은 천황의 하사품이라해서 신성시했다。고의로 훼손하거나 파기할때는 천황에대한불경죄를 적용, 군법으로 다스리던때다。

「아리랑」의 주인공「영진」은 정신이상청년이다。그는 영화속에서 한민족이 받고있는 압박과 설움에 과감하게 항거한다。일본순사의 제복을 찢고 모자를 짓밟고 칼을부러뜨린다。그는 결코 거리에 나서서 함성을 지르거나 데모를 하지는 않는다。「영진」을 정신이상자로 설정한 春史의 뛰어난 구상이「아리랑」을 후일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한것이다。

이영화가 개봉되던날 조선극장은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다。영화를 본 관중들은 만세와 함성으로민족의 울분을 달랬다。나도 마찬가지였다。春史 그는 내 가슴에 민족혼과 예술혼을 심어준 사람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52〉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숨바꼭질 ㊴

『종종 연락해』

일환이가 먼저 버스에서내리면서 말했다。

『응, 오빠두』

일환이의 시선이 필사적으로 끈끈해지려는 낌새에 목이는 얼른 손으로 빠이빠이를 하고 눈길을 딴데로 돌렸다。

저녁나절이면 집집마다 창문에 불을 밝히고 돼지불고기를 지글지글 태워 오가는 사람의 소증난 창자를 뒤틀리게하던 싸구려 음식점들이 정초라고 일제히 문을 닫고 있어서 빌딩 뒷골목엔 지척을 분간못하게 짙은 어둠이 괴어있었다。

수위실의 희미한 불빛때문에 겨우 출입문을 찾아든 목이에게 뉴스그레한수위는 다짜고짜 시비조로 말했다。

『한번 돈내고 두편씩 볼수있다는 영화관을 두군데쯤 돌아다보겠군요, 쯧쯧』

『제가 제 휴일을 어떻게 보내든 그런 식으로 간섭하지말아 주세요』

이건 집이 아니다。따라서 당신은 내 아저씨나 할아버지가 아니다。이런 생각이 목이를 한껏 버르장머리 없게했다。

젊은 애들한테 늘상 당해온 노인네 특유의 아릇싸삽은 자기혐오로 수위의 얼굴이 스산하게 굳어졌다。그는 수위실의 작은 여닫이문안쪽에 달린 선반에 놓인 포장지에 싼것을 눈짓으로 흘긋가리키며 볼멘 소리로 말했다。

『미스오 찾아온 손님이 놓고갔어。갖고 들어가』

『절 찾아온 손님이요? 누군데요?』

『누군진 그걸 풀러보면 알꺼 아냐。뭐라고 적어놓고 가나보던데』

그는 화투를 꺼내고있던 수위에 정신이 팔린것처럼 그녀를 한번도 쳐다보지않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연휴중이라 사람이 들어올리없는 그녀의 방은 찬바람이 돌았다。그녀는 먼저 전기곤로를 꽂고나서 포장지를 끌렀다。

꽃무늬가 화사한 실크스카프가 소리없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그녀의 손에 남은 작은 쪽지엔 우아하면서도 관독이 힘든 독특한 필적이 환상적인 자수처럼찍혀 있었다。그게 수지의 필적이라는걸 알아보자마자 그녀는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표정은 반대로 딱딱하게 경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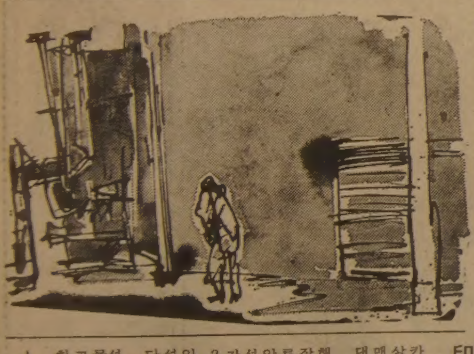
그건 수지하고 같이 있을 때의 버릇이었다。수지의 필적만 보고도 그 버릇이 도지는걸 어쩔수가 없었다。

『오늘이의 집 없어졌더구나。요행 유원장님도 떠나시기전이어서 네거처를 알아낼수가 있었다。네가 좋은데 취직해서 기쁘다。공부를 계속할수있을 것같아 더욱 기쁘다。일전에 백화점에 들렀다가 문득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 사놓았던것 던져 두고 간다。공부만 하지말고 멋도 좀 부리렴。틈 나는데로 다시 들리마。

수지가』

목이는 자신이 수지를 싫어하고있는지 좋아하고있는지 영 알수가 없었다。수지의 무심한 동작에도 소탈한 듯한 옷차림에도 경박한 웃음소리에도 부잣집과 양장점 냄새와 향수가 배어있었다。목이는 무조건 거기 심취했다가도 느닷없이 적개심을 곤두세우곤 했다。목이가 수지에게서 가장 싫은 게 거의 천성처럼 몸에 밴 위선의 우아함이라면 가장 먼저 가지고싶은 것 역시 그것이었다。

이런 모순은 목이 스스로도 괴로왔고, 일년에 잘해야 한두번씩 만나는 정도로 사는 사이, 더군다나 한쪽은 자선을 베풀고, 한쪽은 그것을 받는 입장이라는 한계가 뚜렷한 사이에는 가당치도 않은 우정의 번민과도 흡사한 심적인 부담을 주었다。



印尼、자바近海무대 海上 석유密賣조직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은 자카르타동북 약70㎞의 자바해상에서 활동하는 해상석유밀매조직망을 적발했다고 경찰대변인이 2일 발표했다。

이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온두라스국기를 달고 위장해중이던 2척의 싱가포르 유조선이 우중·크라완해안에서 다른 싱가포르 유조선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이 2척의 유조선은 불법으로 인도네시아 영해에 들어와 석유 암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이대변인은 경찰이 이해 석유암거래망의 배후조종인물을 캐고있다고 말했으나 그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를 회피했다。【자카르타=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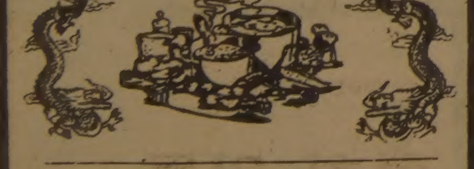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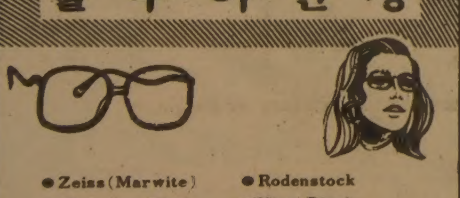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PM~4AM
토~일: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977-9734

블루어안경



●Zeiss(Marwite) ●Rodenstock
●Christian Dior ●Nina Ricci
●Menrad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THE KOREA TIMES
안녕하십니까

한국일보
몬트리얼 지국장 입니다.

기사·광고·구독등 신문사 관계사항 일체에 관해 도움 드립니다.

정 관 성
(514)672-8399(R)
(514)845-7151 EXT.343(B)

THESE TIMES NEEDS
THE KOREA TIMES

MLS
HWANG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건물및 그로서리 스토아
주매상: 5천3백불 주5일 영업
토론토 북방 20분 운전거리
외국인 경영 3만5천불 다운
가게와 건물포함. 가격: 13만8천불

○Take out Food 비지네스
Shopping mall 안에 있으며
운영이 간단하며 부부운영에 적합.
년매상: 11만불 가격: 5만5천불.

○도넛샵
주매상: 4천불 일요일 닫으며
운영이 간편한 도매및 소매상
가격: 6만5천불

○이외에 투자용 건물및 아파트등 다수 있음.

Member of Toronto Real Estate Board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洋酒는「金酒」인가 부르는것이 값

外國관광객 러시앞두고 政策배려 있어야

4천원에輸入 9만원받아 特急호텔

國産은原價20배 5만여원 고급살롱

술집에서 마시는 양주값이 터무니없이비싸다。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수없는 수준이라는 세평이다。비싼이유가 그나름대로 있지만 불필요하게 비싼요인들은 제거해야 한다는 관계자들의 깊은 관심이없으니 탈이다。국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어야하는 정책적배려로서 한번쯤 깊이 검토해볼문제다。더구나 86아시안게임,88올림픽을앞두고 점차수가 급증해가고있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싼값에 좋은술을 마실수없는 나라라는 인식을주게돼서는 곤란하다。「양주」는 곧바가지라고 생각하는 상혼도 딱하기한이없다。적당한값에 양주를 즐길수없는 것일까。불합리한 세제의 재조정,술집상대의행정지도등 개선책이 바람직하다。

◇관광호텔 살롱등에서 파는 양주값이 턱없이 비싸다。국산양주는 생산가의 10배、수입양주값은 수입원가의 최고 54배까지 받아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술값이 너무비싸다는 인상을 주고있다。

안주값·奉仕料도 터무니없이 비싸

보통 술집에서 국산양주를 마시려면 출고가격의 2~3배、원가 (주세2백%) 의 10배값인 5만여원을 주어야하며 수입양주의경우는 관광호텔에따라 약간의차이는 있으나 수입원가에비해 20배에서 최고54배까지 비싼값을내야한다。

양주값이 이처럼 비싼이유는 근본적으로 주세、관세、방위세、부가가치세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기도하지만 고급요정이나 살롱、특급 관광호텔등지에서는 호화스러운 시설비、인건비、안주값등을 가산、고객에게 덮어씌우고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3~4종으로 대별되는 국산양주를 술집에서마실때는 현재 주세를 포함,평균1만3천~8천원정도인출고가격의 2~3배를 내야하는데 원가로 계산하면 10배나된다。

특히 외국관광객들이 즐겨찾는 수입양주가운데 조니워커블랙은 병당 수입가격이현재 4천3백99원인데 호텔공급가격은 5만4천1백37원으로 12배이며 특급호텔에서는 20배나 되는 9만원선에 거래된다。

이밖에 코냑인 쿠르브와제 USOP는 수입원가가 6천6백85원에 비해 특급호텔소비자가격은 15만3천7백87원으로 약23배,코냑카뮈나폴레옹은 1만6백63원에 20만5천8백50원으로 약19배、비터더진은 1천9백19원에 6만1천5백15원으로 32배、길베이보드카는 1천1백31원에 6만1천5백15원으로 무려54배나된다。

수입양주가 이처럼 비싼것은 수입원가에 관세 주세 방위세 부대비 관광공사수수료 부가가치세등 각종세금이 1천2백30%나 부과되고 다시 호텔측에서 봉사료시설비 부가세등을붙여 공급가격의 2배가량을 마진으로 붙이기때문이다。

한국의 수입양주값은 동남아 각국에 비해서도 가장 비싼것으로 알려졌는데 조니워커블랙의경우 잔당가격은 한국이 3천7백80원、일본 3천4백4원、대만2천8백원、싱가포르 2천6백원、필리핀 1천8백원、홍콩 2천37원으로 1~2천원이 비싸다。

양주값이 비싼외에도 안주값、봉사료(팁)등도 고가여서 술집에따라서는 원가 1천원미만의 마른안주를 2만원이상 받기도 한다。

최근 신흥유흥가로 변모한 永東지역 P살롱의경우 7백ml짜리 국산양주 한병에 5만원을 받고있으며 모자만한 쟁반에 과일 담긴 마른안주가 2만원、야채·과일안주도 2만5천원이나 되고 스테이크는 3만원이상이다。

외국바이어접대를 위해 자주 이집에 들른다는 鄭모씨(37·회사원)는『4명이술을 먹으려면 팁을 포함해 35만원이상을 가져야 한다』면서 원가가 얼마인지는 몰라도 항상바가지 쓴 기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수년간 생활하다 귀국한 元鍾五씨(35·회사원)는 한마디로『우리나라 흥이나 결약식집에서 술마시기가 두렵다』며 아예 가지를 않는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어느 술집을 가든 하이볼류가 1잔당 2달러50센트~3달러50센트로 정해져 있고 기본서비스까지 따라나와 입장료를내고도 1인당 10달러면 기분좋게 술을 마실수 있으며 술값이 비싼집은 그만큼 비싼이유가있다。

지난번 모국제회의에 참가했던 외국인들이 국제관광사에 이같은 사실을 항의,서울시와 합동으로 회의기간에만 단속을 펴는소동도 벌였다。

흥흥에서 술값을 비싸게받는데 대해 국산양주제조업체인 B양조의 한관계자도『술집에서 값을올려받는 바람에 출고량에도 지장을준다。술집들이 한탕주의로 바가지를씌우는 풍조가 개선돼야한다』고。

【朴珍洌기자】

加경찰 곧「來韓수사」

全大統領危害음모 검거 文智軾은 심문중

◇국내서체포, 수사받고있는文智軾。

치안본부는 4일 캐나다를 거점으로한 金永煥 대통령위해음모사건에 관련된 한국인 용의자 5명중 하나인 캐나다교포 文智軾(35)을 작년 9월 국내에서 검거,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安應模치안본부장은 이날 대통령위해음모사건은 국외 여러곳에서 모의되었으며 외국인과 교포등이 관련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나 이달안에 캐나다의 수사관이 내한하게되면 수사는 큰 진전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캐나다경찰을 비롯、해외정보수사기관과의 협조아래 수사를 진행중이며 文은 작년2월12일 입국했다가 관세법위반혐의로 9월16일 검거됐다。

文은 본적이 서울冠岳區新林洞21로 캐나다 토론토市 웨스턴340에서부인(34)및 두아들과 살고있었다。

文은 70년9월 J大1년을 중퇴、74년5월 캐나다에 이민했으며 냉동기와 전기제품 수리및 잡화상으로 일해며78년5월 캐나다 국적을얻었었다。

文은 지난80년1월 2백만달러의 보험금을 타낼목적으로 터론토시내의 3층식당건물을 식당주인과짜고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한적이 있으며 80년7월9일부터 13일사이 중공산 무면탄수입교섭을 구실로 홍콩을 거쳐 중공廣州와 마카오를 왕래하기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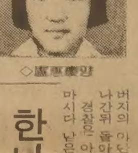
잠적崔泓熙 加에 美國서 돌아와

【터론토4日=聯】金永煥대통령위해 음모사건과 관련,혐의를 받고있는 崔泓熙가 3일 갑자기 미국에서 터론토로 돌아왔다고 崔의 근소식통이 4일 말했다。

崔는 한 수사관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하루후 캐나다로 돌아온것이다。

女大生 투신自殺

아파트屋上서 꾸중듣고 飮酒후



◇盧惠慶양

4일 상오5시40분께 서울江東區遁村5洞 고층아파트 517동앞 화단에 이아파트 405호에사는 梨大영문과 2년 盧惠慶양(19)이 떨어져 숨져있는것을 경비원 方喜均씨(42)가 발견했다。

盧양은 전날 저녁 학업성적이 좋지않다고 꾸중을 듣은데다 술을마시고 귀가、아버지의 야단이 겁이나 집을 나간뒤 돌아오지 않았었다。

경찰은 아파트15층 옥상에 마시다 남은 2홉들이 소주 1병이 놓여있는것을 찾아내고 盧양이 옥상에 올라가 술을 마시고 투신한것으로 보고있다。

車치기에 登錄金뺏겨

50代校長부인 銀行서歸家중 핸드백엔 百萬원通帳도

4일 상오10시30분께 서울麻浦區城山洞21 앞길에서 孫英淑씨(54·여·K중교장부인)가 올해 延世大에 합격한 세째아들의 등록금 62만원을 은행에서 찾아오다 갑색 포니승용차를탄 20대청년 1명에게 등록금과 1백3만원이 예금된 통장등이 든 핸드백을 뺏겼다。

孫씨에 의하면 이날 한국투자신탁 新村지점에서 돈을 찾아 148번 버스를타고모래내 다리앞에서 내려 집으로 가던중 집앞10m떨어진지점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서울2×76××호 포니 승용차가 우회전하는척 하며 孫씨옆을 지나다 운전석의 20대청년이 손을 내밀어 핸드백을 낚아채 시내쪽으로 달아났다는것。

孫씨는 아들의 등록마감하루전인 이날 등록금47만원과 延世大 외국어학당수강료 13만원을 찾아오던 길이었다。

1개道지정 有料사냥

올핸 江原道 멧돼지·수퀑·오리등許容

올해부터 금렵(禁獵)조치를 해제(한국일보 2월17일자11면)키로했던 산림청은 4일 82년 수렵기를 오는11월1일부터 83년2월28일까지로잡고 앞으로 1개도씩을 정해 유료수렵을 허용키로했다。

산림청은 우선 올해에는 강원도일원을 수렵장으로 지정,유료수렵을허용하고 83년에는 경남을 수렵지구로지정하는등 지역별로 순환식수렵을 허용한다。

수렵대상조수는 ▲수류는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등 3종▲조류는 수퀑 멧비둘기 까마귀류 오리류(원앙이 원앙이 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제외)등 4종이다。

그러나 도요새류는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수렵할수 있도록 했으며 참새는 연중 수렵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이밖에 외국수렵인 유치를위해 현재 제주도에만 설치되어있는 상설 수렵장을 조수의 사육 방사가 용이한 巨濟島에도 설치키로했다。

또 야생조수류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심한 지역에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유해조수류의 포획을 허용할 수 있게했다。

雙龍유아원 開園 李順子여사 參席

【春川=尹國炳기자】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4일상오 江原春川市牛頭洞 雙龍새마을유아원개원식에 참석,테이프를끊고 보육실등 시설내부를돌아본뒤 원아들에게 크레파스와 원아복등을 선물로 주었다。

이날 李順子 여사는 이박에 春川시내의 牛頭새마을유아원과 孝子새마을유아원에도 들러 원아들을격려했다。

雙龍새마을 유아원은 국군장병들의 복지향상대책의 하나로 건립된것으로 인근주민 자녀들을 受託,교육하게되는데 국방부는 전국각지의 군인관사와 아파트10개소에 이같은 유아원을지어 이달중으로모두개원식을갖기로했다。

故柳基春씨 永訣式 오늘 서울大病院서

柳基春전문교장관의영결식이 5일상오8시 서울大病院영안실에서 천주교의식에 따라 가족장으로 거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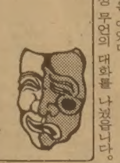
柳씨의 유해는 영결식이끝난뒤 5일하오2시에 자신이 총장으로 재직했던 全南大로 운구되어 그곳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별식을 가진후 전남和順郡和順邑校里 선영에 안장된다。

환자의 分身…無言의對話 5년여

〈서울大병원 看護員팀〉

간호(看護)행위는 어느경우에나 인내심과 용기를 요구하지만 『식물인간』에 대한 간호는 간호행위의 극치라고 할수있다。

1997일간을 무의식의 심연에서 미동도 하지않은채 생명을 유지해온 전 문교장관 柳基春씨에 대한 간호가 바로 그같은 예였다。



『장관님과 항상 무언의 대화를 나눴읍니다。무언을 원하시는가 어디가 불편하신가고 매일 물었고 어느덧 우리들은 환자의 분신이 돼었읍니다』

기자가 3일 柳장관을 돌봐온 서울大병원 간호원들을 만났을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

외관상의 柳씨는 호흡이 유지된다는사실을 빼고는 생명체가갖는 특징이 아무것도 없었다。이런 상태의 柳씨를 간호하는 일은 그들에게도 매우 특수한 경험이었고 보통의인내심과 용기로는 불가능한일이었다。

매일 아침이면 전신목욕을 시킨다。『부끄러워 하실것같아 반드시 타월을덮고 목욕을 시켰읍니다。그렇게 하는것이 그분에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읍니다』

植物人間의 看護

매일 6~8번씩 미음을 튜브를 통해 공급한다。몸지이는 사람처럼 먹고싶으면 먹고 배가 부르면 먹지않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신경이 쓰이는 순간이다。정확한시간、정확한양이 생명인 셈이다。

『또하나 어려웠던것은 혈액순환이 잘안돼 생기는 피부의욕창과 몸이 굳어지는 증세였읍니다』

간호원들은 정확히 2시간마다 柳씨의 몸을 앞으로、뒤로、옆으로 돌려누이고 30~40분간 간격으로 팔다리와 각관절에 대한 마사지를 반복해야했다。피부가 건조해지면 콜드크림이나 모이스처크림을 사용,柳씨는 항상 청정인보다 깨끗한 피부를유지했다。양치질을 해드리고 머리를 빗기고,손톱을 깎아주는일도 중요한 일과였다。

柳씨의 건강상태는 그가 숨을 거두기까지 매일 3~4차례 체크됐다。감기증세가 보이면 감기약이 투여됐고 소화불량일때는 미음에 소화제가 섞여졌다。

『그는 비록 숨을 거뒀지만 살아 계시는동안 행복했을거예요。저희들을 무척이나 사랑했읍니다』

돌아서는 기자에게 취재에 응했던 金順子간호원(26)이 지나가듯 한마디를 던진다。

『안락사라는 말을 함부로 쓸수가 없읍니다』

【鄭在龍기자】

한나무에 또2명 青年목매自殺

【釜山=聯】3일 하오3시께 부산海雲臺區石垈洞山43 해주공산묘지에서 전상철군(20·海雲臺區盤松2洞10)과 전중언군(18·〃)등 2명이 오리나무에 나일론끈으로 목을 매 자살한것을 청묘캐러갔던 박민호군(14)등이 발견,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중 모공장종업원이었던 전상철군의 호주머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앞날이 캄캄해 저만 바라보고 사는 불쌍한 어머니를 두고 먼저갑니다』라는 유서를 발견,실직을 비관한 자살로 보고있다。

대낮 아파트 強盜

집契約하는척…突變

【釜山=聯】4일낮 12시25분께 부산北區德川洞 대진아파트 3동43호 鄭奎永씨(36)집에 20대 강도가침입,혼자 집을보던 鄭씨의부인 이명자씨(30)를 폭행한뒤 10만원권 자기앞수표3장、현금2만원등 42만원을털어달아났다。

李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방2개를 전세놓기위해아파트 입구에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이날 20대 청년이 방을 보러왔다며 현금 10만원을 내놓으면서 계약서를써달라고해 종이찾는순간 각자기 덤벼들어 얼굴을 마구때리는등 폭행을 가한후 흉기로 위협,장롱속에 있던 수표와 현금을 털어달아났다는것。

경찰은 165cm의키에 장발을하고 검은 신사복을 입은 25~26세 가량의 범인을찾고있다。

南海 폭풍注意報 嶺東산간엔 大雪

중앙기상대는 4일하오 5시를기해 남해원 해상에폭풍주의보를 내렸다。

예상최대 풍향풍속은 남해서부해상이 남서~북서풍 14~18m 파고3~4m、남해동부 남동~남서풍 14~18m 파고3~4m이다。

중앙기상대는 또4일 하오 6시를 기해 영동산간지방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예상최대적설량은 10~30cm。

봄단비 촉촉

오랜겨울가뭄끝에 4일 전국적으로 봄을 재촉하는단비가 내렸다。

중앙기상대에 의하면 4일 아침부터 내린비는 하오5시현재 西歸浦의 28.9mm를 최고로 평균10~20mm의 강수량을 보였다。

기상대는 이번비로 해갈에는 미흡하지만 봄채소농사에는 도움을주게 될것이라고밝혔다。

詐取혐의 拘束 通度寺 신도會長

【釜山=聯】부산지검특수부는 4일 경남梁山 通度寺신도회장 우하욱씨(釜山市南區廣安1洞109의32)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지난해 7월1일 건설업자인 강병식씨(48)에게 咸安郡이 발주하는 공사비30억원상당의 신축청사공사를 맡게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처 1천7백만원을 받았으며 강씨가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되자 석방시켜준다고 다시 가족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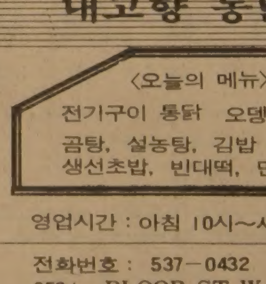
결혼예물, 보석및 시계…
미도파 보석부
536-1692

533-2361 구독신청은

고국의 향수가 듬뿍어린
미도파백화점 비디오부
연속극,가요,문학,영화,전설…
454 BLOOR ST. W.
536-1692

오리엔탈 · 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64 K
●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및 Word Processing
●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B7
☎ : 275-0702 오 영 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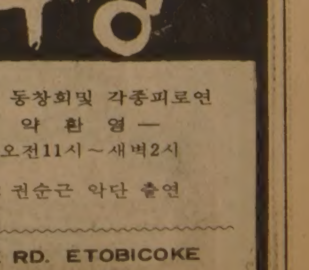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Miss. 정)

내고향 통닭집
〈오늘의 메뉴〉
전기구이 통닭 오뎅, 가께우동
곰탕, 설농탕, 김밥
생선초밥, 빈대떡, 만두등.
영업시간 : 아침 10시~새벽 1시
전화번호 : 537-0432
658½ BLOOR ST. W.
대표 : MRS. 리
MANNING BLOOR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Grant Brown
쎄일즈 · 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KAWAI 피아노
●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 HILLCREST MALL ☎ : 883-9407
●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피로연
— 예 약 환 영 —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목, 금, 토, 일 : 권순근 악단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2百周맞는 한국天主敎 脫閉鎖 自省의 소리 높다

가톨릭大서 전국司牧회의「오늘의 실정」論議

教內對話、사랑 실천의 條件 眞理는 信徒와 함께 찾아야

한국천주교회는 교회창설 2백주년(84년도)을 계기로『폐쇄와 권위의 남아있는 때를 아직 허물어버리자』는 내부로부터 自省의 소리를 맞이하고 있다. 이같은「소리」의 하나가 지난1일 가톨릭신학대학에서 열렸던 2백주년 기념회의 의안준비를 위한 전국 사목회의. 이 회의는 이민족 이사회가 오늘의교회를 향해과연 무엇을기대하고있는지를허심탄회하게 분석, 검토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안에는 기념건물을 짓자는등의「외형적인것」이 하나도 없었다는것이특징이었다. 어떻게해야교회의 쇄신이 가능하고, 겨레에게 희망을줄수있으며,인류에게는 모범을 줄수있는가하는「내면적인것」이 관심의 대상이었다.

세계교회가 자기의 마땅한 존재양상으로 차인하고 있는 불변의 원리는『교회는 항상 세상의것이되고, 좀더 세상안에 현존해야된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상에 대해 강연한 鄭義采신부(大神學大교수)는 바로이같은 원리가 한국교회에 더욱 절실히요청된다고 밝히면서 교회내부의「대화」를 강조해 주목을 모았다.

교회가 교회구성원을 매개로하여 세상에서 그사명을 다하기위해서는 교회안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와 협력과 사랑이 실천된다. 교회는 제시된 진리를가르치지만 진리의 소유자는 아니다. 하느님과의 대화로서 진리를 찾는 태도가 신앙이며,신앙을가지고 타인과함께 진리를 찾는태도가 교회의 친교이다.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 교황청과 교구청사이,장상들과 수도자사이, 기타 각 교회구조의 수직선에서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볼때, 주교회의는 언제나 사무처의 협의에 그쳤을뿐 진정한 대화의장이었던 기억이 없다. 마찬가지로 주교와 신부들 사이에도 서로의 인격을 개방한 대화가 얼마나 있었던가 물어야한다. 본당이나 기타 사목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의 대화는 결코 충분한 상황이 아니다.

성직자들의 모임에서도 업무처리를위한 협의나 친목을 위한 행사외에 서로가 배우고 격려하는 영성적이고 인간적인대화가 얼마나 있었던가?

큰교구와 작은교구 사이에 상호보완하는 인적,물적 교류는 어느정도인가? 한국교회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직자의 재분배필요성이 절실한데도 어느교구에서 어떤 문제를 진지하게 대화하고 대처한일이 있는가?

교구의 경계선이나 본당의 구획선은 편의상생긴실정법의 산물이지 신학적으로꼭 그래야만될 이유가 없는데도 우리교회는 교구나 본당을 왜그렇게 절대시하는가?

鄭신부는 이렇게 自省自闡하면서 새로운 시도를하는 사람들은 전통적표현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절대적진리로 받아들이는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2백주년 사목회의 방향과전망」에 대해서 강연한 鄭義宋신부(가톨릭神學大교수)는 온갖가난과시련, 비인간화에 시달려온 이민족이 오늘날 그리스도에게는 기대는『무조건적이며 환상에 가까울 정도』라고 설명하면서 과거처럼 선교적주장을 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것이 아니라 이민족과 이사회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대면하자고 설명했다.

대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이 끊임없이쇄신되고 깊은 영성을 갖도록 촉구하면, 대외적으로는 개방된 교회상, 대화하는 교회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회가 천주교가 기대하는바에 부응해야한다.

한국 천주교는 정통적교회라는 자화자찬에 도취되어복음전파의사명을다하지 않고있다고 비판한 鄭신부는『하느님께서는 개신교라를 이땅 방방곡곡에 오게하시는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2백주년을맞아 민족복음화라는 대과제 앞에서 한국천주교회는 크게반성하고 일대전기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연구소를개설하여 이땅에 나타나야할 교회상을 밀도있게 연구하여세계에서 일어나는 참신한사상과 이땅의 전통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가톨릭교회는 외래종교가아니고 인간성에 부합하는 한국사람들의 종교임을 제시하자는게 鄭義采신부의 주장이다.

두 鄭신부는 다같이『공의회문헌은평신도들의권리에 대해언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권적인 교회참여의길은 막혔다』고 지적, 교회의 예산편성이나 운영에대한 평신도역할을 강조했다.

하느님의 자녀된 자유는 세속적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의 해탈을 의미한다. 이런 해탈을 성서는 가난의 정신이라고 표현했다. 한국교회가 쇄신되기 위해서는 이「가난의 정신」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국에 도입된지 오래되는 각종 신심운동이나 사도직운동의 명칭이 외국어투성이라는 점도 반성의 자료로 제시됐다. 또한 전래의 본질적 내용과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인들에게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공감할수있는 예규가 개발되어야하며, 비전례적인 대중신심행사때문에 그리스도의 본질이 은폐되는 폐단도 시정돼야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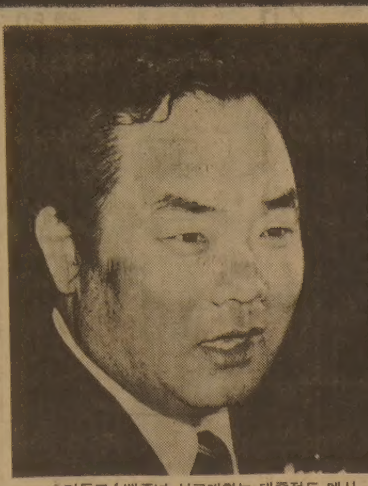
◇自省의 소리가 뼈아프게 들려나온 한국천주교회 2백주년 전국사목회의. 「바람직한 교회상」에대한 열렬한 토론이 전개됐다.

"개신교 質的成長의 轉機로"

1百周 선교大會 準備委員長 申賢均목사

한국기독교 20개교단이 공동으로 벌이는 선교1백주년 기념행사. 그가운데에 84년 개최를 준비하고있는 선교대회는「가장 규모가 큰 대중집회」가 될것이라는점에서 벌써부터 신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기독교 1백주년 선교대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申賢均목사는『오늘과 같은 기독교의 성장은 부흥집회를 통해 복음적인 신앙을 심어,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할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교1백주년을 맞아 한국교회는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으로 전환하는 각성이 크게 일어나야한다고 지적한다.

참된 복음위해 교단 스스로 회개필요


◇기독교1백주년 선교대회는 대중전도 메시지를 통해 복음적인 신앙을 심는데 목표를 두겠다고 밝히는 준비위원장 申賢均목사.

질적성장을위해서는 성서교육,평신도신학훈련,크리스천으로서 사회생활에 어떻게 적응할수 있는가의 교육,교회에서의 의무나 책임을 다할수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열거하는 申목사는 사실상 각교회마다 弟子훈련등 기독교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운동이 활발하게 번지고있다.

교계 식자층에서는 대규모 대중집회를 굳이 열어야되느냐고 회의적인 비판론을 펴는것을 잘알고 있다는 申목사는 그러나 과거 여러차례에걸쳐 매머드전도회를 시도한결과 失보다는 得이 훨씬 많았다고 지적한다. 申목사에의하면 대중집회는 많은사람에게 일시에 복음을전할수 있는 잇점,한국교회의 저력을 과시할수있는 잇점,교단과 신자들이 연합하여 서로 힘을 모으는 기회가 마련되며 대회참여를 통해 전도의 열심이 생기고 決信者들을 이때에 많이 얻는다는 잇점이 있다.

『세계의 여러 被宣敎국가에서 가장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아시아의 長子교회를 이룩한것은 크게 자랑할만한 일이지요.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과오도 범했고 민중앞에 치부를 드러낸 일도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사실은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申목사는 대중이 스스로 죄를 알고 참된 회개운동을 하지 않고는 올바른 민족복음을 이룩할 수 없다고 되풀이 강조한다. 바로 그같은점에서, 선교 1백주년을 맞는 한국교회는 지난날의 과오와 수치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하며 여러가지 기념사업 가운데서도 선교대회의 뜻이 더욱 크다고 역설한다.

申목사는 70년대에 몇차례 가졌던 매머드 전도대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했음에 비하여 이번 1백주년 선교대회는 모든 교파가 참여하는게 특징임을 강조한다.

全教派참여…85년大會 분위기 고취 내년에는 부흥회를 地方으로 확산

이번 선교대회는 오는 85년에 있을 예정인 한국교회 1백주년 기념대회준비를 겸해 각종 기념행사의 분위기를 고취시키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선교대회는 서울 汝矣島만을 국한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郡단위, 내년중에는 지방도시단위로 부흥회를 확산, 복음의 씨앗을 골고루 심을 수 있게한다는 것이 준비위원회의 계획.

이에따라 申목사는 선교대회의 주안점을 선교1백주년이라는 국민적 방향감각을 잃고있는 민중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분명한 갈 길을 제시하는 일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다.

우리민족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범국민적 회개운동을 벌이고, 그동안에 있었던 개신교 교회들의 분열의 과오도 이번 기회에 청산하며, 하나님앞에 한 형제자매로서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를 이루는 교회연합운동의 기틀을 잡자는 것이 선교대회의 또다른 주안점. 나아가서는 이 사회도처에 만연되고 있는 거짓과 부정,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도덕혁명운동을 전개, 우리의 선교역량을 세계선교에 크게 공헌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이같은 거창한 목표를 설정한 1백주년 선교대회가 성공하려면 한국기독교의 모든 교단 지도자들과 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申목사는 덧붙인다.

【李忠雨기자】

宗敎단신

순복음중앙교회 海外부흥회盛況

순복음중앙교회가 해외선교의 일환으로 필리핀마닐라(2월17~19일)와 싱가포르(2월22~25일)에서개최한부흥성회에는 연일 2만5천여명의 인파가 참석하는대성황을 이루었다는 소식.

특히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해준데대해 趙鏞基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마르코스 대통령.

趙鏞基목사 일행을 말라카낭궁 집무실로 초청, 필리핀기독교사상 최대규모의 부흥성회를 인도해준데대해 치사했다고 한다.

海外동포 우편急增 작년 中共서만萬件

작년 한해동안 극동방송과 아시아방송을 듣고 해외동포가 보내온 편지는 중공에서 1만3천50통、일본에서 2만7천9백66통、소련에서 1백80통인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한국극동방송과 세계적인 방송망을 가지고있는 미국FEBC 홍콩지사의 청취분에 국한된 것으로 FEBC미국본사와 필리핀 지사등 중공동포들의 우편물 발송이 용이한 지역에 접수된 편지를 합하면 숫자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공의 흑룡강성、길림성、요동성등 과거 만주로 불리던 지역에 사는 우리동포들은 극동방송을 듣는일이 하루중 가장큰 즐거움이라고 쓰고있다.

基督敎 신흥운동 창립12周 세미나

교회경신과 일치를 지향하는 한국기독교 신흥운동(회장 許相吉목사) 창립12주년 기념행사가 11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다.

「다음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의 선교적、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톨릭 金壽煥추기경이 주제강연을 하게된다.

발제강연과 토론은 5개분과로나누어 진행되며 토론내용을 종합、洪聖賢목사가 마감강연을 맡게되는데 분과별 발제자와 강연제목은 다음과 같다.

▲1분과 閔庚培=민족사와 교회사▲2분과 朴根元=한국교회 성령운동과 교회성숙론 ▲3분과 文喜錫=한국신학형성과 교회일치 운동의 과제▲4분과 金容福=분단상황하에서의 한국교회의 사회 선교적과제▲5분과 柳東植=한국문화창조를 위한 교회의 책임

孔夫子 春期釋奠 오늘 成大서봉행

孔夫子 탄강 2천5백33년 春期釋奠이 8일(음2월10일) 상오10시 成均館 大成殿에서 봉행된다.

이자리에서는 [illegible]周鎭박사가 「한국정치 사상과 유학」이란 제목으로 강연한다.

時調부문 李又載씨 小說부문 金濟英씨 一鵬문학상 수상

世界禪學會(회장 徐京保스님)가 제정한 一鵬문학상 첫수상자로 시조부문에 李又載씨(光云大교수)소설부문에 金濟英씨(작가)가 선정되었다. 상금은 각 50만원、오는 12일하오6시 앰배서더호텔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사도직 회장단선출 천주교 서울대교구

천주교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협의회회장단이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다음과같이 개선됐다. 회장=河承伯(성령봉사회장) 부회장=柳鉉錫(정의평화위원회의장) 金秉權(청담동본당총회장) 金炫(저널리스트클럽회장) 朴愛珠(여성연합회장)

10일석가 涅槃齋日 전국사찰서 법요식

오는 10일(음력 2월15일)은 석가모니涅槃齋日。이날 전국 사찰에서는 일체의 번뇌를 끊고 安心立命을 배우는 뜻을 깊이 새기는 법요식을 갖는다.

住宅融資조건 緩和 新築5年내도 對象

재무부는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수있도록 주택보험 가입기준을 조정、대입한지 3년이내의 주택이거나 신축한지 5년이내의 주택도 주택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 최 고 인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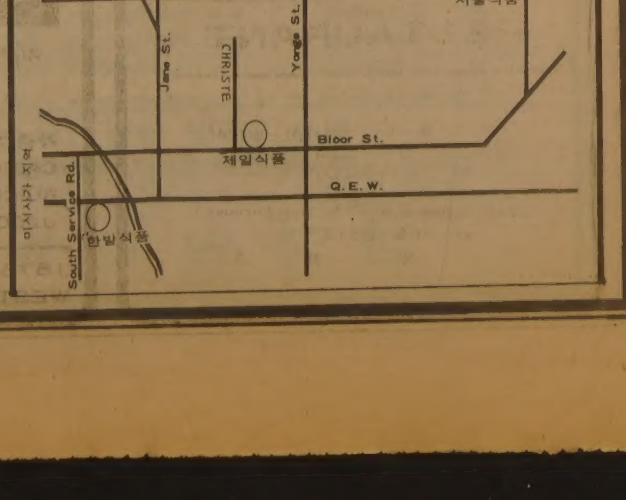
D.Y. 가주미쌀 $ 17.94

D.Y. 맛새우젓 ---------- 1LB ---------- $1.99
조개 깐것 ---------- 1LB ---------- $3.49
(뱅쿠버에서 새로 입하)
D.Y. 참기름 ---------- 1병 ---------- $7.99
D.Y. 당면 ---------- 1LB ---------- $2.59
D.Y. 막국수 ---------- 5LB ---------- $3.99
D.Y. 우동국수 ---------- 5LB ---------- $3.99
(풀어지지 않고 쫄깃쫄깃한 국수)
D.Y. 고추가루 ---------- 1LB ---------- $1.99

※D.Y를 확인하십시요.

그외에도 스페샬 품목이 많습니다.

한밭식품 274—5401
서울식품 291—8317
삼복식품 743—8270
제일식품 532—1054
●D.Y. Import Co. 749—0579



캐나다의 한국人

全대통령 危害사건 契機로 본

4萬명이 中流생활 터론토雜貨商 석권

平穩한 同胞사회에 충격…反共단체 추진 ㊤

…부터가 터론토가 北傀교포사회에서 「北傀의 모스크바」로 불려지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들어 터론토에 있는 崔泓熙·부자의거동에서 부자연스러움이 자주보였다. 또 미국땅의 친북한인사중 崔德新(전외무부장관)이 자주 들러 일을 보고 가는가 하면, 친북한계 교포신문이 돋보이도록 金日成찬양기사를 실어 대부분의 우리교포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무언가 잠숙이 숨겨진 음모의 냄새가 풍겼다. 그것이 全斗煥 대통령위해 음모사건임이 캐나다경찰에의해밝혀졌다.

터론토는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동쪽에 위치한 인구 2백20만의 캐나다 제2의 도시이다. 상공업이 발달한 진보적인 도시로 비교적 소수 민족이 살기가 편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있다. 캐나다 교포 4만명중 약 3만명이 이곳에 거주하고있다.

캐나다의 한인들은 대사관이있는 오타와에 2백50여명, 몬트리올에 1천명이 모여살고 있으며 그밖의 몇몇지역에 흩어져있는것 외에는 나머지가 터론토에 집중되어있는 것이다.

캐나다의 이민사는 짧다. 60년대 이전까지의 한인교포들은 대부분 해방전후에 유학왔다가 정착한 학생들이나 목사였다. 65년부터 캐나다가 공식으로 이민을 받으면서 이민붐이 갑자기 일어 국내에서는 물론 서독광부 간호원및 파월기술자들이 대거 몰려온뒤 교민수가 4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이민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기술을가진사람들이 많아 회사 또는 직장의 봉급생활자, 연방정부및 주정부의 공무원, 대학교수등으로 착실한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특히 터론토시는 과거 유태인으로부터 이 일대 한인들에게 넘어갔던 잡화상을 한국인들이 석권, 현재 1천2백여개의 한인상점들이 성업중이다.

이민역사가 짧아 경제적으로 대성한 사람은 없으나 한인교포들은 캐나다사회 곳곳에서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있다.

◆캐나다는 유색인종이 너무 많이 쏟아져 들어오자 미국사의 이민형태가 될것을 우려, 이민창구를 닫아버렸다. 현재 한국인이 갈수있는 길은 극소수의 기술이민 뿐이다. 어쨌든 이거대한교포사회에 이번 全대통령위해음모사건은 더할수없는 충격을 던져주었다.

캐나다거주 교포가 비록 극소수이긴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북한과 관계를 맺기시작한것은 7년전이다. 지난75년11월 터론토에 사는 李모여인이 처음으로 平壤을 방문함으로써 비롯됐다. 李여인은 캐나다인 무역사절단의일원으로 中共에 들렀다가 부친을 만나기위해 平壤을 경유했다.

그뒤 「뉴·코리아·타임스」紙발행인 金忠林씨가 80년9월 세계탁구대회 취재를 위해 平壤을 들렀다. 그로부터 친북한 인사들이 학술심포지엄이다, 스포츠 또는 문화교류다하는 구실로 이따금平壤을 드나들었다. 교류가 잦음과 동시에 캐나다내에 석연찮은 분위기가 돌기시작했다.

그러나 가장 정치적인 냄새가 짙고 요란했던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인물로 알려진 崔泓熙의 平壤방문이었다.

崔는 80년9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국제태권도연맹산하 사범16명(캐나다인포함)을 이끌고 平壤을 방문,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국빈처럼 연도에 늘어선 동원주민들로 부터 환영을 받았다.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는 세계어느나라라도 간다」는 구실을내세운 崔泓熙의 태권도단은 약10일간 북한에 머물렀다. 이들중 朴正泰사범은 터론토도장을 아예 집어치우고 平壤에 다시 가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이밖에 북한에 다녀온 교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알 수없으나 약20명으로 추산되는 북한방문교민들은매월정기모임을갖고있다. 中共에 갔다가 北京에서 북한 입국비자를 받아갔기때문에 캐나다에 재입국할때는 보통 조사를 받지않아 북한방문사실이 잘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캐나다연방경찰은 교포개개인의 북한방문사실을 휜히 알고있다.

◇캐나다 제2의 상업도시 터론토는 소수민족이 살기에 비교적 적합하다. 그러나 최근 각종 스파이사건 국제적규모의 보석 마약밀매 사건등이 자주일어나 우범도시화해가고있다.

◇캐나다이민의 역사는 짧지만 한인교포들은 캐나다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상당한 처우를 받고있다. 가끔 동포들끼리 사교모임을 통해 서로의 소식을 듣기도 한다.

親北傀는 20여명에 불과

出入國쉬워 據點노려…심포지움등假裝 암약
崔泓熙부자에 崔德新도 자주들러 陰謀눈치

캐나다는 미국과같이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캐나다국민들은 공산당을 외면, 의회에 1석도 공산당을 선출하지 않고있다.

공산당활동을 허용하지만 사직당국의 눈은 날카롭다. 다만 미국보다는 덜하기때문에 소련·북한등은 캐나다에 1차거점을 마련하고 對美활동을 펴고있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해있고 [illegible]이 비교적 쉽기때문이다.

실제로 관광지 나이애가라폭포에가면 양국의 관광객이 뒤섞여 서 국경을 쉽게 넘나들수 있다. 9천㎞의 국경을 접하고있으나 아무 무장초소도·경계선도 없는 두나라이다.

양국의 시민권소지자는 여권도 없이 국경을 넘어 출퇴근 하기도 한다. 물론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계의 모습을 가졌거나 외국인 티가나는 사람들은 시민권 또는 여권제시를 요구받기도 한다.

선하나 안 그어져있는 양국국경에는 언제든지 우범자들이 접촉할수있는 여건이 된다. 터론토는 崔重華등 일당의 음모를 꾸미기에 알맞는 도시이다.

일례로 이번 대통령위해음모단에 관련되어 수배중인 클래거맨의 전과기록에서도 잘나타난다. 클래거맨이 지난63년 당시 최대규모인 50만달러어치의 다이어먼드 암매혐의로 체포됐을때 북미언론들은 터론토가 세계다이어먼드 밀매조직의 최대온상이라고 보도하기까지했다. 이밖에도 터론토는 81년10월 북미최대의 2억달러마약밀매현장이 되기도했다. 이때 범인들은 대기시켰던 비행기로 터론토를 출발, 단10분거리인 온타리오 호수를넘어 미국으로 가버렸다.

또 한예로 지난 12월 미국방성 禁輸차량인 농사용 트레일러가 터론토를 통해 리비아로밀수출됐다. 그 트레일러는 리비아에서 탱크견인차로 개조되었다. 이와같이 터론토가 범죄조직또는각국 정보원들의 온상지가되는 까닭은 미국의 각항만이나 공항의출입국 수속이 아주 까다로운 반면 캐나다는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터론토를 전초기지로 밀반입된 마약, 다이어먼드, 무기등은 왕래가쉬운 육상통로를 통해 미국에 공급된다.

10월 유신(72년)이후 故朴正熙대통령에 몇몇 인사들이 반정부운동을 벌인것이 있다. 한때 이들은 崔泓熙, 張正文신부(현재 뉴욕으로이주)등의인사들과 손을 잡은듯했으나 결별했다. 崔씨, 崔德新, 張신부, 金忠林씨등은 79년10월 朴正熙대통령 시해사건후 터론토총영사관이 빈소를 차렸다고 시비를 벌였었다.

교민의 대부분이 공산주의를 싫어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없는 사실이다. 태권도단의 평양방문과 의사 黃모씨의 平壤방문등에 자극받은 일부 교민들은『우리조국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구호아래 反共단체구성을 추진, 이미 6백19명으로부터 찬성서명을받았다. 全대통령 위해음모사건은 터론토교민들을 흥분케했다. 교민들은 3월6일 反共궐기대회를 연다. 교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몇몇사람에의해 흐려진 교민사회를 바로잡기위한계기가될것이다.

【터론토支社】

◇캐나다교민 4만명중 3만이 모여사는 터론토의 한인상가。TV수리점·고깃집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져 눈길을끈다。

한국일보 詩壇

安東
李生珍

사람들 다 돌아가고 산 허리에 세워진
표지판이 2㎞만 더 가라하더라 湖水는
솔밭사이를 빠져가느라 솔에 걸리고 書院
은 물소리가 넘어 五百년쯤 숲속으로 들
어가더라.

저쪽에서 安東사람 하나 등에 쌀자루,
쌀자루 위에 콩, 콩자루위에 마늘뿌러미
지고 싱글벙글 이리로 오더라.

어딜 가느냐 하기에 서원에 간다고 했
더니 입자도 없는데 무엇하러 늦게 가느
냐 하더라 얼른 말이 나오지않아 빨네 찼
다오느나 했더니 그 노인 슬기운으로 휜
한 연꽃 하나 피우며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고 나는 쓸쓸한 중이 되더라 입자도 없
는데 무엇하러 가느냐는 쓸쓸한 중이 되
더라.

金喆鎬 방어相對변경

WBC슈퍼플라이級 랭킹1位 멕시코발데스로

프로복싱 WBC 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의 5차방어전상대가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에서 동급1위인 라울·발데스(멕시코)로 바뀌었다고 멕시코市에 체류중인 金浩然매니저가 4일 極東프로모션에 알려왔다.

金은 당초 오는4월24일 大田서 오로노와 5차방어전을 벌이고 여기서 승리하면 6월에 WBC 지명도전자인 강호 발데스와 대결할 계획이었으나 오로노와의 경기를 뒤로미루고 對발데스전을 4월24일에 먼저 치르기로했다는것.

도전자가 갑자기 바뀐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로노를 겨냥하여 지난1일부터 강훈에 들어간金은 앞으로 훈련계획을 재조정해야 할것으로보인다.

五輪준비 資料 완벽하게 入手

「88년 서울올림픽준비자료를 수집하고 귀국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全許振사무차장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와 역대올림픽 개최지의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귀중한 자료를 입수했다고 4일 밝혔다.

韓國등11팀 參加
臺北 靑少年럭비

【臺北3日CNA=聯】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臺北에서 열리는 제3회 汎태평양청소년럭비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한 7개국가및 지역에서 모두 11개팀이 참가한다고 臺灣럭비협회가 3일 발표했다.

이번대회에는 한국에서 2개팀, 홈팀인 臺灣에서 4개팀이 참가하며 日本·뉴질랜드·홍콩·西사모아·통가등은 각각 1개팀을 파견한다.

한국·印尼對陣확정
데이비스컵 테니스

데이비스컵 테니스 동부지역 준결승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대진이 확정되었다.

◇대진일정 ▲5일=단식(全瑛大-팀버스、金春浩-타린)▲6일=복식(1경기)▲7일=단식(全瑛大-타린、金春浩-팀버스)

運動 短信

野球代表 金在博선수得男

◆국가대표야구선수 金在博(사진)이 3일 득남. 두딸의 아버지였던 金은현재 韓國化粧品의 春川전지훈련에 참가중이다.

鄭泰守씨野球協심판위원장

◆대한야구협회 심판위원 鄭泰守씨가 서울시야구협회 심판위원장으로 취임.

작년成長 輸出이主導

취업人口 千4百만명중 17%고용

지난해 경제성장의 절반이상이 수출에의해 이루어진것으로 나타났다. 4일 貿協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7.1%의 절반이넘는 4.1%가 수출에의해달성되었다.

또 수출은 총취업인구 1천4백만명중 2백45만명에 취업기회를 제공, 17.4%의 고용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제조업체의 취업인구 2백87만명의 51.9%인 1백49만명이 수출업계에 취업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외화수입의 74.2%가 수출에서 발생했으며, 총외…

南大門꽃市場 사철盛市

◇겨울철南大門꽃시장이 계절을잊었다。꽃선물이나 꽃장식이 생활화되고 있다고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경기침체나 가정의례준칙의규제에도 불구하고 꽃시장이 盛市를 이루고 있기때문。꽃상인들은 그래도 졸업·입학철한때뿐이라고엄살이다。

항공기部品생산 本格추진

국내機械공업체, 育成策 맞춰

정부의 항공기산업육성시책과 관련, 국내기계공업체들의 航空機部品생산계획이 활발하게 추진되고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美國굴지의 항공기메이커인 노드롭社는항공기제작에 필요한 9종류의 機材부품을 한국업체가 정밀가공해줄것을 의뢰해왔으며 이에따라 韓國重工業등 8개국내업체에 대한 가공능력을조사한결과 이가운데 韓國重工業·大宇重工業·大韓重機·三星精密등 4개업체가 有資格업체로 선정됐다는것이다.

이에따라 이들 4개업체는 美노드롭社측에 견적요구서를 제출, 이중 1～2개업체가 항공기부품납품업체로 최종 선정될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大韓航空(KAL)은 ▲헬機 機體구조물▲主回轉翼 ▲캐노피 ▲전기배선등을 오프세트 프로그램방식(공급자로하여금 발주처의 自國內업체의 일정제품을 구매하는방식)의 일환으로 對美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大榮電子·東洋精密·金星電氣·大韓電線등은 통신및 항법장치등 항공기탑재장치생산을위한 기술도입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三陽타이어와 大韓패러슈트는 항공기용 타이어와 패러슈트를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항공기부품공업은 부가가치가 매우 높고 前後方파급효과가 큰산업으로 유럽·캐나다·日本·濠洲등에서는 軍用機등의 구입조건으로 오프세트방식에 의한 부품납품을 거의 통례로 하고있는데 이같은 관점에서 국내업체의 항공기부품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종합육성방안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당신과 애들을 데리고 2주동안 휴가를가려고 했었지"
"하지만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되는군"
"그래서 차선의 방법을 택하기로했지" "일주일간만 가는거예요?"
"아니야, 기념품으로때우기로 했어。"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본보 취급 식품점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한국식품 동부	: 2810 EGLINTON AVE.E	261-6111
●한국식품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제일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한밭식품	: 466 SOUTH SERVICE RD.	274-5401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발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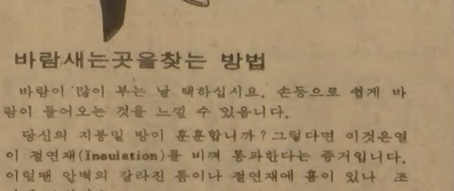
ARE YOU GOING TO SPEND ANOTHER WINTER HEATING THE GREAT OUTDOORS?

당신집의 틈새 구멍이나 차거운 장소는 열이 새어나가는 곳입니다. 당신집이 오래됐거나 새것이나 관계없이 지붕밑방이나 지하실, 창문주위, 전기콘센트등의작은 갈라진 틈이나 구멍으로 상당한 양의 열이 새어 나갑니다.

왜 집밖으로 열이 새어나가게 해 에너지를 낭비하십니까? 좀더 안온하게 꾸며 따뜻한 겨울을 나십시요.

아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열관리를 할 수 있읍니다. 징박이 총(Caulking gun), 징(Caulking)과 양질의 틈마개 재료(Weather stripping)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집이 바람이 새는 곳을 막는데 $100미만의 돈과 휴일의 몇시간만 할애하면 됩니다.

집안에서 이같은 바람막이 작업을 해야 하므로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겨울동안 외풍은 강해지고 더 차거우므로 바람이 들어오는 곳을 찾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바람새는곳을찾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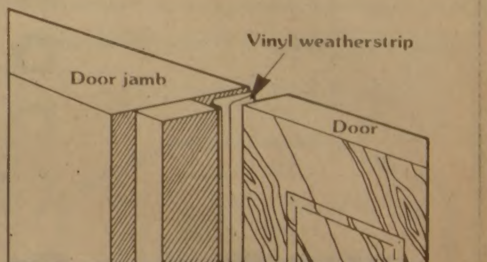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택하십시요. 손등으로 쉽게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읍니다.

당신의 지붕밑 방이 훈훈합니까? 그렇다면 이것은열이 절연재(Insulation)를 비껴 통과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럴때 암벽의 갈라진 틈이나 절연재에 홈이 있나 조사해 보십시요.

당신집은 많은 양의 열을 지하실의 벽과, 집의 기초가 만나는 면을 통해 새어나갑니다. 이럴때 외벽을 통해 나가는 전기줄과 수도연관 구멍도 조사해 보십시요.

바람새는 곳을 막는 방법

틈마개재료는 최근 몇년동안 매우 개선되어 대부분의 창문이나 문주위에 쉽게 부착할 수 있읍니다. 깨끗한 실리콘 징은 마르면 눈에 잘 식별되지 않으며 장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이밖에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열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가장 빠른 방법을 당신에게 알려드릴 수 있읍니다.

아래 붙은 쿠폰을 오려 내어 주소와 이름을 기입한 후 우편으로 보내십시요. 바람새는 곳을 알아내는 법, 바람막는데 필요한 재료등을 자세히 소개한 16페이지의 안내책자와 함께 「바람이 새지 않는 집안의 이상적인 신선한 공기와 습도」에 대한 소책자도 보내드리겠읍니다.

Energy Ontario

NAME
ADDRESS

CITY
POSTAL CODE
MAIL TO: The Ministry of Municipal Affairs and Housing, Box 2159, Toronto, Ontario M5W 1H1

Ontario
온타리오 시정및 주택성
장관 클로우드 베넷
수상 윌리암·데이비스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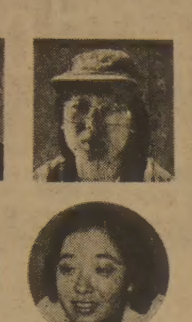
週刊한국

Benjamin Moore PAINTS
변 의 섭
블루어 하드웨어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玄淑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尹시내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李銀河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혜은이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

◇72년초의 河春花㊤와 오늘의 河春花㊦。

◇사진㊤右로부터 70년초의 金高子·金세레나·曺美美。같은 돼지띠로 친분이 두터웠고 티없이 맑은 얼굴서 더 짙은 정을 느끼게된다。사진㊦는 현재의 모습。

◇67년초 당시의 李美子㊤와 오늘의 李美子㊦。

演芸街에 人造美人 많다

톱歌手들의 어제의 얼굴과 가꿔진 오늘의 얼굴

밥을 굶더라도 예쁜얼굴 갖도록 神經써야

뻐드렁니가 옥니로 바뀌고…언덕낮은 코가 오똑한 코로 솟아

아예 틀이해 박은 歌手도…해마다 한두번씩 성형외과 찾아가

성형수술과 미용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예계에서는 人造美人들이 量産되고있다. 인기를 생명으로하는 연예인들에게는 용모와 인기가 직결되기 때문에 아름다와지려는 노력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예인중에서도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 가요계의 실태를 돌아보며 톱가수들의 어제의 얼굴과 가꿔진 오늘의 얼굴을 비교해 본다.

60년대 중반의 일이다. 당시 인기가 한창이던 가수 ×양의 노래실력은 워낙 뛰어나 발표하는 노래마다 히트를 쳤다.

이같은 ×양에게 한가지 크나큰 고민이 있었다. 얼굴에 자신이 없어 남들 앞에 나서기가 망설여졌던 것이다. 심할 때면 무대에 오르면 관객들의 시선에 주눅이 들어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양은 고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찾아 부분적인 수술을 하고 미용전문가에게 화장술도 배웠다. 외국 공연이 있을 때는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를 찾는 일이 뭣보다 급선무였다.

그 결과 ×양의 얼굴은 나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양은 그뒤에도 노래연습 못지않게 얼굴 가꾸기에 노력을 기울여 이젠 컬러TV화면을 통해서도 정겨운 모습과 심금을 울려주는 노래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게 됐다.

×양과 같은 경우는 여자 연예인이면 누구에게서나 찾아볼수 있다.

『연예인은 만인의 연인』이라고들 말한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더 용모에 신경을 써야 하고 항상 싱싱한 젊음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TV화면이나 공연무대에서 스포트 라이트를 온몸에 받으며 노력해야 하는 가수의 경우, 그 필요성은 아주 절실하다. 그래서 여가수들은 밥을 굶더라도 예쁜 얼굴을 지녀야하고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화사한 웃음과 흥겨운 노래를 팬들앞에 선사해야 한다.

왕년의 인기여가수나 현재의 톱가수들의 경우, 원래의 모습이 수준 이하였던 사람은 드물다. 그렇다고 타고난 미인이 많았던것도 아니다. 제각기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는 얼굴에서 나름대로 매력을 풍기고 있었다.

그런데 그 타고난 얼굴들은 그들의 인기가 오르는것과 정비례 해서 나날이 달라져 간다. 한동안 사라졌던 여가수가 오랜만에 TV화면에 등장할때는 시청자가 착각할 정도로 얼굴이 바뀐다. 어제의 뻐드렁니는 하얗고 고른 옥니로 바뀌었고 언덕이 낮았던 코는 리즈·테일러의 오똑한 코로 변모해있는가 하면 작고 불투명했던 눈동자는 그윽하고도 윤기가 어린 아름다운 눈으로 둔갑해 시청자를 사로잡는 것이다.

가수들이 이처럼 미인으로 변모하기까지에는 성형수술과 화장기법, 미용체조의 영향을 받는게 대부분이지만 헤어스타일이나 의상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용모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다.

「만인의 연인」인 연예인들은 만인에게 매력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처럼 무서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 남모르는 노력에 따라 인기도 높아지고 수입도 늘리지만 상대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고충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인기가수 K양은 『지난 10년간 음식을 제대로 맛있게 먹어본 일이 없다』고 말한다. 보기 흉하면 이를 모두 틀이로 바꿔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다른 인기가수 B양은 『해마다 한두번씩 성형외과를 찾느라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다. 매초의 성형이 불완전해서 변함없는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많은 여가수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공통된 고민은 얼굴 피부가 급속도로 상하고 있다는 것. 무대나 TV프로에 출연할때마다 바르는「도란」의 독성이 그런 결과를 낳게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가수들은 공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화장을 지우고 잠자리에 들 때면 무엇보다 먼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들의 생활에 한없는 허탈을 느끼는 것이다.

<白承憲기자>

◇富平여중에 在職中에는 民族主體학교를 세워 학생과 학부모에게 民族魂을 불어넣었다。

◇吳學煥씨

은퇴한老교장이 벌이는 執念…

예쁜 우리이름 찾아주자

日帝잔재 씻고

우리 이름찾기운동을 활발히 벌이는 전직 老교장이 있다. 지난해까지도 富平여자중학교 교장이었던 吳學煥씨(63·仁川市 南區朱安1洞 281). 지금은 교단을 떠났지만 그가 평생의 사업으로 펼치려는 우리 이름찾기운동은 퇴직후도 변함이 없다. 이처럼 吳씨의 우리 이름찾기운동은 신들린 사람처럼 끈질기다. 나라사랑·국어사랑이란 범 국민적인 표어를 만들어 채택케도 한 吳씨를 찾아 그의 이름찾기 운동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吳씨가 이 운동을 펴기 시작한것은, 1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63년10월 富平중학교에서 富平여자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해 오면서부터다.

당시만해도 우리이름 찾기운동은 잘 알려지지 않아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인식돼있었다. 따라서 개명하기란 기대할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우리이름을 찾자는 낯선 개념에서부터 거부반응을 일으켰고 改名을 해주는 법원측에서도 무관심이었다.

그렇지만 吳씨의 굳은 결심은 주변의 눈초리가 어떠하더라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학생들을 앞에서나 공식모암에 나갈 때나 우리이름찾기운동을 입버릇처럼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법원측과 절충해 꾸준히 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기를 무려 9년여. 그동안 吳씨가 접수시킨 개명신청건수만도 수천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에 나타난 결과는 한결같이 도로아미타불이었다. 그의 본심을 알아주는 법원도 법관도 없었다.

그렇지만 吳씨는 주변의 냉대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이 운동의 섬지에 집념의 불길을 당겼다.

지난 80년11월5일, 마침내 吳씨는 그의 뜻을 이뤄내고야 마는 첫 결실을 맺었다. 감격에 벅찬 순간이 아닐수 없었다.

富平여자중학생중에 일본식 이름을 가진 1백10명의 학생들에 예쁜 우리 이름을 갖게한 것이다.

이중에는 吳씨의 열의에 감복해서 우리 이름으로 고친 학부모 10여명도 끼여 있다.

이런 무더기 개명의 성과는 당시 水原支法 仁川支院 金碩洙 지원장의 적극적인 뒷받침과 학부모인 사법서사 李南永씨(47·仁川市 北區 富平洞248)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吳씨가 우리 이름을 찾아주자는데는 다른데 있지 않다.

우리 이름중에 일본식 이름인「子」자가 들어 있는 것을 고쳐 고유의 우리 이름을 갖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일본식 이름은 특히 여자들중에 많아 여학생들에게 먼저 우리 이름을 찾아 주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吳씨는 해방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이름자중에 일제의 잔재인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고 했다. 독립된 마당에 왜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아직까지도 갖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상대로한 改名선파는 큰 의미를 갖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 개명운동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직까지 富平을 비롯, 仁川에만도 日本式이름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가 2만여명이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이 개명운동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실을 맺기 힘들다고 했다.

百여학생에 예쁜이름 찾아줘

改名에는 무엇보다 法院 이해가 앞서야

당국에서도 이운동의 뜻을 이해해야하고 본인 스스로도 우리 이름찾기운동에 응해 주어야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운동은 주무관청인 법원이 적극 호응해야 햇볕을 볼수있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측의 냉담한 반응과 수속절차상의 까다로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드는 문제등이 하루빨리 시정돼야한다고했다.

吳씨는 지난10여년동안 이운동을 펴오면서 겪은 고충은 문자그대로 뼈아픈 경험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의 성공적인 결과도 金지원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사법서사 李씨의 헌신적인 무료대서가 없었던들 불가능했을것이라고 했다.

사법서사 李씨는 22년동안이나 사법서사일을 해와 改名이 어떠하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이번 개명도 金지원장의 사전 내락이 없었던들 개명신청도 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李씨는 따라서 이번과 같은 무더기 개명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吳씨는 이제 野人이 됐지만 그의「우리이름 찾기」운동은 종전의 학교에서 각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가 간여하고 있는 白凡 金九선생 기념사업회를 통해 강력히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종전처럼 단체의 모임이나 학술회동에 나가면 꼭 우리이름 찾기운동을 역설한다. 그는 民族정신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주변에 있는것이라며 우리이름 찾기운동의 근본 뜻을 풀이한다. 吳씨의 말을 들은 서울 城北區 城北洞229의9 (15統1班)에 사는 박영자씨는 제일 먼저 우리이름을 어떻게 하면 찾을수 있느냐며 문의해왔다.

또 大邱에 사는 池花子씨도 자신의 이름이 일본식인 것을 이제야 알고는 40여년간 써온 이름을 갈겠다고 호소해왔다. 이같은 예는 全北에 사는 李美惠子씨를 비롯해 멀리 美國의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趙美子씨. 또 캐나다등지에 사는 많은 동포들로부터도 잇달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때늦은감은 있지만 일본식 이름을 고쳐 예쁜 우리이름을 갖고 싶다고 전해왔다.

또 어떤 편지는 자신의 이름이 일본식인것을 안 남편이 심하게 구박을 주어 견디다 못해 법원주변의 사법서사를 수십번 찾았으나 시원한 대답을 못들어 호소한다는 내용을 알려오기도 했다. 吳씨는 이 편지에 대해 친절히 改名節次를 알려준뒤 서울의 경우는 여의도에 있는 崔仁善사법서사나 仁川주민은 李南永사법서사(富平)를 찾아가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吳씨는 이 운동을 펴는것은 이름에서 부터라도 우리 民族意識을 느끼게 해야겠다는 일념에서라고 했다.

吳씨는 이 운동의에도 우리 국사찾기운동과 우리말 찾기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국사찾기운동은 지금까지 오도돼 있는 우리 국사의 正史를 찾아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고 바른 역사를 물려주자는 것이다.

民族意識 찾자는게 근본 뜻

모임에 나가면 꼭 우리이름 찾기 역설

吳씨는 이 운동을 安浩相박사와 출판업을 하는 自由評사장 朴蒼岩씨등과 함께 펼치고 있다. 또 吳씨는 재직중에 우리말 찾기를 위해 전단 20만장을 만들어 富平일대의 각 가정과 관공서등에 뿌려 순수한 우리말을 쓰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었다. 특히 吳씨는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나라사랑·국어사랑이란 국가적인 표어를 만들어내 채택케 하는 큰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吳씨는 재직중에 富平여중에 民族主體學校를 세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민족혼을 교육했고 金九선생의 동상을 세워 민족주체사상을 불어넣어 주기도 했다.

吳씨의 올해 희망은 내년으로 仁川開港 1백주년을 맞는 기념사업의 하나로 仁川 舞鳳공원에 金九선생의 동상을 세우는 일과 개인이 운영하는 海英장학회와 素石장학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기금 3백만원규모로 끌어올리는일이다.

吳씨는 80년 국민훈장 석류장을 비롯해 국무총리 표창, 문교부장관 표창등 모두 스물 한번이나 각종 표창을 받기도 했다.

<金明鶴기자>

"두려움도, 편견도 없이"(Without Fear or Favor)
—토론토 한국일보의 자세—

實錄 第1共和國을 주름잡은 주먹들

나와바리 싸움 篇 (下)

제1共和國의 주먹들 가운데는 政權과 야합한 李丁載나 林和秀같은 정치 주먹 외에, 특출한 싸움 실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기까지 한 주먹 神話들을 낳은 자도 있었다. 만주와 중국대륙의 최고의 주먹들을 1대1 맞상대에서 굴복시킨 시라소니라든가, 가냘픈 몸매에 안경까지 쓰고 단 한 방에 상대를 다운시키는 速拳이자 京畿·延大출신인 「인텔리 주먹」 洪××씨, 그리고 政治실력자의 깔끄러운 돈과 유혹을 한사코 뿌리치고 오직 순수한(?) 주먹세계만 지켰던 明洞의 보스 李××씨등이 그들―. 그러나 50년대 중반 이후부터 서울 장안에는 주먹 群雄이 割據하면서 주먹 세계의 전통적 체질인 의리나 의협심 같은 不文律이 깨지고, 돈과 利權을 따라 벌이는 나와바리(管轄지역) 전투가 피를 뿌렸다. 싸움은 잔혹하고 처절했다. 골목마다 무법자들의 治下로 접어든 제1共和國의 주먹 경쟁 나와바리 싸움편―.

■시라소니 린치事件

지금은 복개돼 보이지 않지만 서울의 중심부를 흐르는 청계천은 자유당 말기까지 「주먹」들의 군사분계선이었다. 이 냇물의 양편에는 고양이와 개처럼 체질이 서로 다른 주먹師團들이 할거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있었다.

市公館(현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李××의 주먹사단, 中央극장을 무대로 하는 鄭××씨 주먹사단등 두개의 주먹 조직이 明洞파 주류를 이뤘고 미도파백화점과 지척인 일대를 주름잡은 洪××씨의 대한상업협회부대가 있었다.

이밖에도 南大門시장을 장악한 엄××씨부대, 스카라극장 앞의 安소위부대등이 있었다.

鍾路派로 총칭되는 주먹 부대로는 李丁載의 東大門(4가)사단, 종로3가의 아오마쯔(沈××)사단, 西大門의 양키(崔××)사단, 光化門의 張××사단등이 있었다.

明洞 李××씨의 박치기와 강펀치는 천하를 울리는 실력. 그의 눈초리는 사람의 마음을 면도칼로 싹 그어낼 것처럼 날카로왔다. 明洞파는 90%이상이 평안도 주먹들이었고, 종로파는 南의 사나이들이 태반이었다. 종로 주먹들의 위계질서는 명동 주먹이 개방적인것과는 대조적으로 아주 엄했다.

『오야붕 오신다. 담뱃불 꺼』하면 서로들 서둘러 끄고, 차렷자세로 벌떡 일어서는게 종로파들의 조직생리.

그런 종로·명동파간에 「시라소니」사건이 터졌다.

「시라소니」는 明洞派중 北道파(신의주)에서 해방뒤 밀사가 38선을 넘어가 데려온 주먹으로 서울로 와서 당대의 주먹왕 金斗漢과 맞상대를 걸고 우수한 전적을 올렸던 걸물.

■傳說的 주먹의 1人者

「시라소니」의 1대1 맞상대 실력은 가히 일품이었다. 우리나라는 말할것도 없고 만주·상해등지의 날고 뛰는 주먹들도 「시라소니」의 싸움의 묘기앞에 찍 소리를 못했다고 하는 전설적 주먹.

그는 앉은 자리에서 3m를 풀쩍 날아 상대방을 들이받는다. 발고랑 여덟 골을 뛰어넘어 박치기를 한다는 소문이 따라다녔다. 탁구대의 이쪽에서 저쪽을 뛰어넘어 들이받는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도 많았다.

그의 본명은 李×淳—. 시라소니라는 주먹 文字의 원래 발음은 「스라손」. 「못난 호랑이 새끼」라는 개마고원 일대의 方言이다.

시라소니의 키는 1m69㎝에 눈에는 광채가 없어 항상 졸리운 사람같아 보인다.

◇주먹들의 싸움과 횡포가 절정에 달했던 59년, 당시 주먹 근절책을 상의하는 검사와 각경찰서 수사계장의 구수회의가 연일 열렸다.

明洞派 시라소니가 丁載돈 자주 옮어 내자 鍾路派는 "無禮하다"고 참다못해 暴行…

53년 여름 어느 날 이 공포의 사나이 시라소니가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실에 나타났다.

『어이 명대(丁載) 용돈 좀 주라구!』

李丁載가 주먹사단을 창설한지 얼마 안돼서였다. 李의 부하 10여명도 보고있는 앞에 혼자서 나타난 「시라소니」에게 李는 『아, 드리지요』하며 10만환을 흰 종이에 싸서 건네줬다.

보름 후, 시라소니는 또 나타났고 李丁載는 또 20만환을 줬다. 한달쯤 지나서는 시라소니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을 시켜 메모를 통해 돈을 요구했다.

■청계천을 不可侵라인化

그로부터 얼마뒤 시라소니는 李丁載사무실에 혼자서 나타났다가, 쇠 파이프와 야전용도끼, 삽과 곡괭이 자루로 무장하고 덤비는 李丁載부하 행동대원 10명과 처절한 격투끝에 쓰러졌다. 3분간 중무장한 10명대 시라소니 1명의 대결에서 시라소니 정강이에선 피가 솟았고, 金모의 쇠파이프는 쩔뚝거리는 시라소니의 콧등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치명적이었다. 바닥에 쓰러진 시라소니 팔에는 무자비한 P씨의 도끼가 내려찍혔다. 처절한 싸움이었다.

잠시 뒤 시라소니의 친구 레슬링선수 朴모씨가 멋도 모르고 들어섰다가 곡괭이 자루로 발목을 맞고 뚝 소리를 내며 뼈가 부러져 들것에 실려나갔다.

반도병원(현 보령약국 건너편)에 입원한 시라소니는 李丁載의 부하인 李모의 능청스런 문병에 멋도 모르고 『아이쿠, 말도 말아. 왼쪽 다리만 안 부러지고 다 부러졌어』하고 대답하자, 문병 온 李모는 숨겨온 쇠절구 공이로 시라소니의 왼쪽 정강이 뼈마저 부러뜨리고 말았다.

시라소니는 白병원으로 옮겨 6개월간 치료를 받고 부러진 4지 뼈를 회복했다. 그후 시라소니는 몇년간 주먹생활을 하다가 청산, 그 손에 聖經冊을 들었다. 모 교회 장로까지 되었고 4·19후 제2공화국때엔 張勉총리의 경호원이 됐다.

「시라소니」린치사건후 동대문 주먹사단에서는 李丁載의 고문격인 K씨가 明洞주먹사단에 특사로 파견됐다. 明洞파 소속인 시라소니를 폭행한데 대한 사과와 사건 발단이 시라소니의 「무례」였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일단 화해가 이뤄졌다.

동시에 K씨는 『청계천을 분계선으로 해서 서로 오가지 않도록 해야 사고가 안난다』며 청계천을 불가침 라인으로 정하자고 제의, 明洞파와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피차간 감정은 사그러진게 아니었다. 이때가 53년 여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29년전 일이다.

鍾路카바레 黃金馬車가 開業날 明洞派 1백여명과 鍾路派 60여명간에 大血戰

그러나 그 2년뒤인 55년 6월19일, 청계천 水標다리 근처 종로쪽 골목에 있는 카바레 黃金馬車가 개업하는 날 明洞파 1백여명과 종로파 60여명간에 피비린내 나는 大血戰이 벌어졌다.

■3派연합세력 三友會

당시 종로파는 종로1가의 아오마쓰파와 서대문의 崔모파, 그리고 李丁載주먹사단등 3개파가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三友會라는 군단(?)을 형성하고 있었다. 三友會 주먹 병력은 자그마치 3백여명—.

아오마쓰는 해방후 반공주먹의 맹장으로 金斗漢의 別動隊대장 「무억인」의 오른팔이다. 그 휘하에는 W씨, Y상사, 쎄일, 깡개, 평양피마등 맹장들이 수두룩했다. 아오마쓰는 明洞파를 가장 가까운 종로1~3가에서 청계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며 경계해 오던 입장이었다.

서대문파의 보스 崔모씨는 東洋극장을 중심으로 한 패지, 가네코, 창희, 대봉이등 맹장들을 거느린 강 펀치의 소유자로 극장 건너편에 李起鵬씨 집이 있고, 李起鵬씨의 선거구가 서대문구라서 自由黨과 줄을 대고 있는 야심많은 주먹—.

이들 3개파 주먹 연합체 三友會가 黃金馬車위 大血戰을 치르게 된 이유는 黃金馬車주인이 기도로 明洞派 주먹을 채용하려 했기 때문이다.

주인은 明洞派쪽에 여러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그렇다해도 종로파에서는 黃金馬車의 立地가 청계천 라인을 기준으로 엄연한 종로파의 관할구역이라서 明洞派 주먹들을 「물 건너」로 내쫓아야 한다는것.

각파에서 20명씩 정예 60명을 선발, 黃金馬車를 포위, 기습하려는 순간 골목안 지붕위와 발코니등 이곳 저곳에서 느닷없이 벽돌이 쏟아졌다.

明洞파에서는 종로파의 기습에 대비, 드리쿼터 두 대에 벽돌을 싣고와 1백명의 주먹들을 잠복시킨 다음 영보빌딩 골목등 요소요소에서 종로파를 기다리고 있었던것.

일대의 血戰으로 골목 안팎은 벽돌과 돌멩이·유리조각들과 핏 자국이 즐비하게 깔렸었다.

◇집단 패싸움이 빈발하는 서울거리에 밤마다 주먹검거 비상망이 쳐져 경찰서는 만원이었다.

이 날의 大接戰은 明洞파의 승리로 돌아갔다. 벽돌과 돌에 맞아 쓰러진 동료들을 업고 서대문으로 질결한 종로파는 중상 15명에 경상 40여명으로 다치지 않은 주먹들이라곤 단 5명이었다.

종로파는 복수의 이를 갈았다. 이 날밤 칼·도끼·몽둥이·쇠파이프등에 권총 6정으로 중무장을 한 종로파 주먹 1백50여명은 8대의 지프까지 동원, 全面戰에 들어갔다.

주먹 세계에선 한번 당하면 반드시 복수를 하는것이 不文律로 돼 있었다.

만약 복수를 않거나 복수에서 패하게 되면 보스는 권위를 잃어 부하 통솔이 어렵게 되고 조직이 분열되기 때문이다.

■빼어든 復讐의 칼날

검은 작업복에 검은 워커 차림을 한 「大兵力」은 지프를 앞세우고 黃金馬車 앞으로 들이닥쳤다. 그러나 黃金馬車는 문이 닫혀져 있었다. 이어 수표교를 건너 중앙극장안으로 밀고 들어섰으나 거기에도 명동파는 흔적조차 없었다.

명동일대 다방과 바를 뒤지면서 살기 띤 주먹들은 허탕만 쳤다. 일대 다방과 술집들은 완전히 공포에 떨었고 손님들은 모두 길거리로 뛰쳐나와 주먹부대 행렬 뒤를 따랐다.

종로파 주먹대열은 시공관 앞에 지프를 들이대곤 시공관 앞에다 포진, 지휘소를 만든 다음 시공관 일대의 술집, 카바레등을 뒤졌지만 역시 허탕이었다.

그때 중부경찰서 L경감이 지휘를 받으며 경찰기동대가 동원됐다. 그러나 주먹 숫자는 경찰의 3배나 돼 자칫 경찰과 흥분한 주먹간에 충돌위험마저 없지 않았다. 해서 L경감은 종로파에게 『청계천을 건너가란』고 권유를 해야만 했다.

惨敗한 鍾路派는 復讐戰 明洞派는 숨어 危機모면

수사과장立會아래 兩派 和解술

당시 明洞파 주먹들은 모두 지하해 골목 구석 카바레 안에 가두고 아예 불을 끈 다음 문을 잠가버렸다고 한다. 잠깐만 피하면 쌍방 사상자를 안 낼수 있었다는게 당시 S씨등 명동 실력자들의 작전이었다. 또 黃金馬車에서 종로파들을 격퇴했으니까 한번쯤 명동에서 종로파들의 체면을 세워준 셈이라는 것.

■白紙化된 주먹和解

이 「위기일발」의 접전은, 그 3일뒤에 서울시경 수사과장에 의해 三友會측과 명동측간에 화해가 이뤄져 休戰상태가 되는 듯했다.

해서 이 날밤 明洞 사보이호텔뒤 살롱에서 수사과장까지 참석하는 和解술이 오갔다.

『이, 보라구, 아우님들, 덩치 큰 다 뭐하는거야. 까더까 다 무시하고 우리 서로 오가자구. 안 싸우면 될것 아니야.』

明洞의 보스 李××씨가 이렇게 「통일와래」를 제의했고 참석자들은 기분 좋게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명동에서 화해 술을 마신 주먹 보스 가운데 아오마쓰는 기분이 좋아 당에로 『종로부대에서 한잔 내겠다』고 해 그길로 黃金馬車로 자리를 옮겼다. 이 자리엔 역시 시경 수사과장이 참석했다. 明洞파의 李××, 중앙극장파의 鄭모, 소공동의 대한상업협회장 洪모씨등 명동연합세력의 보스들과 종로연합의 三友會 보스들이 참석했는데, 당초 시경 수사과장 중재 아래 합의를 보던 때부터 李丁載의 종로4가 부대에선 李丁載 대신 중간보스 Y씨가 참석하고 있었다.

30분쯤 술자리가 익어갈 때 Y씨가 李丁載에게 『화해가 잘 이뤄져 술을 마시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자 李丁載는 『누가 李××하고 종로바닥에 와서 술을 마시라고 했어. 정신 있어, 없어!』하는 벼락이 떨어졌다.

Y씨는 사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느끼고 술자리로 돌아와 洪모씨로 하여금 일행과 술자리를 소공동 쪽으로 다시 옮기도록 귀띔했다.

이들이 黃金馬車를 떠난지 얼마 안돼 4가 주먹 행동대 30여명이 들이닥쳤고, 주먹 화해는 단 몇시간 사이에 백지화돼 버렸다.

55년 주먹사대엔 날고 뛴다는 주먹들이 득실거렸다. 극장·시장·유흥가등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깡패」는 없는 곳이 없었다. 고교·대학등 학원에도 학생 깡패들이 숱하게 많았다.

이들 조직의 폐해가 국회에서 문제가 되기까지 했던 말세병적 증세가 만연했다.

李丁載사단은 병력을 더 키우기 위해 물 불을 모르는 신흥 깡패들을 발굴해갔다.

■全國 주먹거느린 丁載

H고교 럭비선수들 중심의 아현동 굴레방다리파에서 황소·혼란이·면장·깜둥이·장다리·영국신사등의 별명을 가진 20안팎의 주먹들을 데려왔고, 모대학교의 구로와시(검은 독수리), 이시마쓰, 釜山에 가있는 뱀대가리등등도 李丁載 사단으로 끌어들였다. 뱀대가리(S군)는 한번 물면 몸뚱아리가 떨어져 나가도 놓지 않는 독종이란 뜻에서 붙은 道號. 서울상대 재학중인 「낙화유수 2세」는 뱀대가리와 쌍벽을 이루는 독종—이들 외에도 무수한 주먹들이 李丁載사단에 들어왔고 그중 별동부대는 권총·지프·오토바이로 무장하기도 했다.

丁載는 전국의 주먹을 거느리고 한국의 頭山滿(日本의 정치깡패 두목)이 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명치유신을 배먹한 협객의 두목으로 조직이 전국적이었음.

58년에는 주먹들의 난투가 극에 달했다. 忠正路의 도끼사건이 발생,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던 것도 이때였다.

아오마쓰管轄 백운장 카바레 광화문 주먹들이 急襲

◇59년 4월 종로1~3가 아오마쓰 (본명 沈××) 파의 부하들이 현장에 연행됐다.

북아산 밑에 있는 카바레 백운장 기도 5명을, 하수구로 기어들어간 13명의 주먹들이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때려 뉜 나와바리(관할구역) 싸움이 터졌다.

5명의 기도들은 아오마쓰의 종로사단 주먹들이고 13명의 침입자들은 C씨의 광화문사단 주먹들이지만 동시에 모두가 다 화랑동지회 소속이다. 화랑동지회는 이 사건 직전에 三友會를 해체하고 새로 조직한 종로연합세력.

백운장 관할을 아오마쓰가 해왔는데 광화문C파는 아오마쓰의 종로1~3가엔 『먹을 것이 많으니 백운장을 넘겨달라』고 해서 李丁載가 이를 수락했던것. 그러나 아오마쓰파가 여전히 백운장을 점거하고있자, 이 날 침입사건을 저질렀던것.

明洞과 鍾路1가 師團이 合勢해 丁載師團 섬멸戰

大統領은 特別談話발표, 주먹보스들 잡아

백운장 칼부림에 아오마쓰는 크게 분노, 즉시 가족회의를 열고는 명동의 주먹보스 李××와 연합세력을 구축했다. 가장 치열한 접전상대였던 명동파 종로1가사단이 화해의 술잔을 높이 돈 것이다.

그리곤 두 연합파는 58년 9월14일 저녁8시께 무려 42대의 지프와 도끼로 무장하고는 종로4가 李丁載사단 섬멸전에 나섰다.

李丁載의 형이 경영하는 苑南카바레와 광화문 C의 집이 있는 금천동과 서대문파 보스 崔모씨집으로 쳐들어 갔다.

모처럼이 이들의 침입처마다 꿋꿋했다. 지프가 질주했다.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신문들은 「무시무시한 폭력—서울거리는 공포에 떨다」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그 이틀날 특별담화를 발표, 주먹보스들을 잡아들였다.

李××씨등 明洞파 주먹보스들을 비롯해 중간보스·행동대원들이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 덕분에 이들은 4·19때 붙잡혀 5·16후 처형된 4가의 주먹사단 보스같은 운명은 피할수 있었다는 주먹史의 아이러니를 남기기도 했다.

6·25직후 미군들이 쓰다가 팔아치운 각종 물품들을 불하받는 建中친목회라는 단체에도 장안의 내노라하는 주먹들이 진을 쳤다.

■인텔리 주먹 洪

막대한 불하 잇권을 놓고 주먹실력들이 대결하던 단체 발족의 청사진은 金斗漢씨가 만들었다.

불하품중엔 탱크·트럭·지프에서 버터·치즈에 이르기까지 없는게 없을 정도.

이 단체에 金斗漢씨 제의를 받고 뛰어든 사람이 洪××라는 「인텔리 주먹」. 洪씨는 라이트 스트레이트가 살인적인 강펀치에 양발차기 솜씨가 飛鳥를 방불케 하는 「1대1 맞상대」의 패권자—.

싸울 때 그는 한 주먹으로 상대를 끝장내버리는 怪拳이라서 별명이 잇찌(一字)라고했다. 그러나 외모는 돗수 높은 안경을 낀 학자 모습인데 실제로 머리가 좋아 44년 京畿高를 나왔고 6·25때 延禧大정외과 4년이었다.

그의 영어실력은 뛰어나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교육총감 영어통역을 맡았을 정도다.

洪씨는 延大3년재학때 캠퍼스의 주먹왕이자 당시 국가대표 웰터급선수로 헬싱키 올림픽에 출전했던 朱모씨와 찌꼬리동산(延大뒷산)에서 대결, 한방에 때려뉘고 「형님」으로 추대됐던 인물.

해방후엔 延大학생운동의 리더로 학생회 감찰부장을 지내면서 80여명의 대학주먹의 총수였다.

그런 洪씨는 K모씨가 建中의 감찰부장으로 앉은 뒤 얼마있다가 감찰부·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몇달뒤 감찰부의 내분이 생겨 金斗漢씨의 K부장에 대한 총격사건이 있었고 K씨 퇴진후 洪씨는 감찰부를 맡았다.

어쨌든 「建中엔 먹을게 많다」는 소문이 주먹사회에 번져갔다.

洪씨는 주먹으로 建中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맡고있었는데 어느 날 15명의 이름난 장안 주먹들의 호출을 받았다. 소공동 코스모스다방에서 15명의 怪力의 사나이들과 마주 앉았다.

15명중 대표적인 崔모씨가 『우리도 주주로 들어갈테니 배당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왔다.

洪씨는 피를 볼것이냐, 굴복해야 할것이냐의 결단의 순간이다.

美軍需品불하 利權獨占업체 建中親睦會 먹을게많자 長安의주먹들 攻防戰

洪씨의 얼굴을 다시 살펴보았다. 서울 8개 주먹사단의 하나인 왕십리사단의 보스로 崔의 부하는 1백명이 넘는다. 崔씨 옆에는 쌍권총의 명수 상하이·조—. 해방후 金斗漢씨의 휘하에서 반공주먹으로 쌍권총을 휘두르며 돌격대장을 했고, 해방전엔 중국에서 무협생활을 했던 공포의 인물.

■"배당금 내놓으라"

그 옆엔 「金斗漢16명동지」의 하나인 최고의 자전 참모 K씨—. 또 그옆의 L씨.

L씨는 高大씨름선수이자 최고의 캠퍼스 주먹이다. L씨 옆엔 장안의 주먹가운데 최대의 巨人인 키 1m90㎝가량의 「삼손」 K씨.

삼손 옆엔 왕십리사단장 崔씨가 「형님」으로 대우하는 T씨등등….

洪씨는 결단의 목이 죄어들어갔으나 『못하겠어. 할테면 하자구!』

당돌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15명의 怪傑주먹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바람에 테이블이 벌렁 나자빠졌다. 洪씨가 재빨리 다방을 나가고 15명이 뒤를 쫓는데 다섯발의 엽총이 위협사격을 가해왔다.

洪씨의 부하 5명이 사냥복 차림을 하고 달려나와 洪씨를 구출해갔다. 이들 부하는 建中사무실에서 사냥을 떠날 준비를 한 사람처럼 위장, 무장경비를 항상 하고있었다.

建中은 이 사건말고도 숱한 주먹들의 위협과 협박을 받았다. 해서 더러는 위험세력 보스를 建中고문으로 추대하고 이익금 일부를 보내기도 했다.

때론 주먹 가운데 입찰을 뭍어오겠다고 아우성을 치기도 했고, 이 때문에 洪씨가 「형님」인 明洞의 보스 李××씨에게 도전, 建中감찰부의 S씨가 수류탄을 들고 갔다가 던질수가 없어 화장실 속에 던져 폭발하는 바람에 S씨자신이 중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李丁載주먹사단의 建中파견원들은 4명. 이들은 배당금을 타면 보스 李丁載에게갖다 바치고 하사하는 액수를 받았다.

■美軍도 혼이 나

그러다 욕심이 생겨 보스에게 바치기 전에 가로채고 그돈으로 자기 부하를 키워 4가本家를 공략한 중간보스도 나왔다.

建中의 불하 독점솟법은 미군측에서 볼때 강도짓과 같았다. 미군불하측으로서는 입찰경쟁을 시켜 최고값에 팔수있는 것을 建中주먹들이 싼값에 떼어가니 말이다.

그래서 라이언소령이 두명의 미군헌병과 함께 洪씨 사무실을 급습했다. 라이언소령은 2차대전 직후 西獨에 주둔했던 헌병으로 문관다. 한국인 통역관이나 문관을 폭행하면 권총손잡이로 내리치는 난폭자로 악명높은 인물.

洪씨에게 권총을 들이대고 두손을 번쩍들게 한다음 『갓댐 유』—. 마피아보다 흉악해 보여서 조사하겠다는것.

洪씨는 따라나섰다. 호리호리한 몸매에 여자같은 얼굴, 게다가 안경까지 쓴 洪씨가 두손을 들고 앞장서 사무실을 나서자 라이언소령은 얕잡아보고 권총을 집어넣고 뒤따라 발을 옮겼다.

그 순간— 洪씨의 비호같은 오른발이 라이언 소령의 턱으로 날았다. 라이언소령은 그 자리에서 큰 大字로 누웠다.

쌍방 문이 후다닥 열리면서 5명의 「사냥꾼」이 뛰어들었다. 3명의 미군헌병이 손을 번쩍 들었다. 무장 해제까지 시켰다.

京畿·延大출신 速拳 洪이 主導權장악 주먹部隊들의 숱한 挑戰 맥 못추게해

『미군헌병이 한국민간인을 수사하는것은 불법인줄 아는가.』—되레 큰소리를 친 洪씨. 권총을 돌려주자 미군들은 얼굴을 붉히며 차를몰고 돌아갔다. 어쩐일인지 우려했던것과는 달리 이후 미군헌병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洪씨가 建中회장에 선출된 뒤 이 단체이름을 大韓實業協會로 바꿨다.

建中시절의 세력판도는 주먹의힘 외에 金昌龍의 특무부대 입김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데, 506특무부대 金모씨(일명 고수머리)가 洪씨와 명령을 받은 「청권尹」에게 몹시 두들겨 맞고 사건이 복잡해져 洪씨는 한때 궁지에 몰렸었다.

大韓實業協會에는 다소 부작용이 있더라도 달러유출을 줄이기 위해 존속돼야한다는 명분이 통해,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洪씨 주도아래 새출발을 했는데, 몇달뒤 특무대장 金昌龍소장이 총을 맞고 숨지자 특무대 배경을 잃고 다시 주먹부대들의 도전을 받았다.

永登浦에 있는 영국군부대의 지프 1백대 경매에서 벌어진 정양원·대원 60여명과의 유혈전은 대표적인 싸움 城戰이었다. 크고 작은 싸움때마다 洪씨는 상대편 선봉장을 먼저 때려 누임으로써 적의 銳鋒을 꺾고 공격을 맥 못추게하는 戰法을 썼다.

洪씨는 내부적으로 숱한 경쟁상대를 다스려 평정했고, 외부적으로는 강적들과 一戰을 불사하면서 모조리 퇴치시켜 주먹과 지략을 4·19직전까지 장안에 떨쳤다. 주먹계의 최고의 頭腦였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고, 막대한 액수의 달러유출을 막은 공로의 주먹이었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도 전해진다. 〈張榮澤기자〉

문지기

얘기의 샘

어느 술집에 한 거한(巨漢)이 들어와, 바텐더에게 말했다.

『문밖에 문지기채용이라 써 있는데, 내가 어때?』

『경험있읍니까?』

『없는데. 하지만 내 실력을 보여주지』라면서 그는 한쪽에서 술에 만취돼 있는 한 사내에게로 뚜벅뚜벅 걸어가, 그의 멱미를 잡아 쉬더니 휘 창밖으로 내 던지고 손을 툭툭 털며 돌아서면서

『어때? 이만하면』

『대단하십니다』

『그럼 날 채용하는거지?』

『예예, 하지만 나도 고용인이라서…. 그러니 우리 주인에게 말하시오』

『주인은 어디있어?』

바텐더는 문밖쪽을 가리키면서

『밖에서 지금 허리를 문지르며 이리로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주인이요』

海外걸작漫畫

『당신이 샀다는 그 소형 카메라를 보여줘요…』

"Let me see the miniature camera that you bought…"

주간女性

接姦禁令

한국의 妓生

글 全完吉
그림 李良友

조선초기, 世宗때엔 官吏의 官妓接姦禁令이 있었다. 그러므로 관리가 마음만 먹으면 官妓와 同宿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왜 禁令이 흐지부지되어 大小使客이 宴會에서 官妓와 동침하고, 父子·兄弟가 한 기생과 관계하게 되었으며, 모녀·자매 기생이 같은 남자와 관계하는 패륜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알아보자.

❤妓女同宿俗의 古今

邊方妓의 설치목적이 將卒의 위안에 있었지 大小使客 接待에 있었던 게 아니다. 外國使節이라 하더라도 音樂人으로서 연회에만 동원되었다. 더구나 京妓는 관리가 同宿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금령이 어느새 유야무야되었다.

조선의 관리는 古例를 준수하는데다가 國喪때 喪服을 입는 기간을 두고 논쟁하다가 黨派를 형성할 정도로 법규를 잘 지키고 관례를 무척이나 존중했다.

그럼에도 왜 官妓接姦禁令만 준수되지 않고, 부자·형제·동료가 같은 기생과 관계하는 수치스런 타락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런 금령을 지키는 자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금령을 어겼다 하여 굳이 파내는 자도 거의 없었다.

법적으로는 관리가 기생을 接姦할 수 없었음은 물론 禮曹의 관리는 특히 직책상 관기와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 이런 관례를 어긴 관리들의 고민이 李陸(1438~1498)이 쓴 <青坡劇談>에 잘 묘사되어 있다.

朝鮮朝 초기엔 관리의 官妓姦淫을 法으로 禁하였고

어떤 禮曹 堂上官이 전에 京妓와 私通한 일이 있어 고민하던 끝에 郎廳에게 걱정을 털어 놓았다.

『예조의 관리가 경기와 사통했다 하면 여론이 어떻겠소?』

그 낭청 역시 경기와 사통한 죄가 있는 자여서,

『外方관리와 견주자면 예조의 당상관은 監司와 같은 서열이고, 낭청은 首領官과 같습니다. 감사와 수령관에게는 스스로 잠자리에 드는 房枕 기생이 있는데 무슨 물의가 있겠습니까. 단지 관습상 都監의 관리는 守令과 같으므로 기생과 通情할수 없는줄로 압니다』하였다.

이 말을 듣고 당상관이 기뻐하면서

『그대의 말이 옳소』하였다.

당상관과 낭청의 대화를 보면, 이미 官妓接姦禁令이 잘 준수되지 않았지만 禁令을 어긴 죄책감에 불안했던 당시 관리들의 모습을 엿보게 된다.

그러나 李墍의<松窩雜說>에는 이와 판이한 관리들의 풍속도가 소개되어 있다.

—祖宗朝에는 六曹에 숙직하는 郎官들이 달밤에 娼妓들과 어울려 광화문 밖에 모여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되 밤새도록 마시며 담소하던 태평성대의 풍속이 있었다. 육조의 낭관만 그랬던것이 아니라 諫院의 관원들도 이러저러한 구실로 모임을 만들어 그와 같이 놀았고, 入直하는 밤에는 반드시 기생을 끼고 잤다. 새벽녘이 되면 아전이 창밖에서 뵙기를 청하는데 이는 계집을 일찍 내보내려고 그러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 인심이 점차 박하여지고 禁法이 차츰 세밀하여져서 육조에 上直하는 풍습이 아주 변하고, 사간원에서 밤 놀이하던 것도 또한 없어졌다.

시대로 따져 보면 관리의 接姦禁令은 世宗初에 내려지고, 成宗代에 잘 준수 되지 않다가 中宗代에 완전히 유야무야 된것으로 추측된다. (中宗의 前代인 燕山王 治世에는 모든 妓生을 王의 소유라고 선언, 관리가 기생을 私有할수 없었음은 물론 同宿도 嚴禁 되었다. 이와 달리 中宗은 妓生 숫자를 줄이고, 그자신이 기생과 관계를 회피 하였으며 관리들이 接姦 하도록 許與하였다. 太平盛代라고 칭송되던 世宗·成宗 治世를 모방하여—)금령이 그토록 준수되지 않은 배경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선 그 복잡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李成桂의 고조부 穆祖(?~1274)는 官妓와 사랑에 빠져 고향을 버리고 삼척으로 이주하였다. 全州에 살던 무렵 그가 사랑하는 官妓를 관찰사가 수청들라 하였다.

이를 안 목조가 밤에 객관 서쪽 방으로 가서 기생을 나오라 하였다. 기생이 벌벌 떨며 일어서자 관찰사가 노하여 종자를 불렀다. 목조는 장막 속으로 들어가 칼로 관찰사를 찌르고 기생을 말에 태워 그 길로 달아났다. 삼척에 도피하여 살려했으나 칼로 찌른 관찰사가 按廉使(조선의 觀察使)로 부임해 온다는 말을 듣고 다시 慶興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정착했다. <五山說林草藁>

그런가하면 世祖는 首陽大君 시절에 妓房출입이 잦았다.

나이 14살때 어떤 창녀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그녀의 애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었다. 수양대군이 놀라 일어나 발로 뒷벽을 차니 벽이 쓰러져서 밖으로 나와 몸을 솟구쳐 무너질 되는 담을 뛰어 넘었다. 그 사내가 쫓아와 그담을 넘었다. 성을 뛰어 넘으니 역시 따라 넘었다. 대군이 큰길을 따라 1리쯤 달리다가 길가에 속이 빈 버드나무가 있어 그곳에 얼른 숨었다.

대군의 종적을 잃은 그 사람이 욕을 하면서 돌아가는 바람에 위기를 면했다. 얼마 뒤에 점잖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다릿가에 오줌을 누면서 별을 쳐다 보더니 『紫微星이 柳宿(유수)를 거쳤으니 임금이 버들에 의지한 상이다. 이상한 일이로군』하고 들어갔다. <五山說林草藁>

기이하게도 목조나 세조가 기생을 쫓은 발선이 허물이 아니고 王業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官妓接姦은 죄이되 칭찬할만한 죄라는 얘기다.

中宗땐 死文化…六曹郎官들 밤마다 娼妓와 어울리고
大臣들 痴情싸움…탄핵하는 諫官들 犯色케 해 입막아

❤大君·駙馬의 接姦

官妓接姦禁令을 어겼더라도 처벌하기 곤란한 예가 있다. 王弟·宗室·駙馬가 금령을 어겼을 때이다. 世宗면전에서 여러 신하들이 讓寧大君의 허물을 들어 論罪를 주장했다.

『양녕대군은 東宮으로 있을 때 太宗이 平康에서 군사를 훈련하므로 의당히 侍從해야함에도 병이 있다는 핑계로 불참하고 혼자 금천에서 사흘 자나 사냥하고 돌아왔읍니다. 또 娼妓에게 빠져서 병을 핑계삼아 侍宴에 자주 불참했읍니다. 또 4월8일 이면 담을 넘어나가서 무뢰배들과 어울려 팔매질로 燈을 떨어뜨리는 장난을 합니다. 또 거리에서 비파를 타기도 합니다. 밤이면 궁중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雜戲를 하기도 하며, 中樞府使 郭璇의 첩이 마음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그녀를 간음하고 궁중에까지 데려온 일도 있읍니다. 또 廣州로 귀양갔을 때는 담을 넘어 그 고을 기생을 무명이나 간음하였읍니다.』<海東野言>

기생을 接姦한 죄목만은 아니지만 양녕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세종은 무시해 버렸다. 駙馬가 금령을 어긴 사건도 있었다.

太宗의 駙馬 會川君(회천군·淑安옹주의 남편, 세종에게 매부가 된)이 중국을 갈 때 同知 曹智敏이 大護軍으로서 따라갔다. 기생을 데리고 가다가 압록강에 이르러 눈물을 흘리자, 수행하던 서리도 덩달아 울었다. 이를 본 조동지가 서리를 발로 차면서 『君이야 기녀를 사랑하고, 기녀도 군을 사랑하니 이별하는 마당에 눈물을 흘릴만 하지만 너는, 왜 우느냐』고 나무랐다. 회천군이 이 말을 듣고, 조동지를 나무란다.

『호군은 어찌 생각이 그리 옹졸하냐. 내가 우는 뜻은 위로 전하가 계시고 아래로는 옹주가 있는데 멀리 떠나게 됨에 그리워서 그러는것이다. 기녀를 생각하는 뜻이야 없지 않지만 기녀 때문에 내가 운단 말이냐.』

그러자 조동지가 정색을 하고 『그러시다면 울음이 조금 늦었읍니다. 진작 都門에서 울어야지 하필 이곳에서 우십니까』하였다. 이말에 회천군은 곧 눈물을 거두고, 없던 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青坡劇談>

❤成宗의 威女性鑑別

世宗은 妓女를 첩으로 삼을 수 없었던 禁法을 깨고, 기생을 관리에게 아예 주기까지 하였다.

金何(?~1462)가 判中樞院事가 되었을 때 鹿鳴兒라는 기생을 사랑했다. 그런데 김하외에도 宗室 한 사람과 都承旨 한사람 역시 녹명아와 通情하였기 때문에 사랑싸움을 하고 있었다. 이를 안 세종이 자기가 먼저 녹명아를 사랑했노라고 주장하는 종실을 불렀다. 『나라에 너 한 사람 있고 없는 것은 별 관계 없으나 김하는 중국말을 잘하여 중국과의 외교에 없어서는 안되는 사람인데다가 김하에게 아들이 없으니 첩을 주려 한다. 네가 계속 사랑하려는 욕심을 한다면 죄를 주겠다』하고 다시 도승지를 불러 단념시켰다.

그렇게 해서 김하가 녹명아의 정식 단골이 되었는데 喪中에 그의 첩에 드나들다가 司憲府의 탄핵을 받게 되었다. 喪中에 禁姦을 어기면 大罪였으나 세종은 모른체 하라고 사헌부에 명령했다. <燃藜室記述>

이러한 전례가 있고보니 世宗이나 成宗이 接姦禁令犯色者를 처벌할 수 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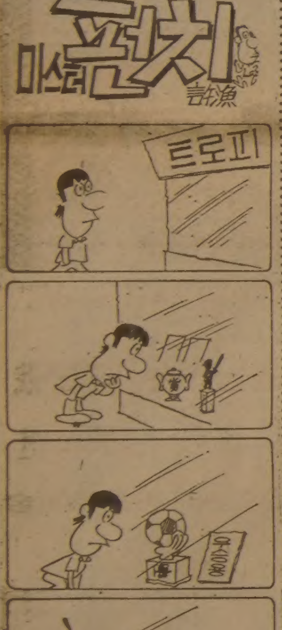
특히 成宗은 관리들에게 관대했고, 그 자신이 好色했으며 性醫學에 남달랐다.

後娶한 선비가,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혼하겠다고 청원했다. 성종이 내시를 보내 여자집의 방 생김새를 그려오라 하였다. 침실 옆에 높은 다락이 있음을 본 성종이 이렇게 회신했다. 「가을 밤(栗)은 때가 되면 벌어지는 법이니 그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사람들은 높은 다락이 침실에 이어 있어 어릴 때 오르내리다가 부딪쳐 그리 되었을 것이라며 임금의 판단은 보통사람이 감히 따르지 못하겠다고 혀를 찼다는 것이다. <五山說林草藁>

뿐아니라 犯色者를 탄핵하는 諫臣을 나무라고 色鄕에 보내 그 관리가 犯色하도록 한 성종이니 接姦禁令이 유야무야되고, 成宗代에 이러한 慎行이 지금까지 남아 姦通한 자가 처벌받더라도 큰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다음호에 계속>



力学요법 난치질환에 효과있다

鄭一韓씨 3년전개발 病者들에 好評받아

手技療法연구가로 韓·日간에 이름이 알려진 鄭一韓씨(48·韓國整體協會會長·德壽院院長)가 새로 力學療法이란 특수치료법을 개발, 內科질환과 視力교정, 각종 마비치료에서 놀라운 효과를 거두고있다.

◇『각종 난치병 원인은 척추의 이상에서 생긴다』는 이론에 따라 새로 力學療法을 개발해낸 鄭一韓씨(왼쪽).

半身不隨를 研究하다개발 視力향상에도 놀라운效果

鄭씨가 力學療法을 개발한 것은 3년전. 절름발이, 半身不隨, 複關節異狀환자를 치료하기위해 양쪽다리의 불균형을 교정하다가 다리 저는것이 나아짐에따라 의외로 내장기능과 감각기능이 동시에 좋아지는것을 보고 힌트를 얻어 연구·개발했다고 한다.

鄭씨가 말하는 질병 발생순서는 좌우다리각도의 불균형—골반의 경사—척추의 휘어짐—척추신경筋의 압박—내장기능의저하—감각기능(視力·聽力·후각·피부등)의異狀발생, 따라서 질병의 기초원인이 되는 다리의 각도와 길이를 바로 잡아주면 모든 난치병은 자연히 치유된다는 것이다.

『각종 호흡기, 소화기 계통의 질병과 마비증세환자는 다리길이와 각도에 이상이 있다』는 전제 아래, 그 진단법과 교정법을 알아보면—.

◇바로누운자세에서의진단법

첫째, 양다리를 15도 가량 자연스럽게 벌려 어느쪽 다리가 바깥 또는 안쪽으로 쓰러지는가를 확인한다. 둘째, 이때 바깥쪽으로 더 쓰러진 발을 안쪽으로 쓰러뜨려 보면 다른 다리보다 더 저항을 느끼고(外轉), 반대로 바깥쪽으로 덜 쓰러진 발을 바깥쪽으로 쓰러뜨리면 역시 다른쪽보다 더 저항을 느낀다(內轉). 이중 外轉하는 다리는 길어진것이고 內轉하는 다리는 짧아진 것이다.

한편 양쪽발이 다같이 바깥쪽으로 60도 이상 쓰러지는 사람은 혼합증상으로 척추가 뒤로 휘거나 옆으로 휜것을 나타낸다. 만성질병을 앓았거나 사망직전의 환자는 양쪽 혹은 한쪽 발이 바깥쪽으로 크게 젖혀진다.

◇다리 각도의 교정법

우선 왼쪽다리가 긴 경우는 왼쪽무릎을 세우며 그다리를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젖혀 고정시킨다. 이 동작을 수시로 반복한다. 오른쪽다리의 경우도 같은 요령으로 교정할 수 있다.

척추 교정법은 긴쪽 다리를 굽혔다 펴는 굴신운동을 매일 20~30분씩 계속한다. 이 운동이 거듭됨에 따라 척추나 골반은 바른 위치에 서게 되고 그에 따라 신체 각 기능이 정상화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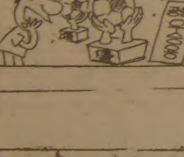
◇간단한 응급처리법

왼손잡이 교정은 왼팔을 붕대로 한달쯤 고정시키면 바른손잡이로 바뀐다. 차멀미가 날때는 엉덩이를 뒤로 내밀어 깊이 걸터앉은 다음 허리에는 핸드백등 받침을 댄다. 이어 허리를 펴고 양어깨를 뒤로 젖힌다. 다음에 왼쪽 무릎을 3~5㎝ 뒤로 뺀 후 왼발을 왼쪽옆으로 10㎝가량 내놓고 왼쪽 허벅지를 안쪽으로 비튼 형태를 만든다.

이런 자세를 갖춘뒤 반드시 왼쪽 창문을 보거나, 왼쪽 사람을 바라보면 멀미는 멎는다.

한편 左側허리가 아플땐 의자에 걸터앉아서 오른쪽 무릎위에 왼쪽무릎을 깊이 포개놓는다. 이어 오른발 뒤꿈치를 무릎보다 바깥쪽으로 내놓고 허벅지를 안쪽으로 비튼다. 요통이 멈출때까지 같은 상태를 계속한다. 오른쪽 요통이 심할때도 같은 요령을 취하면 통증이 멎는다.

鄭씨의 이같은 力學療法은 이미 다양한 치유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視力교정에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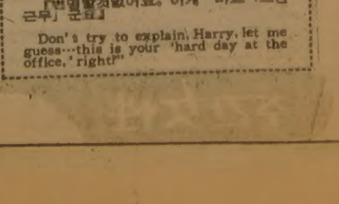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海外 걸작만화

◇내 차안, 전화벨이 울리고 있단 말예요.

◇건의함

海外걸작漫畵



『변명할것없어요. 이게 바로 「고된 근무」 군요』

Don't try to explain, Harry, let me guess···this is your 'hard day at the office,' right?"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 시카고 넘어연구원장】

LET'S TAKE A BREAK.

Body shop(차체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포에게 미국인 동료가 Let's take a break 라고 하였다。break란 단어가 들리자 brake(제동기)로 잘못 알아듣고 조금전에 브레이크를 고쳤는데 무슨 소리냐고 What's wrong with the brake? 같이 이야기를 했다。

물론 이때의 break 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아니고 「잠시 휴식시간」을 나타내는 말로서 「좀 쉽시다」의 뜻으로 미국인이 말했던 것이다。

「코피마시면서 잠깐쉬자」라고 하는 경우는 Let's take a coffee break.이고 「점심 시간을 갖자」는 Let's take a lunch break.또한「그 사람은 지금 코피마시면서 잠깐 쉬고 있다」고 할때는 He's taking a coffee break. 라고 한다。

Give ~ a break 란 「~에게 기회를 주다」라는 숙어로서 예문을 든다면 미국인 supervisor (감독자)가 한국인 종업원에게 Mr. Kim, you're not experienced enough to operate the new machine.(미스터 김, 당신은 그 새기계를 작동할 만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오) 하였다고 하자, 이때 Please Mr. Johnson, give me a break. I know I can handle it. (미스터 잔슨, 저에게 기회를 줘보십시오。제가 그 기계를 자신있게 조작할 수 있읍니다) 이같이 사용된다。

A : How long do you think it will be before we're finished with this car?
B : We've done about half of the things on the list.
A : Then we should be through in about an hour or so.
B : Shall we take a break or continue?
A : Let's take a break. I'm dying for a cold drink.
B : That sounds good.
A : 이차를 고치려면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B : 고쳐야 될것들을 적은 목록의 절반정도를 끝냈읍니다。
A : 그렇다면 한시간 가량이면 끝나겠군요。
B :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아니면 계속해서 할까요?
A : 잠깐 쉬었다가 하지요。시원한 것을 마시고 싶어서 죽겠읍니다。
B : 반가운 소리입니다。

※on the list: 명부에 기입되어. <발음>should be : 회화시에는「슈드」가 아니고 「슛」으로발음된다。결국 「슛비」

I'M BROKE.

우리말에 「나는 빈털터리」라는 표현이 있다。물론 I don't have any money. 라고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나 그네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누는 표현은 I'm broke. 이다。

「돈좀 빌려 주시겠어요!」 Can I borrow some money?라고 묻는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빈털터리 입니다」고 할때는 I'm sorry, but I'm broke. 라고 하면된다。

broke는 break (깨다)의 과거 동사이며 이때는 형용사로서 「무일푼의」뜻을갖게된다。물론 I'm broke. 는 속어이나 미국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표현임을 밝혀둔다。

borrow란 "상대방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뜻하고 이와 반대인 경우 즉"상대방에게 빌려지는것"일때는 lend를 사용한다。예컨대 「당신에게 돈을 좀 빌려 드리겠읍니다」라는경우는 I'll lend you some money. 한다。

buck이란 전형적인 미국 속어로서 달러를 가리키며 복수인 경우는 s를 붙여 bucks라고 한다。「이 시계를 10불주고 샀다」는 이야기를 buck를 넣어 옮겨본다면 I paid ten bucks for this watch. 라고 한다。

A : May I borrow some money?
B : I'm sory, but I'm broke. How much do you need?
A : Only tew bucks.
B : I can lend you that.
A : Oh, thanks. I'll pay you back tomorrow.
B : There's no hurry. You can pay me back when you get paid.
A : 돈을 빌려주시겠어요?
B : 미안합니다만 전 지금 빈털터리입니다。얼마가 필요하신데요?
A : 2달러밖에안됩니다。
B : 그정도야 빌려드릴수 있지요。
A : 감사합니다。내일 갚아드리겠읍니다。
B : 서두르실 필요없읍니다。급료를 받을때 돌려주시면 되니까요。

※pay back: 돈을 갚아주다。
【발음】some: 단어하나만 발음할때는 「썸」, 문장속에서 회화체로 발음되는경우는 「쏨」이라고 발음된다。Would you like some coffee?「우쥬라익 쏨 coffee?」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카세트 : 1권용(33불) 2권용(38불) 3권용(38불)
비디오 : BETA(60불).
VHS(65불)
※U.S. 마니오더에 한합니다.

민병철생활영어
책、카세트、비디오

連載小說

스물세살의 자서전

—人間市場—

金洪信 作
崔然石 畵

(64)

지난 줄거리

은밀한 전사를 맡기는 서여사 발을 노크한다。두 사람을 놀라게 한 뒤에 서여사를 숨기고 고수머리를 낚아채서 남자 제비족들이 바람난 여자를 뜯쳐먹는걸 캐낸다。서여사는 걸핏바람에 도망가버린다。총찬은 서여사를 불러내려 했지만 급한 사정으로 내일 만나기로 한다。총찬은 내일 졸업식에서 어머니를 흐뭇하게 하기 위한 연극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산을 떨었다。졸업식은 오전 11시부터니까 집에서 10시께에 나가도 충분했다。

『미리 가자。차라도 막히면 어쩌나? 지하철인가 뭔가 땜에 길이 막힌다더라。어서 가자。』

『아침 드시고 천천히 가도 돼요。제가 모시고 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은주 누나도 덩달아 새벽바람을 쐬어야 했다。머리손질이며 옷 입는 것까지 간섭하고 나섰다。

『저는 먼저 가야 돼요。상받는 사람들은 예행연습해야 하니까요。』

『그래、너 먼저 가야지。어서 나가라。』

『밥먹고 가야죠。』

『일찍 가는 게 좋다。이거 갖고 가서 학교 앞에 가서 고기를 잔뜩 먹고 들어가거라。』

어머니는 돈을 꺼내놓았다。자식이 졸업식장에서 큰 상을 받는다니까 정신을 못차리는 것 같았다。

『잘 어떻게 키운 줄 알아? 승질 급한 재 애빈 일찍 가버렸지、가진 재산은 없지。재 애비 살아있어봤자 내 속만 드글드글 썩혀서 지레 죽었을지 모르지만…그 영감태기 살아 있으면 이럴 때 좋으련만。다 그놈의 승질 급한 사주팔자지。저저 하나 믿고、자식이라고 달랑 하난 걸 다른거 명물자나 있어야지。대학교라고 보내놓고는 기차만 지나가면 우리 아들 있는 서울 가는 기차구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기차가 아래역으로 내려가면 이 놈이 왔나부다 싶어서 버선발로 역전으로 뛰고、행여나 눈뜨고 있어도 코 벼간다는 서울에서 제 애비처럼 몹쓸년들 만나 허리 부러진거 아닌가 싶어 할미만신 데려다가 우리 대주 보살피사 하느라고 없는 뒤주 퍼내고 했지。』

아버지가 서울 새시 때문에 허리 다친 일이 있어서 걸핏하면 서울 계집애들 잘못 만나면 허리 부러지는 거라고 엄포를 놓곤 했었다。

『내 속으로 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저놈은 속한번 안썩였지。다른 집 자식들 쌈질하고 쌀 퍼내고 지랄발광할때도 저 놈은 예미 불쌍타고 꼴 걸어오고 걸레질하던 애였지。다른집 자식 열이면 뭐혀 우리 아들 하나가 그런 자식을 열배는 나은걸。동네서 자자했어。효자났다구。지금까지 속한번 썩은적이 없으니까。내 속으로 난 자식 자랑하는거 아니라지만…사실이 그러니까 그런거지。이날 이때껏 애미 거역하는 걸 봤나、남의 새끼들처럼 계집애 끼고 풍증든 사람처럼 덜렁거리고 다니길했나。제가 여태 계집애 하나 없어。즈이 애비같으면 난장이 나도 백번은 더 났겠지만、우리 가문이 즈이 애비네하군 상대도 안되지。』

『그러게 핏줄은 못속인다잖아。외가쪽 피를 받아서 재가 저렇게 얌전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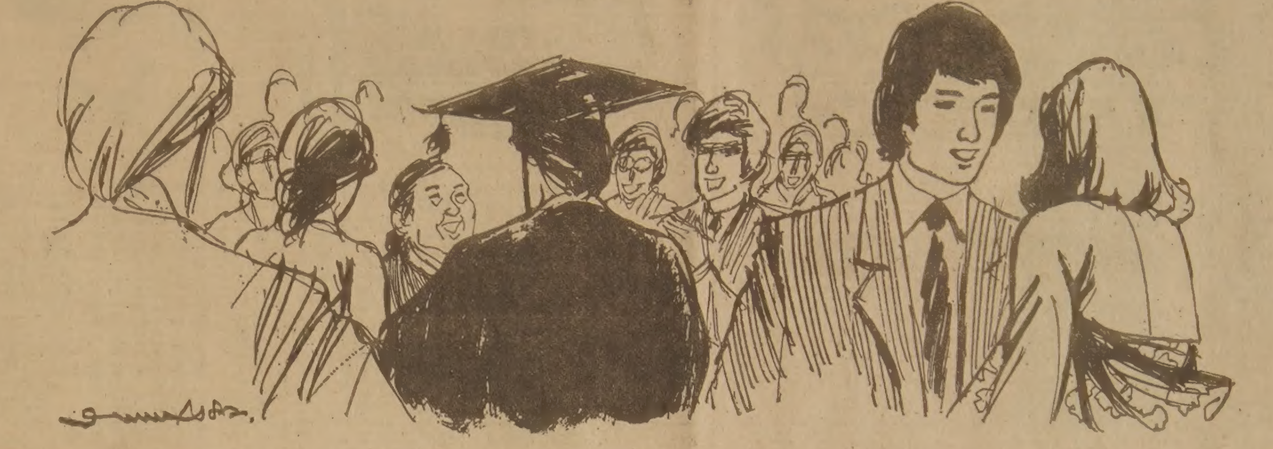
어머니는 아직 일찍부터 은주 누나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다。천하에 나처럼 속 썩힌 자식을 두고 동네에서 효자 났다고 소문났다니。그리고 아무리 어머니지만 쌈질하는 것 한번 본적이 없다는 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싸움질이라면 머리가 터지게 했었잖는가。그것도 어머니의 극성스런 독려를 받으며 닥치는대로 동네 꼬마들을 휘어 잡지 않았는가。가출한 횟수를 어머니는 단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다。내게 걸핏하면 가출한 횟수를 가지고 나무라곤 했었다。

그런 어머니가 지금 은주 누나에게 썩 세련된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은주 누나는 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다。속이 빤히 보이는 짓들이었다。

『같이 있어 봐서 저도 알아요。요새 학생같잖아요。늦게 들어오는 경우는 한번도 못봤어요。들어오면 제 방에 틀어박혀서 그저 공부예요。몸 상할까봐 제발 쉬었다 하래도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꼭 성공해야 된다며 밤새기 일쑤라니까요。정말 효자지요。저런 애가 성공하지 않고 누가 하겠어요。제네 학교 교수님이 찾아와서 훌륭한 아드님 두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존경을 하고 싶대잖아요。』

『그럴 거란 걸 나두 알고말고。제가 어떤 앤데。재 가질 때 용꿈을 꿨는데、우리 뒤뜰에 있는 큰 대추나무 가지에다 여의주를 물어다 놓고 갔잖아。시어머니가 어찌나 극성스럽던지 꿈에서 마저 그걸 가져가려고 해서 내가 악착같이 꿀고 늘어져서 뺏었다니까 그래。』



어머니 모셔다 卒業式 연극벌여 總長賞、상장등을 받고

너같은 孝子열명만 있다간 이놈의 學校 난장판 되겠다

어머니의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되었다。나는 얼굴이 간지러워서 더 들을 수가 없었다。그래서 은주 누나에게 슬쩍 다혜 얘기를 꺼내라는 눈치를 보냈다。

『아주머니 이젠 총찬이도 장가갈 나이가 됐잖아요。』

『옛날같으면 호패 찰 나이지。보내야지。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 거니까。시어머니한테 지긋지긋하게 시집살이를 해서 며느리 얻으면 절대 안시킨다고 결심했지。』

『그래서 제가 중신을 설까 하구요。』

『아이구 고맙기도 해라。이렇게 얌전한 색시가 한다면야 백번이라도 믿지。그게 누군데。』

『총찬네 집안이 어떤데 함부로 하겠어요。』

『그럼 그래야지。말이야 바른 말이지 재네 집안도 우리만은 못해도 보통집안은 아니라구。』

어머니는 대번에 열을 받았다。

『참한 색시감이 있어요。집안도 좋고요。인물도 괜찮은데다 교육자 집안이라서 교육 잘 받은 규수지요。간호대학을 나와서 어머님 모시기도 편할것 같고、그래서 총찬이한테 한번 보자니까 머리를 살래살래 흔들어요。어머니가 승낙하지 않으면 싫다는 거예요。요즘도 저런 남자애가 있나 싶대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착했다니까。』

『그래서 아예 어머님 올라오신 김에 만나자고 했어요。졸업식장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이따 보시죠。』

『잘됐네、잘됐어。』

은주 누나는 내게 윙크를 했다。나는 웃기만 했다。

『저놈이 장가 보낸다니까 좋기는 좋은 모양이네。』

나는 부끄러운 척 했다。어머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하나님、우리 어머니를 용서 하세요。공갈 치는 거 아니라구요。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짜가지사를 잊어버리는 수도 종종 있는 거예요。어머니 눈엔 자식 하나 있는 거 착해 보이지도 할 거구요。

오늘 일어나는 사태는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그러나 고생한 우리 어머니를 편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해하셔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녀석들을 만났다。준비가 잘 되었는지 싱글거리고 있었다。

『준비완료다。총감독 말대로 움직이기만하면 돼。주임교수더러 느이 어머니한테 큰절 한번 해달랬지。내가 시키더니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식식거리더라。그 영감、제자 잘 둬서 잔디밭에서 큰 절 한번 하게 생겼다。』

『이름 부를 때 무조건 일어설때니까 그때를 놓치지 말고 사진박아대라。우리 어머니한테 저게 나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상장하고 상패、트로피는 끝나고 주래? 눈치 챘다간 신문 가십란에 네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날지 몰라。』

『좌우간 총감독 지시대로만 움직여라。은주 누나하고 사이가 알맞았다간 나라 치른다。』

『준비 완료다。걱정마라。너같은 효자 열명만 생겼다간 이놈의 학교 졸업식이 난장판 되겠다。』

『오늘만 봐주라。』

『끝나면 한잔 빼지지근하게 사는 거나 잊지 마라。』

오늘 나는 터무니 없이 총장상을 받게 돼있었다。정식으로 대학교 측에서 받는 것이야 꿈을 꾸어본 적도 없었다。내가 내돈 들여서 상장과 상패、그리고 권투선수들이 받는것같은 트로피를 받기로 작정이 나있었다。

이 엄청난 작전을 위해 동원된 사람은 무려 1백30명이 넘었다。나는 마이크로 버스 한대와 꽃다발 열개와 어머니 드릴 한복감 따위를 마련하느라고 김장산 영감이 준 돈에서 상당한 액수를 차용하고 있었다。

총장상 한개를 받으면 훌륭한 자식을 키워 줬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금반지 닷돈짜리까지 있었다。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은주 누나와 내 친구 녀석들은 어머니를 되도록 뒤켠으로 모시고 갔다。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되도록 어머니가 멀리 앉아 있어야만 했다。

상 받는 시간이 되었다。연단 위에서 제일 먼저 총장상 받는 사람의 명단이 발표되었다。

나는 무조건 벌떡 일어났다。

애들이 키득거리며 웃었다。나는 그 순간에 염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염치가 밥 먹여 주나。속으로 염치없는 것을 하느니 이렇게 내놓고 염치없는 게 나쁠 것도 없다 싶었다。

곁눈질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친구녀석들이 망원경을 어머니에게 대주고 있었다。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것 같았다。

대표자 한녀석이 상을 받으러 연단으로 나갔고 총장은 상장을 들고 서 있었다。옆에서 상장 내용을 읽어주는 사람은 느리처분하게 상장을 읽어내려갔다。뭐 지리한 시간이었다。

『어、장총찬도 총장상 받네。』

한 녀석이 야유기 섞인 말을 했다。

『임마、발음만하니까 받는 거야。』

내가 능청을 떨었다。

대표자가 상장을 받고、내려왔다。나는 자리에 앉았다。친구 녀석들이 각본대로 설명을 하고 있을 게 빤했다。

사각모와 가운을 입은채 어머니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상장을 꼭 껴안은 어머니는 내 등짝을 때리며 소리내어 울었다。

『총찬이 아부지요、이저 보셨소? 내가 장하게도 키웠지유…장하게도 키웠지유。』

상패와 상장을 안고 트로피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는 기념촬영을 했다。동원된 사진기만도 열대가 넘었다。어머니와 나는 번갈아가며 상패、트로피를 안고 사진을 찍었다。어떤 때는 은주 누나가 둘러리를 섰고 어떤 때는 패거리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저쪽 잔디밭으로 가요。』

우리 일행은 잔디밭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다른 사람들은 열개가 넘는 꽃다발과 대형 트로피를 앞세우고 걷는 우리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들은 내 장난거리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었다。한복을 입고 팔자걸음으로 걷고 있는 어머니 모습은 마치 여장부같았다。어머니의 목엔 꽃다발이 너무 많이 얹혀 있어서 앞을 잘 못볼 정도였다。

그런 모습을 친구 녀석들은 계속 찍어대고 있었다。

천연색같은 꿈꾸지마、그건 첫날밤 아니면 어림도 없어

늑대하고 같이 다닐 배짱없으니 밤엔 안만나기로 하자

잔디밭엔 주임교수와 다혜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제 어머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한쪽 눈을 찡긋거렸다。주임교수 얼굴이 굳어 있었다。그 크로마뇽인처럼 생긴 모습 때문인지 어머니가 먼저 절을 할 것 같았다。

주임교수가 어머니에게 큰절을 했다。어머니가 맞절을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런 훌륭한 아드님을 두셔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그저 고맙습니다。고맙구 말구요。』

어머니는 좀 주차스러울 만큼 허리를 숙인 채 울었다。다혜가 한복 치마를 여미고 큰절을 했다。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앉아서 다혜의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말 많이 들었네。이렇게 참하게 생긴 색시였구먼。』

어머니는 주임교수와 인사하는 것도 건성으로 한 채 다혜만을 쏘아보고 있었다。다혜가 눈길을 어디로 둘 줄 몰라 당황스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내가 눈짓으로 어머니를 노려보라고 시켰다。

『우리 아들 맘에 들우?』

어머니의 짓궂은 시험이었다。다혜가 다소곳하게 앉아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오늘처럼 기쁜 날 여기만 있을 수 없잖아요。어디 가서 점심식사두 하셔야 하고。』

어머니는 마지못한 듯 일어섰다。

우리 일행은 교문 밖까지 어머니를 에워싼 채 행진하듯 당당하게 나갔다。

『어머니、이건 어머니 드리라고 총장님이 주신 거예요。』

닷돈짜리 반지와 한복을 내밀었다。어머니는 내 가슴에 기댄 채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마이크로 버스에 올라탄 우리 일행은 예약해둔 집으로 달려갔다。

음식점에서도 어머니의 관심사는 다혜 아니면 우는 것 뿐이었다。은주 누나가 눈치 있게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다。어머니는 눈물이 너무 흔했다。울지 않아도 될 일을 우는 것으로 전부 해결하려고 들었다。

아마 어머니는 울기 위해서 상경했는지도 모른다。한이 많은 여자는 언제든 울기 좋은 계기만 되면 아낌없이、그동안 아껴두었던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울고 싶은 것인지 모른다。

『난 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정말 이제 죽어도 좋다。』

어머니의 넋두리는 끝날 것 같지 않았다。장난기로 시작한 이번 일을 지켜 본 친구 녀석들도 숙연해지기 시작했다。

음식점에서 나오자 마이크로 버스는 마치 카퍼레이드를 벌이기 위해 마련한 꽃차 같았다。버스 앞면에는 졸업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좌우에는 꽃다발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는 번화가로만 카퍼레이드를 벌이며 한시간이 넘게 돌아다녔다。어머니는 시종 울거나 웃는 얼굴로 행복에 겨운 표정이었다。

어머니를 은주 누나집에 내려놓은 뒤에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다른 녀석들은 눈치 빠르게 다혜만 남겨놓고 도망가 버렸다。

『무슨 졸업식이 그래? 사상 유례없이 많은 축하객이 몰렸던 졸업식 같았어。』

다혜 말은 사실이었다。백삼십명이나 동원됐던 졸업식이라도 그렇게 푸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기회란 이때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모한 짓을 벌인 것이다。그리고 또 하나는 다혜를 그 와중에서 점수를 줄수 있게 만들었다。

『하여튼 최대의 장난구경 한번 잘했어。앞으로 큰사람 되는 걸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더구만。』

다혜도 그런 대단한 동원력을 처음 대하는 것 같았다。동원한 사람만 백삼십명이었지 그 와중에 끼어든 사람까지 합하면 족히 이백명은 넘은 것 같았다。그 이백명이 학교 안、그 정신없이 시끌벅적한 길을 휘저으며 다녔으니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한복 입은 늙은 여자를 앞세우고 그 가슴에 얼토당토 않게 일미터 팔십센티미터나 되는 권투선수들도 그런걸 받으면 양손으로 들 수 없는 무게의 대형 트로피를 안고 걷게 했으니 사람들 눈이 커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선물도 꽤 많이 들어왔다。그냥 오기가 쑥스러웠던 모양이었다。나는 그것을 모두 어머니에게 드렸다。어머니는 복에 겨운 모습으로 어쩔 줄 몰라서 울기만 했다。

『넌 선물 안주니?』

『줬잖아。』

『적어도 너한테만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싶었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그래。열 번무리지 말고。』

『바로…널 몽땅 갖는 거。』

철썩!

다혜는 내 따귀를 때렸다。물론 힘껏 때린 건 아니었다。그것은 오랜만에 보는 귀여운 투정이었다。

『사실 난 널 오늘 꼭 갖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천연색 꿈 꾸고 있네。』

『사랑하면 뭐든 아낌없이 주는거 아니냐? 그렇게 독하게 나올 건 없잖아。』

『첫날밤 아니면 봐주는 거 없을 걸。』

『되게 빼시네。뭐 대단한 거라고。』

『잔말말고 가봐。어머니 모시고 나가야 되잖아。』

『같이 갈래?』

『난 무서워서 못가겠어。』

『그럼 역에 나갔다가 다시 만나자。』

『밤에 만나는 거 사절하겠어。난 늑대하고 같이 다닐 배짱까진 없으니까。』

다혜는 한복자락을 날리며 잔걸음으로 걸어갔다。그때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그녀를 훔치고 싶었다。내、아랫도리가 이상스럽게 용솟음치는 걸 느꼈다。

갑자기 장가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한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았다。은주 누나와 나는 어머니의 그 기쁨을 오래 지속시켜 주기 위해 연신 말대꾸를 해야만 했다。

『나、이제 죽어도 원이 없다。』

어머니는 또 울기 시작했다。내 콧날이 시큰해졌다。〈다음주에 계속〉

무슨 광고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성심껏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한국일보광고국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Donuts Shop에서 풀타임 오전 8 : 00～오후 4 : 30 일하실 여자분 구함. 직접내방 바람.
(영×칼레지 써브웨이 안)

Full Time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598－2546(다운타운지역)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2명구함
☎368－2819 (Mr. Wong)

풀타임 여자 캐쉬어 구함
☎ : 438－1528(스카보로지역)

경험있는 여자분 캐쉬어 구함
(오후10시～아침8시)
☎ : 691－6768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실 여자분 캐쉬어 구함(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
다운타운지역 ☎921－0624

테크닉 사원 모집
하드 웨어에서 2년이상 경험있으신분 구함
* 급료 우대함 * Permanent Job.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608 Bloor St. W. (Bloor×Bathurst Hardware Co.)

일요일에 가게 캐서해주실 분
유경험자 한함.(킹스톤 × 미드랜드)
☎ : 266－6355

저녁시간에 Waitress로 파트타임 일하실분은 오후 4시이후에 Nikko Garden으로 오셔서 Mr. Gus에게 문의바람(460 Dundas St. W.)

Donuts Shop(11시P·M～7A·M.)
☎ : 743－3822, 222－3877
키프링 × 알덴

3명의 아이들을 돌봐줄 하우스키퍼 구함.
베다스트와 휜치근방. 영어해야 함.
☎ : 665－4122 OR 536－7169

최석봉 씨를
양찬국씨가 찾읍니다.
샌프란시스코(미국)
☎ : 1－415－582－3124, 1－415－581－4211

매매및 양도

외국인이 경영하는 20여년의 역사를 갖고있는 기가막힌 위치에 성업중인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
☎ : 466－4091(Mr. Bert)

Equipment for Sale
★Shelves for 700 Sq.ft., 3개의 Frozen food or 아이스크림 캐비넷, 6ft.와 5ft.의 Sliding door냉장고, 아크릴사인(간판), 그외 여러가지.
★ East York에 위치한 900 Sq.ft. Space와 3베드룸 렌트 합니다.
TTC 정거장 바로앞에 위치해 있음.
☎ : 851－3866, 851－1731(저녁7시 이후)

후렌차이스 매니저 구함.
가게를 매매할 수 도 있음.
☎ : 759－9224(Ellesmere×Midland)

성업중인 수퍼마켓 매매
냉동식품, 우유제품, 그로서리, 야채류, 과일 그리고 고기(육류)등 취급.
동쪽끝 지역
☎ : 466－8283 (Mr. Mett)

외국인이 경영하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 : 463－3893

Smoke & Gift((Bloor×Bay)
주6일경영 8 : 00AM. 6 : 30 P.M
Long Lease ☎ : 964－3749

버라이어티 & 밀크 스토아 급매.
주매상 : $3,500～$4,000
렌트 : $525 (월) 비데오 머신 있음.
아스킹 : $25,000 + 스탁
관심있으신 분 연락 바람.
443 Kerr St. Oakville. ☎ : 844－6741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낵·바, 드라이크리닝을 겸해 할수 있는 상점, 살림집 포함(베더스트×로렌스)
오전 10시～오후 8시 ☎ : 783－0134

2베드룸 포함한 과일, 야채, 그로서리가게 매매
주매상 : $6,000 아스킹 : $49,000+스탁
관심있으신분 아래주소로 내방바람.
143 Roncesballes Ave.(Dundas W. Subway에서 5분거리에 위치함.)

하드웨어 스토아 급매(던다스×더프린)
☎ : 536－3826 7 : 00PM까지
656－4686 7 : 00PM이후

Convenience Store (900 Sq, ft.)
년매상 : $300,000 (Midland × St.Clair)
☎ : 267－8747(Tom Sherman)

가게와 아파트 포함한 건물매매
교통이 번화한 Parkdale지역
현대식 건물 1베드룸과 2베드룸
몰게지 : $71,000(11.25%)
아스킹 : $129,900
Call : Neville Lehrer
☎ : 763－5555, 769－0531
R. Cholkan Co. Ltd. Realtor.

벡커 스토아 급매
☎ : 535－3550

과일가게에서 필요한 장비 일절 팝니다.
야채 쿨러, 밀크쿨러, 후로즌, 저울, 과일선반
☎ : 485－9419

기프트 스토아 매매
짧은시간과 권리금 없고 년매상 : $10만
Fixture+스탁 ☎ 656-6660 12-5p.m.

고급주택, 건축용대지 2에이커(200×438)
Aurora 북쪽, Hwy 404로 30분이면 시내도착
$84,900 ☎ : 1－898－3298

"집수리 일체"시설및 수리(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 : 425－8585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한 일 은 행 : 865－0456
- 무역진흥공사 : 977－8784
- K A L : 862－8250

하우스 렌트

방세놓음(월 : $170 독신자원함)
Pape Subway 에서 1블락거리
☎ : 282－0236, 466－3764

도서판매

한국전집 (수입품)
광복20년(전25권), 한국인물사(전10권)삼국지(전6권)
한국의 가정요리(4권), 새생활백과(전8권),
가정종합병원, 대 한한사전, 토지(전6권)등
☎ : 690－2216(Mr. 최)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식품점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 274－5401

고려식품 680 Bloor St. W. Tor.
* 주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 : 531－2242

동양식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8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 : 248－5131

삼 복 식 품 ☎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주7일영업, 배달합니다.

제 일 식 품 (구: 단풍식품)
- 7DAYS OPEN(오전10～오후10시까지)
- 배달합니다.
- 뒤에 파킹 LOT 마련.

☎ : 532－1054(아리랑식당 옆)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 field Rd.
☎ : 743－827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 (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766－4770
o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o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o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킬×던다스)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사 진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 증명사진
☎ : 534－1085 김 춘 락 619 BLOOR ST. W.

무지개 칼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438－4435
●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시설및 수리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전기시설·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 : 270－3118 오현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 725
전기시설·보수·가게신설·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김부원
☎ : (B)245－5544(PAGING)2790, (R)255－2161

식 당

Choi's Restaurant
■ 메뉴 :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 시간 : 주중=낮12시～저녁10시, 주말=낮12시～밤12시
■ 주소 : 2432 Eglinton Av. E. Scarboro(at Kennedy)
☎ :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 영업시간 : 월～일요일 까지 : 낮12시～새벽 1 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 : 532－2727

오리엔탈팰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 : 536－8666

동 궁 (홍콩식 중화요리 전문)
영업시간 월～금 오전11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토 오후 4 시30분부터～새벽 1 시까지
일 오후 4 시30분부터～ 밤10시까지
1416 VICTORIA PARK AV. (South of Eglinton) 757－6834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 : 532－0602

클링턴하우스
693 Bloor St. W.
☎ : 535－9541 김 영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 742－1618

악기점

SOO PIANO SERVICE(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62 김 수 웅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Tor. Ont. M5A 1A1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 히팅· 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 : 221－5441
(냉동기 시설및 수리) 미스타 이

운전학교

오 행 근 운 전 학 교
423－3035

아스트라 운전학교 ☎ : 769－1960(B)
743－3377
761 Jane St. Mr. Eastman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파티드레스··웨딩드레스·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 INVENTORY —
①STORE인수, 인계 INVENTORY
②STORE정기조사 INVENTORY
③STORE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 : 259－5822, 255－8301(B), 252－2963(R) MR. 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745－6792(Mr. 우)

매매 부동산

A.E.LEPAGE (우덕이)
☎ : 741－9170

CANADA PERMANENT (황순일)
☎ : 481－3443

이대환 부동산 ☎ : 535－1251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 : (B) 752－3111, (R) 298－2546

D. F. McALLISTER R. E. LTD.
투자 전문(IC & I)
(B)497－0600, (R)298－8558 김시성

황용현 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 : 361－0880

ROYAL TRUST (유복영)
☎ : 762－8255 West 지역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 6548
이영두, 이견하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캐나다 외환은행
☎ : 364 : 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 1140
(KING × YORK)

자동차수리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532－3946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라지에타 개스탱크 · 히터 ·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 : (B) 245 1978; (R) 248－6032 김 용 환

FRED DOMINELLI BP SERVICE
PICK UP & DELIVERY
873 QUEEN ST. W. ☎ : 366－2673. 366－220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번 달 원
☎ :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오전및 주말) MR. 박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 : 749－9749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전기덕

FIRST AUTO SERVICE
● 메카닉샵 : 튠업, 브레이크, 전기부분
● 오토바디 : 토잉써비스, 사고차량 일체수리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 : (B) 532 0200, (R) 533－2157

ALLEN AUTO SERVICE
● GENERAL AUTO SERVICE ● TUNE-UP
● BRAKE JOB ● TIRE ● TOWING SERVICE
● ENGINE OVERHAUL ● ELECTRIC PROBLEM
● AUTOMATIC TRANSMISSION ● OIL CHANGE
주소 : 595 KEELE ST. TOR. ☎ : 762－8247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용)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자동차 매매

North York Chev. 김 병 권
7200 Yonge St. Thornhill
☎ : 881－5000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 :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카펫 · 카텐

M & M 카 펫
카펫, 리노리움, 비닐, 세라믹타일, 벽지, 인서레이션, 무료견적봉사
☎ : 536－7875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 : 751－9236, 757－2106 홍진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 535－0647, 465－1722 송 판 현

보 험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Sun Life (백 용 빈) ☎497－3800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김 종 조 종합보험 ☎537－7200

임페리얼 Life (김 홍 량) ☎482－0166

불 교

선 련 사 ☎ : 532－3491
46 Gwynne Ave.

불 광 사 ☎ : 223－9152
288 Hownslow Ave.

대 각 사 ☎ : 463－8998
11 Dawson Ave. Tor. Ont.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535－2143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빅·세븐
678 Bloor St. W. ☎530－0523

Mister Oh for Men
☎ : 964－2606, 869－0589, 275－2187

치 과

Dr. Mark Kochman ☎ : 233－9454
(월, 토)9 : 00A. M～6 : 00P. M, (목)9 : 00A. M～9 : 00P. M. 3101 Bloor St. W. Ste. 203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신용조합

천주교회 신용조합
941 DUNDAS ST. W. TOR. ONT. M6J 1W4
☎ : 363－0097

한 인 신 용 조 합
641A Bloor St. W. (2nd Fl.) Tor. Ont. M6G 1L1
☎ : 533－9387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이 경 복 회계사무소
INCOME TAX & BOOKKEEPING ☎ : 766－5639
COMPUTER SYSTEM, 3416 DUNDAS ST. W. SUIT. 206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 : 278－7300 MISSISS.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 BOOK KEEPING & ACCOUNTING
● MANAGEMENT CONSULTING 이 영 철
●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Chung's Accounting 정 필 주
· Tax Return, Planning
전 C.A. Firm Accountant ☎ : 661－1819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웨스톤×로렌스)로브로 앞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960－0074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미시사가 한글학교
☎822－6438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쇼햄한글학교
☎663－1178

김용순 무용연구소
☎924－3905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MUNAMI TROPHY & SPORT
·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요일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 : 298－3584

약 국

돈 밀 약 국
☎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 : 368－2746
조 남 오

번역및통역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281－1677 이영화(전 대학강사)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뜸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Ontario St. #517(St. Jamestown)박영숙

＊동 양 한 약 상 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거의다가 서입)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신비의 생 약 "알로베라" 판매 정 효 기
가정 상비약으로 필수
4020 Dundas St. W. ☎ : 248－1362(R), 769－4347(B)

인 쇄

윌슨인쇄소 ☎ : 638－6919 임 윤 식
904 Wilson Ave. Downs view, Ont. M3K 1E7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746－0675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 주 보 · 명 함 · 청첩장 · 책 자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493－8894, 윤 종 대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 : 535－3520 곽 호 중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명함,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 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정밀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 : (B)789－7351, 789－7352
대표 이인용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 244－2301

미 용

킴 스 미 용 실 (코리아하우스 뒤)
☎ : 532－7094(B), 248－2437(R)

로 마 노 미 용 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 : 248－2957(B) 247－6875(R)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en Plaza unit 8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 렌 미 용 실 김 조 자
377 Albion Rd. 한국식품 서부지점에서 동쪽에 위치
☎ : 741－7829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걸 작 만 화

"The computer doesn't think much of your idea!
『컴퓨터는 사장의 아이디어가 별게 아니래요.』

流星의 賦 <32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虛實의 時間 ㉑

계남의 한양길은 대개 이천(利川) 광주(廣州)를 거치는 것이었는데 이번엔 과천(果川)의 친구를 찾을 양으로 서편 길을 택했다.

평택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길과 과천으로 가는 길의 갈림 길에 이르렀을 때였다. 군관(軍官) 차림의 사람들을 태운 세마리의 역마가 쏜살 같이 서울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계남의 옆을 지나치며 소리쳤다.

『난리요, 난리요. 왜놈들이 쳐들어왔소』

계남은 벼락을 맞은 듯 일시 정신을 잃었다. 눈 앞이 캄캄했다.

(아아, 좀 더 소상하게 물어 볼걸)

하는 의식과 더불어 정신을 차렸을 땐 그들의 말발굽이 일으킨 먼지의 흔적만이 저편 산굽이에 서려있었다.

계남은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 가기 시작했다. 난리가 났다는데 거처를 옮기고 어쩌고 할 정황이 허용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달리듯 하여 큰집의 사랑문으로 들어서자 대청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자수가

『서울로 간다더니 어찌된 일인고』

하고 계남의 당황한 모습에 걱정스런 눈초리를 쏘았다.

『왜병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계남이 가까스로 이렇게 말하고 숨을 돌리자 자수가

『왜병이 쳐들어 왔다고? 그걸 넌 어떻게 알았느냐』

고 물었다.

계남은 삼거리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자수는

『며칠전부터 봉화가 보이더라고 전하는 사람이 있더니만 그게 그변을 알리는 것이었구나』

하고 계남더러 밤으로 들어오라고 일렀다.

『일본의 사정은 네가 대강 말한터이지만 놈들이 쳐들어왔다고 하니 소상하게 알아야겠다』

고 전제하고 자수가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놈들의 세를 우리 군사가 꺾을 수 있겠느냐』

『우리 군사의 힘으로 어려울까 합니다. 놈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여 쳐들어 왔는데 우리 군사에겐 전혀 준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라의 꼴이 어찌 되겠다는 것이냐』

『군사로선 당적(當敵)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백성모두가 힘을 합하면 능히 놈들을 무찌를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적군 50만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우리 백성의 수는 5백만이 되질 않습니까. 5백만이 한덩어리가 되어 50만을 무찌르지 못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요는 단결입니다. 충성입니다』

『놈들은 조총(鳥銃)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았느냐』

『조총 하나를 열사람의 팔매로써 당하지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구나』

하며 자수가 일어섰다.

『아버지 어디로 가시려구 그러십니까』

『동 너머 김달손에게 가보아야겠다. 김달손과 의논해서 전비(戰備)를 만들어야 하겠다. 안성(安城)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넌 곧 서울로 올라가라. 네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싸우실 양이면 저도 여기에 남아 아버지를 돕겠읍니다』

2ND CLASS MAIL NO. 5248